

## 第4章 地 勢

### 第1節 地勢 및 位置

原州 原城地方은 우리나라의 中部地方이며 江原道の 最南西端에 位置하고 있을 뿐 아니라 東쪽으로 이 나라의 脊梁을 이루는 太白山脈이 東西의 分界嶺을 이루고 이의 主峰인 五臺山에서 起脈한 車嶺山脈이 平昌, 旌善, 寧越地帶와 같은 高原地帶를 形成하고 終着으로 雉岳山(1,288m)과 白雲山(1,097m)이 솟구쳐 東南을 막고 있다. 太白山脈으로 부터 뻗친 雉岳山과 白雲山 밑으로 아담히 솟은 鳳山과 南山이 兄弟처럼 갈라진 사이로 기름진 丹邱平野가 펼쳐져 있는 原州市는 東經 127度 21分 北緯 37度 21分선상에 東西延長 123km 南北延長 11.4km의 區域으로 표고 140m의 盆地를 이루고 있다. 東으로 寧越郡 水周面과 原城郡 所草面 西로는 原城郡 興業面 남으로는 原城郡 板富面과 興業面 北으로는 原城郡 所草面과 好栢面이 각각 인접하고 있으며 雉岳山과 白雲山の 각 溪谷을 源泉으로 하는 영랑천, 단계천, 홍양천 등 작은 河川이 合流하여 漢江의 지류인 原州川을 이루고 그 지류와 유역에 발달한 작은 平野는 農耕地로서 호적하나 市街의 外연으로 農地는 狹窄한 편이다. 한편 原城郡은 東北方에 太白山의 일지맥이 있고 海拔 1,288m의 雉岳山에 인접한 地域으로 東經 127度 57分 北緯 37度 21分선상에 管内 일순거리는 17,153km이고 北은 橫城郡 西는 경기도 여주郡 東은 寧越郡 東南은 忠北 堤川郡 南은 忠北 中原郡에 각각 인접하고 있으며 橫城郡 태기산을 上流로 하는 蟾江이 5個面(所草, 好栢, 地正, 文幕, 富論)을 관류하고 五臺山을 上流로 하는 寧越川과 섬강이 합류하는 남강사이로 流量이 豊富한 南漢江이 흘러 農耕地의 灌溉役割을 하고 있다. 또한 이 地域을 中心으로 한 一帶의 地質은 주로 경산계 불국사 계통의 화강암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외에 관록암 관장암 등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原州 東方 約 7km지점 부터는 회색 화강암 편마암이 東北南西 방향으로 분포되고 原州 東南方 約 10km 떨어진 지역부터는 城南里를 中心으로 하여 연천계 및 태백산 계통의 운모편암, 규암, 결정질, 석회암, 천매암, 각관, 편암 등이 분포되어 있어 土性은 산성화 하였으나 대체로 비옥한 편이다.

### 第2節 山川 및 津遷

雉岳山=在州東25里嶺山. 瑯瑟岬山=在酒泉縣北30里. 白雲山=在州南30里. 食岳山=在州西15里. 白德山=在州東30里. 仇陵山=在酒泉縣南10里. 瑞谷山=在州南20里. 玄溪山=在州南60里. 鳴鳳山=在州南30里. 都也尼峴=在州南30里. 柎峴=在州東60里 極高險. 月瀨灘=在州西25里 源出 橫城縣奉福山流入蟾江. 蟾江=在州西50里 即忠清道忠州金遷下流. 沙川=在酒泉縣東22里 源出江陵府月正山西. 公龍灘=在酒泉縣南20里 沙川下流津渡處. 東川=在州東150步源出雉岳山北流合于橫城縣西川(以上은 新增東國輿地勝覽第6輯 46卷에 山川關係記錄임)

#### (1) 山과 峯

原州 原城地域의 山은 原州市內를 흐르는 鳳川을 中心으로 東北쪽으로 雉岳山이 가로 놓여 있고 南西로 白雲山の 落脈으로 形勝되어 있다. 車嶺山脈이 흘러 雉岳의 靈山을 이루었는데 北端으로 海拔 1,288m의 飛盧峰과 南端으로 1,168m의 南大峰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가닥 陵線으

## 第1編 總 論

로 24km의 長山이다. 雉岳山 落脈으로 이루어진 小群山들이 있고 그 落脈은 原州市 盤谷洞 香邱洞 鳳山 1,2洞 台庄 1,2洞과 原城郡은 所草面一帶 好楮面一帶 神林面一部로 되어 있고, 한편 小白山脈이 흘러 이루어진 白雲山은 1,097m의 높은 산으로서 亦是 雉岳山과 같이 北에서 南으로 主陵線이 뻗어 있으며 그 西便으로 落脈이 흘러 丘陵의 산이 이루어졌으며 그 落脈에는 原州市의 觀雪洞, 丹邱洞, 開運洞, 明倫洞, 園仁洞, 中平洞, 一山洞, 茂實洞, 鶴城1,2洞 丹溪洞, 牛山洞과 原城郡은 地正面, 興業面, 文幕面, 富論面, 貴來面, 板富面, 新林面 一部로 되어 있다. 이 兩大山의 支脈으로 이루어진 산을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 雉岳山=原州 東쪽에 있으며 主陵線 西쪽 石經村까지 6km가 된다. 主陵 東便은 橫城땅이다.
- 德高山=所草面 屯屯里에 있으며 雉岳山의 一枝脈이다.
- 사무랑산=所草面 衣冠里에 있고 雉岳山의 一枝脈이다.
- 토끼봉=일명 도끼봉이라고도 한다. 所草面 興陽里에 있다.
- 大王山=所草面 계암동에 있으며 雉岳山의 一枝脈이다.
- 德加山=地正面 安昌里에 있으며 橫城 泰崎山의 一枝脈으로 過히 높지는 않으나 奇岩絶壁으로 西走하고 있다. 베들굴, 두명폭포, 옥바위, 5兄弟峰, 文淵洞天等 一日登山코스 適當하다.
- 玄溪山=富論面 蓀谷里에서 法泉 2里까지 西走하고 있는 산이며 白雲山의 一枝脈으로 南漢江까지 내뻗고 있다.
- 黃鶴山=富論面 法泉 2리에 있으며 亦是 白雲山의 一枝脈으로 貴來面의 미륵山에서 뻗어 내린 한가닥이 蓀谷里에서 다시 2枝로 나뉘어 左右로 西走한 산으로 一枝脈은 玄溪山이고 一枝는 黃鶴山이다.
- 靑龍峰=富論面 興湖 1리에 있다. 白雲의 一枝로서 蓀谷을 거쳐 弱한 丘陵으로 西走하다가 여기서 다시 起峰한 것이다 海拔 300m다.
- 미륵山=貴來面 周浦里에 있으며 海拔 576m인 미륵峰을 爲始하여 12個峰으로 素服한 산이며 白雲山의 枝脈으로 西走하여 양아峙를 지나 뻗어가다가 左側으로 꺾이면서 起峰하며 기암 절벽의 12峰을 이루고 여기에는 江原道內뿐만 아니라 나라안에서 第一 큰 佛像이 岩壁에 그 려져 있다.
- 尾峰山=興業面 沙堤里 봉미에 있다.
- 鳴鳳山=興業面 大安 2里 금산에 있다 白雲山의 一枝脈으로 西走한다.
- 飽腹山=興業面 沙堤 1리에 있으며 一名 배부름山이라고 한다.
- 大松山=一名 덕가山이라고도 한다. 白雲山의 枝脈으로 양아치에서 起峰하여 西走한 가닥이다.
- 白雲山=北에서 南으로 뻗어내린 長山이며 雉岳山과 加里波峙에서 나누어진다. 海拔 1,097m의 高山으로 東便은 堤川 땅으로 유한便이고 西便은 原城郡이되나 惡한 便이어서 쓸모 없는 산이다. 여기에는 감투봉, 투구봉, 3兄弟峰, 가석재峰等 이름이 있다.
- 照岩山=好楮面에 있으며 치악山의 枝脈이다.
- 고무니골산=一名 고니골山이라고도 한다. 태기山의 枝脈이다.
- 小金山=태기山의 枝脈으로 고무니골산에서 南走한 산이다 靈山 앞山 이라고도 한다.
- 九鶴山=白雲山의 枝脈으로 東走한 산으로 神林面에 있다.
- 南大峰=雉岳山 南端에 있는 1,186m의 높은 峰이다. 神林面에 屬한다.
- 大松峙=一名 대수리라고 한다 興業面 大安里를 가는 고개다.

- 양아峙=原州 30里許에 있으며 忠州로 通하는 國道에 있는 고개로 「작은 양아치」 「큰 양아치」의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興業面과 貴來面의 面界를 이룬다.
- 샛갯봉(笠峰)=原城郡 文幕面과 京畿道 驪州郡 康川面間 國道에 있는 높은 고개다.
- 高屯峙=雉岳山 한 가운데 있으며 原州와 江陵을 잇는 지름길에 있으나 只今은 登山人들이 오르나릴 뿐 간혹 橫城郡 安興面 釜谷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 다니기도 한다.
- 와우고개=好楮面과 地正面을 있는 고개로 最近에 車道로 되었다.
- 加里波峙=雉岳山과 白雲山間에 있으며 忠北堤川과 連結되는 國道로서 包裝路이다.
- 柵峙=神林에서 黃屯으로 連結하는 고개로 싸리치라고도 한다.
- 패니고개=一名 都也尼峴이라고 하나 패니로 부르며 小松峙라고도 한다. 興業에서 大安里로 通하는 大松峙아래에 있는 고개다.

## (2) 河 川

- 南漢江=原州 60里許에 있으며 上流는 忠北 忠州로서 原城郡 富論面 丹江里에서 鼎山里 法泉里를 싸고 돌다가 興湖里에서 蟾江과 合流하여 京畿道 驪州로 下流한다.
- 蟾江=태기산에서 부터 始流하여 橫城邑內를 거쳐 原城郡 所草面 衣冠里와 好楮面 高山里로 들어와서 大德 玉山을 거쳐 終浦 平川에서 雉岳山에서 흐르는 鳳川과 合流하여 地正面과 文幕面을 경유 富論面 興湖里에서 南漢江과 合流한다.
- 桐華川=桐華山에서 始流하여 桐華 2里에서 蟾江으로 合流한다.
- 盤溪川=京畿道 驪州郡 北內面 원심이에서 始流하여 盤溪를 거쳐 文幕에서 蟾江으로 合流한다.
- 金垞川=雉岳山南大峰에서 始流하여 一輪川과 혜룡천, 내원천등이 合流되어 鳳川으로 合流한다.
- 梅芝川=白雲山골에서 始流하여 매지 3리를 거쳐 회촌과 매지 2리 1리 興業 2리에서 瑞谷川과 合流하여 蟾江으로 들어 간다.
- 瑞谷川=白雲山 北端 西便 龍沼골에서 始流하여 瑞谷을 거쳐 梅芝川과 合流한다.
- 大安川=興業面大安 3里에서 始流하여 2리, 1리를 거쳐 沙堤 1里에서 梅芝川과 合流한다.
- 平村川=白雲山 貴來 2里에서 始流하여 雲溪川과 雲南川이 合流되어 가지고 龍岩里를 거쳐 富論面 丹江里에서 南漢江과 合流한다.
- 周浦川=雉岳山 城南골에서 始流한 城南川과 白雲山에서 始流한 물이 龍岩里에서 合流하여 九鶴川으로 合流된다.
- 平庄川=雉岳山 黃谷과 凡골에서 始流한 물이 平庄里에서 合流하여 原州市 台庄洞에서 原州川으로 合流한다.
- 原州川=一名 鳳川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東川이라고도 했다. 原州市內를 南에서 西北間으로 흐르는 河川으로 雉岳山과 白雲山 北쪽의 물을 받아 原城郡 好楮面에서 蟾江과 合流한다. 여기를 原州의 水口門이라고 일컬어 오며 始流에서 合流까지의 거리는 12km 內至 18km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이 豊富한 편은 못 된다. 反面에 장마때는 갑작스럽게 붓는 물로 또한 急流로서 위험도가 높다.

## (3) 津 灘(여울과 나루터)

原州 原城地方에는 大川이 없고 蟾江이 所草, 好楮, 地正, 文幕을 지나고 있으나 大部分 橋梁이 있고, 배를 全然 利用하지 않는 데여서 여울에 對해서는 問題視하지 않고 있다. 東國輿地勝覽 原州編에 보면 月瀨灘과 公龍灘이 記錄되어 있으나 이미 橫城땅과 寧越땅이 되어 原州와는 關

## 第1編 總

係되지 않기 때문에 記錄하지 않는다.

### (가) 津(나루터)

原州 原城管内의 나루터는 大部分이 橋梁 架設이 됨으로 나루터는 없어지고 原城郡 管内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다음과 같다. 好楮面에 平川나루터와 玉山나루터가 있으나 平川나루터는 1973年度에 大橋를 놓아 나룻배는 無用之物이 되었다. 玉山나루터 亦是 平川橋가 架設됨으로 나루를 利用하는 사람이 없어 폐지되었다. 文幕面에 翠屏나루터와 厚用나루터 그리고 石지나루터가 있는데 취병나루터는 취병리에서 진등리를 잇는 나루터이지만 文幕大橋가 架設되고 취병리까지 배스가 드나들기 때문에 利用하는 사람이 차차 적어져가고 있어 지금은 조그마한 木船이 한隻 있을 뿐이며 文幕面에서 管理하고 있고, 厚用里나루터는 후용과 반제리를 잇는 나루터로서 10年前만 해도 利用度가 많아 管理도 철저했으나 지금은 農土를 江 건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農事짓기에 使用하는 조그마한 나룻배가 있으며 일정한 管理者는 없이 個人들이 使用하고 있다. 석지나루터는 취병 안창과 진등리를 連結하는 나루터였으나 지금은 크게 쓰여지지 않고 있다. 다음에 地正面은 蟾江을 끼고 있어 安昌里와의 連結이 아직도 나룻배가 아니고는 通行이 不可하기 때문에 정지말나루터와 다래나루터의 渡船場이 있다. 다래나루터에는 一定한 管理者가 있어 渡船料를 받고 있다.

다음 富論面에 있는 나루터는 개치나루터와 양호나루터 좀재나루터 다리꼴나루터가 있는데 이 모두가 富論面 丹江里에서 부터 興湖里까지 16km 거리의 南漢江 渡船場인데 다리꼴나루터는 京畿道 땅을 連結하는 조그마한 나룻배 一隻이 있을 뿐이고 좀재나루터는 富論面 鼎山里와 忠北 中原郡 仰城面을 連結하는 나루터로서 亦是 조그마한 나룻배 한 척 만으로 渡船하고 있으나 管理는 江 건너 忠北 땅에서 하고 있고, 양호 도선나루터는 丹江里에서 忠北 中原郡 蘇台面을 連絡하는 渡船場으로 나룻배 한隻 뿐이며 管理는 亦是 江 건너에서 하고 있다. 개치나루터가 가장 重要視되고 있는 나루터로서 江原道와 忠北 中原郡 그리고 京畿道 長湖院 等地를 連結하는 自動車와 人員을 渡船하는 곳으로 富論面 法泉里 一區 개치에 있으며 牛馬車와 自動車を 渡船할 수 있는 큰 배 一隻과 사람만을 싣는 나룻배 2隻이 있어 早朝부터 밤 늦게까지 渡船作業을 하고 있는데 渡船料를 水位에 따라 加減 징수하고 있다. 管理는 富論面에서 하고 있는데 江 건너에 居民들은 개치場을 利用하기 때문에 장날은 渡船場이 몹시 붐비고 있다.

### (나) 遷(벼루)

遷에 있어서는 原州市는 丹邱洞 月隱亭 옆에 丹邱遷이 있었으나 지금은 丹邱川에 水位가 없어 위험한 벼루는 아니다. 原城郡에는 貴來面 龍岩里에 있는 花香遷이 있고 富論面 興湖里 독바우벼루와 文幕面 翠屏里에 翠屏遷과 地正面 安昌里에 5兄弟遷과 屏岩遷 好楮面 玉山遷과 觀魚臺와 東臺가 있으며 地正面 茂長里에 도롱소의 벼루가 있다. 板富面 瑞谷里에 龍沼라는 큰沼가 있었고 거기에 龍遷이라고 있었으나 龍沼가 메워짐으로 위험은 없다.

### (다) 坪(들)

(1) 原州市 管内는 옛부터 丹邱들과 艇舡을 그리고 牛頭山들이 있어 여기에서 나오던 農作物만도 大端했다 그러나 6.25 動亂 以後 갑작스런 人口增加에 따른 住宅地로도 使用되어 가고 있지만 丹邱들과 정지들은 거의가 軍用地로 使用되고 있고, 牛山들은 工業團地로 되어 工場과 住宅이 들어서고 있다.

(2) 原城郡 管内는 江原道에서도 몇째 안 가는 文幕들이 農作物生産에 큰 役割을 하고 있다. 1974年度에는 18萬坪의 農地改良事業이 있었다. 年次的으로 全面改良을 할 것이다. 長이 8km에 廣이 3km이다.

(3) 原城郡 地正面 茂長里에 新坪이란 들 또한 크다. 長이 4km에 廣이 1.5km이다.

(4) 原城郡 好楮面에 加峴별도 長이 3km에 廣이 1km이다.

### 第3節 貯水池 및 堤防

原州市 管内는 貯水池가 없고 小溜池만이 27개소 있으며 原城郡 管内는 11개 貯水池와 51개의 小溜池가 있다. 市, 郡別로 貯水池名과 小溜池名만 記錄하고 湧리면적은 除外한다.

#### (1) 原州市 管内(小溜池 27個所)

㉔ 丹邱洞에 관후소류지, 귀론소류지, 배울소류지 경천원소류지가 있고

㉕ 丹溪洞에는 백간소류지가 있으며

㉖ 牛山洞에는웃골소류지

㉗ 台庄 1洞과 2洞에는 가매기소류지, 우곡소류지, 소일소류지, 구룡곡소류지

㉘ 鳳山 2洞에는 번재소류지, 모래기소류지가 있고

#### (2) 原城郡 管内

(가) 貯水池=所草面에 鶴谷貯水池, 板富面에 端谷貯水池, 文幕面에 盤溪貯水池와 翠屏貯水池 建登貯水池가 있고 地正面에 茂長貯水池와 皮谷貯水池, 道溪貯水池가 있으며 興業面에 梅芝貯水池 貴來面에는 平村貯水池, 神林面에는 黃屯貯水池等 總11個 貯水池가 있다.

(나) 小溜池=㉙ 所草面에 고리골소류지, 신양소류지, 선너골소류지, 무수터소류지, 못뒤소류지, 질개울소류지, 홍양소류지, 수재울소류지, 적동소류지, 관암소류지 등이 있고,

㉚ 好楮面에는 평촌소류지, 작은절소류지, 샘골소류지, 쇠절이소류지, 동막소류지, 장포소류지, 생담소류지, 백동소류지가 있으며

㉛ 板富面에는 외남송소류지, 내남송소류지, 도매륜소류지가 있다.

㉜ 富論面에는 뒷산소류지, 고사리골소류지, 가래울소류지, 진거미소류지, 황수골소류지,

㉝ 杏邱洞에는 살기독소류지, 거름터소류지, 동막소류지, 오리골소류지, 쇠지소류지

㉞ 茂實洞에는 만대골소류지, 무리실소류지, 송삼소류지, 은행정소류지

㉟ 觀雪洞에는 섬재소류지, 대평소류지가 있고

㊱ 盤谷洞에는 후동소류지, 삼북골소류지, 서리실소류지, 봉매소류지 등이 있다.

㊲ 興業面에는 밤골소류지, 회춘소류지, 육민관소류지, 자감촌소류지, 송안소류지, 삼성소류지, 사계소류지, 광터소류지, 요골소류지가 있으며

㊳ 貴來面에는 칠동소류지, 범동소류지, 용암소류지, 대동소류지, 수유소류지, 유현소류지 등 모두 51개 소류지가 있다.

㊴ 所草面에는 칠동소류지, 범동소류지, 용암소류지, 대동소류지, 수유소류지, 유현소류지 등 모두 51개 소류지가 있다.

#### (3) 堤 防

(가) 原州는 原州川이 市街地 中央線을 南에서 西北方向으로 흐르고 있어 洪水를 防止하기 爲하여 堤防을 構築하였다 原州市 觀雪洞에서 부터 加峴洞까지 兩便으로 總延長 21,15m와 興陽川에 壽岩橋에서 부터 原州川 合流地點까지 3,700m의 堤防을 구축하므로 洪水를 막고 있다. 이 堤防은 1975年 現在까지의 完工된 距離이다.

(나) 原城郡 管内는 ㉔ 蟾江의 厚用堤가 1,295m로 文幕面 厚用里에서 富論面 興湖里間에 있다. ㉕ 蟾江浦津堤는 3,235m의 길이로 文幕浦津里에서 富論 興湖間에 있다. ㉖ 蟾江 礮溪堤는 文幕 礮溪里에서 富論 興湖間에 있으며 延長 4,650m이다. ㉗ 蟾江翠屏堤는 文幕面 翠屏里 앞 堤防인데 延長 500m이다. ㉘ 蟾江 安昌堤는 地正面 安昌里와 文幕浦津間에 있으며 延長 150m이다. ㉙ 蟾江建登堤는 文幕面 建登里와 建登里間에 있으며 延長 1,900m이다. ㉚ 蟾江 大德堤는 好

## 第1編 總 論

楮面 大德과 玉山間에 있으며 延長 200m이다. ㉔ 蟾江 所草堤는 所草面 衣冠里와 好楮面 玉山間에 있으며 延長 3,800m이다. ㉕ 宮村川 宮村堤는 貴來面 貴雲과 文幕面 宮村間에 있으며 延長 490m이다. ㉖ 梅芝川 桐華堤는 貴來面 양아치와 興業間에 있으며 1,200m이다. ㉗ 原州川 金岱堤는 板富面 金岱里와 金岱里間에 있으며 延長 900m이다. ㉘ 長陽川 長陽堤는 所草面 橋項里와 長陽里間에 있으며 延長 400m이다. ㉙ 鶴谷川 鶴谷堤는 所草面 매지골과 학곡간에 있으며 延長 400m이다. ㉚ 雲溪川 雲溪堤는 貴來面 雲溪里와 龍岩里 間에 있으며 延長 400m이다.

## 第4節 道路 및 橋梁

### (1) 道路網의 發達

開化 이전의 道路는 狹小하고 屈曲이 심해 牛馬車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이 大部分이었다. 조금만 비가 와도 浸水되고 流失되는 道路가 많았으며 河川이나 江에는 橋梁다운 橋梁이 없어 징검다리나 나룻배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山이 많은 우리나라는 爲政者들이 道路가 險해야 外亂의 侵入을 막을 수 있다 하여 治道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道路事情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開化期 우리나라의 道路網은 서울을 中心으로 한 5大 幹線道路가 主軸을 이루었다. 그 내용은 ① 서울에서 龍仁, 忠州, 開慶, 大邱, 清道, 梁山을 거쳐 東萊에 이르는 京釜道路(960里) ② 서울에서 銅雀洞, 果川, 水原, 天安, 公州, 井邑, 長城, 靈岩을 거쳐 海南에 이르는 京海道路(980里) 여기서 濟州와 연결 ③ 서울에서 弘濟洞, 開城, 黃州, 平壤, 博川을 지나 義州에 이르는 京畿道路(1080里) ④ 서울에서 水躑里, 金化, 淮陽, 德源, 咸興, 北靑, 端川, 吉州, 茂山, 會寧, 穩城을 거쳐 慶興에 이르는 京興道路(2,460里) ⑤ 서울에서 忘憂里, 楊根, 原州, 江陵, 蔚珍을 지나 平海에 이르는 京平道路(880里) 등이다. 이 가운데 江原道內를 지나는 幹線道路는 京興道路가 金化 淮陽등을 지나고 京平道路가 原州, 平昌등 江原道를 가로질러 大關嶺을 지나 江陵에 이른다. 또 要路에 있는 河川에는 渡船이 있었는데 渡船에는 國家가 經營하는 官船과 개인 또는 面 洞등 共同體가 經營하는 私船이 있었다. 특히 主要道路인 京平道路는 名勝 古蹟이 많고 史庫(五臺山) 등이 있어서 개발된 점은 오늘의 實情과 똑 같다. 우리나라에 近代의 의미의 道路가 생긴 것은 金玉均의 「治道略論」이 발표된 1884년 이후 부터이다. 金玉均은 日本에 다녀온 후 나라가 富強하려면 産業을 開發해야 하고 産業을 開發하려면 治道부터 해야 한다고 主唱하여 1883년에는 治道局의 設置를 보아 制度의인 뒷받침을 얻었다. 開化思想이 定着하기 시작한 1880년대부터 交通 通信부문도 새로운 變革의 시대를 맞았다. 188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傳來의 遺物인 驛察訪제도가 폐지되고 서울에서 釜山과 義州 사이에 電線이 가설되고 京仁鐵道가 개통되었다. 濟物浦와 釜山등 開港場에는 火輪船이라고 부르는 汽船이 빈번히 드나들어 交通革命을 예고했다. 이같은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立案된 것이 1907년부터 시작된 道路改修計劃이다. 최초의 道路改修計劃은 鎭南浦와 平壤, 木浦와 光州, 群山과 全州, 大邱와 慶州 사이의 4개 路線 256km를 全面 改修하는 것이었다. 이어 小井里와 公州, 水原과 利川, 海州와 龍塘浦, 黃州邑內와 開城, 新安州와 寧邊, 新義州와 麻田洞, 新馬山과 晉州 사이의 197.6km 등을 順次的으로 改修해 나갔다. 工事는 路幅을 6~7m 最急勾配 25~30분의 1, 曲線半徑 15~20m로 하는 것이었다. 地方道の 경우는 路幅을 5m 정도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道路事情에 비추어 보면 劃期的인 것이었다. 新作路라는 말이 생긴 것도 이 즈음이다. 韓末 開化期の 道路改修는 財政事情과 土木技術문제 때문에 日本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國內交通은 京釜, 京義線(철도)이 부설되고 釜山과 下關사이에 釜關連絡船이 운행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道路事情은 훨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自動車가 개발되

지 않던 시대여서 都市에서는 人力車가 택시의 구실을 하여 富裕層이나 日人들이 이용했고 먼 거리는 汽車나 말(馬)을 이용했었다. 原州로 赴任하는 官吏는 東大門 밖에서 말을 타고 꼬박 이들이 걸려야 任地에 부임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開化期에는 近代의인 道路와 交通施設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國內外的인 여러가지 與件으로 着手단계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韓國에 近代의인 交通施設과 手段이 등장한 것은 1910년 所謂 韓日合邦 이후 부터이다. 日帝는 韓國을 政治, 經濟의으로 支配하기 위한 先行條件으로 交通手段의 近代化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日帝의 大陸侵略이 露骨化하면서 더욱 加速化되었다. 淸日, 露日 두 전쟁 기간 중에 馬山線과 京義線(철도)이 부설되고 合邦 후에는 交通政策이나 土木建設이 완전히 日帝의 植民地 支配를 위한 側面에서 立案 推進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公道는 國道와 地方道로 구분하고 國道는 당연히 國費로 開設 補修되어야 함에도 日帝는 住民들을 강제로 賦役에 동원하는 바람에 일반 주민들의 부담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1910년대 우리나라의 道路는 1, 2, 3等道路 및 等外道路의 4種으로 區分되었다. 1, 2等道路는 總督府가 관리하고 3等道路는 각 道廳이 等外道路는 府, 郡廳이 관리했다. 1等道路는 서울에서 各道廳 所在地와 軍事要地 및 주요 交通要地에 이르는 道路, 2等道路는 道廳 所在地에서 府 郡廳 所在地 또는 道內 주요 交通要地에 이르는 道路, 3等道路는 隣接 府, 郡廳 所在地를 연결하는 道路와 府, 郡廳 所在地로부터 府郡內 주요지점에 이르는 도로 및 主要地點을 연결하는 道路, 等外道路는 1, 2, 3等道路에 속하지 않은 모든 道路를 일컫었다. 1913년 5월 道路取締規則이 施行되던 초기에는 步行者는 右側, 牛馬車는 道路 中央部の 右側을 通行하고 牛馬車가 追越하려고 할 때에는 左側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으나 1921년 規則改正으로 步行者는 左側, 牛馬車는 右側으로 通行하도록 되었다. 日帝下의 道路事業은 1911년부터 1922년까지 사이에 추진된 第 1, 2期 治道工事を 첫손에 꼽는다. 第1期 工事は 合邦 다음 해인 1911년에 시작되어 1917년까지 7個年 繼續事業으로 推進됐고 第2期 工事は 1917년 10월 第1期 治道工事が 예정대로 끝나자 다음달인 11월부터 시작되어 1922년까지 계속되었다. 舊 韓末에 착수된 우리나라의 道路體系가 일단 기틀을 잡은 것도 이 時期이다. 光化門에 道路元標를 세우고 서울을 中心으로 한 放射的 道路體系가 確立되었고 漢江橋를 비롯한 近代의인 大橋梁도 이 기간중에 몇개 建設되었다. 가장 重點을 둔 것은 1, 2等道路 34개 路線의 改修와 橋梁 架設이었다. 특히 1916년 3월에 着工하여 19개월만인 1917년 9월에 完工된 漢江人道橋는 1等道路인 京釜, 京木, 京仁道路를 연결하는 交通要地에 加設되어 意義가 컸다. 1, 2期 治道工事を 통해 건설된 全國의 主要 1等道路는 ① 光化門元標로 부터 大漢門 앞을 지나 釜山에 이르는 道路 ② 大漢門 앞에서 漢江路를 지나 木浦에 이르는 道路 ③ 光化門元標로 부터 西大門을 지나 仁川에 이르는 道路 ④ 서울(義州路)에서 平北 義州에 이르는 道路 ⑤ 光化門元標로 부터 惠化門을 지나 元山에 이르는 道路 등 5개 幹線을 꼽는다. 第1期 治道工事기간 중 (1911~17)에 건설된 原州 管內 主要道路는 서울~江陵線 중 利川 驪州 經 原州 江陵間 193.4km인데 舊韓末에 이미 水原~利川間 51.1km가 완성되었고 이어 나머지 區間인 利川 驪州, 原州, 江陵間이 完成된 것이다. 이어 第2期 治道工事기간 중(1917년 11월~22年末)에 이룩된 事業은 2等道路인 金化~忠州線의 原州~忠州間 13.7km와 春川~原州間 12.5km(일부)가 건설되고 忠州~江陵線이 部分 改修되었다. 道路網의 擴充은 1920年代에 들어와 自動車의 普及이 늘어나면서 더욱 促進되었다. 汽車 汽船등과 함께 自動車의 普及은 流通經濟面에 많은 變革을 가져왔다. 物資의 流通이 全國의 規模로 擴大되고 大量輸送이 가능해짐에 따라 運賃이 더욱 낮아졌다. 중요한 地域間에는 定期 또는 不定期的인 自動車運送事業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自動車가 鐵道에 對抗할 수 있는 程度로 普及되지는 못했으며 自動車는 鐵道の 延長으

로 운영되었다. 日帝末期에 들어 우리나라가 兵站基地化하면서 日帝는 우리 民族을 강제 동원하여 軍用道路網 擴充에 狂奔했고 一般道路는 植民地經營에 필요한 最少限度에 그쳤다. 그러다가 中日戰爭 발발후 自動車는 직접 戰爭遂行을 위하여 動員되고 남은 것이나마 輕油 대신 木炭이나 아세치렌 등을 代替 燃料로 쓰면서 겨우 延命해 나갔다. 1920~30年代의 道路網은 二等道路인 서울~江陵線(原州 經由) 金化~忠州線(春川, 原州 經由) 忠州~江陵線(堤川, 寧越, 平昌 經由) 등이다. 原州는 軍事的 요충지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道路網의 發達도 江原道로서는 가장 앞섰던 것이다.

8. 15解放후로 들어선 美軍政은 우선 1號國道인 서울~釜山間 도로보수에 전력했다. 그것은 日帝가 大戰기간 중 物資輸送을 鐵道에 거의 依存한 까닭에 道路는 荒廢 状態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美軍政은 道路事業을 戰災民 救護事業의 一環으로 추진해 一石二鳥의 效果를 건우려했다. 道路의 改補修사업은 失業者의 救護를 결들였으므로 道路도 다듬어지고 失業者도 일자리를 얻는 效果를 가져왔다. 京釜間 道路는 46년 10월 着工, 총 130,000,000원과 約 850,000名의 人員이 동원되어 다음 해인 47년 7월 12일 完工되었다. 48年 8月 政府樹立으로 道路事業은 우리 손으로 넘어 왔으나 建國初의 山積한 課題 때문에 막대한 資金과 長期間의 時日을 要하는 道路網의 擴充에는 손도 대지 못한채 6.25事變을 맞았다. 動亂기간을 통해 우리나라 道路 橋梁 등은 막심한 被害를 입었으나 反面 軍事上 目的을 위해 많은 道路가 新設되고 改補修된 것도 사실이다. 7.27休戰이 成立되자 여러 經濟復興事業의 추진과 더불어 道路 橋梁의 復舊도 급속도로 進捗되었다. 이 기간 역시 道路網의 擴張은 손도 못대고 改補修에 主眼을 두었다. 戰災 復舊事業의 하나로 既存道路의 改補修작업은 큰 進展을 보였고 軍 主要補給路는 軍裝備의 동원으로 급속도로 다듬어져 갔다. 이 기간중 道路復舊사업은 거의 全部가 동란중에 파괴된 橋梁復舊에 注力했음은 勿論이다. 우리나라의 道路事業이 發展段階에 접어든 것은 民主黨政權을 거쳐 5.16革命 이후 부터이다. 당시 軍事政府는 韓國經濟의 飛躍의인 발전을 위해 第1次 經濟開發5年計劃을 樹立 推進해 나갔고 道路事業도 社會 間接資本 충족과 國土 綜合開發이라는 側面에서 成案, 推進된 것이다. 우선 太白山 및 智異山 지구의 石炭生産을 위한 産業道路가 급선무였다. 産業鐵道 및 道路의 開設은 自由黨末期인 50年代 후반에도 다소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그 實績은 初步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1次經濟開發計劃 기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道路는 그 質이나 量的인 面에서 飛躍의인 成長을 이룩했다. 春川~原州間의 鋪裝事業도 이때에 처음으로 된 것이다. 이어 66년부터 시작된 2次經濟開發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우리나라 經濟의 飛躍의인 成長으로 韓國에도 高速時代가 到來한 시기이다. 自動車 輸送의 激增으로 道路鋪裝도 促進되어 鋪裝率은 급속히 높아졌고 輸送의 主役이 鐵道에서 自動車로 옮겨졌다. 江原道內의 道路網은 太白地區일대의 地下資源 개발을 위한 産業道路와 軍事道路網의 整備가 主軸을 이룬다. 70年代初에 들어 서울~江陵間 高速道路의 첫 區間인 서울~原州간이 開通되므로써 高速時代에 접어들었다. 이어 嶺東高速道路의 나머지 區間인 原州~江陵간과 東海高速道路(東草~三陟)가 74년에 着工, 75年 完工 계획으로 건설에 拍車를 가하고 있다. 原州 原城地區를 中心으로 道路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原州에서 西北間으로 安昌나루를 건너 楊根과 廣州를 거쳐 서울로 가는 道路
2. 原州에서 西南間으로 貴來와 木界를 거쳐 忠州로 나가는 道路
3. 原州에서 南쪽으로 丹邱를 거쳐 가루패재와 神林을 거쳐 堤川과 丹陽으로 빠지는 길
4. 神林에서 東 쪽으로 黃屯을 거쳐 酒泉으로 通하는 道路
5. 原州에서 東 쪽으로 所草를 거쳐 安興과 大和, 珍富를 거쳐서 江陵으로 가는 道路



6. 原州에서 北으로 台庄을 거쳐 橫城과 洪川을 지나 春川으로 가는 道路

7. 原州에서 西쪽으로 萬鍾을 거쳐 桐華와 文幕나루를 건너 驪州로 나가는 길과 文幕에서 富論의 興原倉까지 나가는 道路等 以上이 옛날의 通路라고 하겠는데 이 모두가 步行이나 할 수 있는 小路였다.

李朝時代의 通路網은 首都를 開城에서 漢城으로 옮김에 따라 若干의 차이가 생겨났지만 대부분 麗代의 制度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李朝에 들어와서도 漢陽遷都에 따라 交通 通信網의 중심지가 漢陽으로 옮겼을 뿐 그 기능은 經濟 社會面보다는 政治 行政 軍事의 의미가 강했다. 李朝에 들어서도 交通 通信上의 重要한 機能을 맡은 것은 驛站이다. 中央政府로부터 示達되는 모든 行政命令이나 公文書는 이 驛路를 통해 中央에서 地方으로 地方에서 中央으로 報告되었다. 驛은 國家의 中樞神經的인 機能을 담당했다. 驛馬의 使用에는 馬牌라는 證明이 있어야 하고 使用者의 身分에 따라 各驛에서 제공하고 馬匹數에 차이를 둔 것이나 各驛에 驛長 驛吏 驛卒등이 있고 兵曹에서 직접 管轄한 것 등은 麗代에 비해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驛의 分布도 高麗때에 비해 驛의 區分도 大 中 小路로 區分했는데 原州에는 大驛은 없고, 保安驛으로 丹邱驛과 由原驛 安昌驛과 神林驛 新興驛 烏原驛 등이 있었다. 그리고 李朝 後期에 이르러서는 서울에서 各地方으로 뻗은 道路를 幹線과 支線으로 區分하고 具體的으로 道路에 번호까지 붙였다. 原州는 漢城에서 砥平을 거쳐 安昌으로 해서 原州로 들어 와서 原州에서 忠州方面, 堤川方面, 江陵方面과 春川方面, 驪州方面으로 通하는 第3路에 해당된다.

交通運輸수단으로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漕運이다. 漕運이란 全國에서 걷은 稅穀이나 進上品등을 船便을 이용하여 서울로 運送하는 海運을 말한다. 江이나 河川을 이용한 運送수단은 「站運」이라고 하여 海運과 구별되나 일반적으로 漕運에는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中央政府에서는 稅穀수송을 위해 水路沿邊要地에 漕倉을 설치하고 그 隣近의 州縣으로 하여금 租稅米를 모아 陸路나 水路를 통해 서울의 京倉으로 수송케 했다. 漕運制度의 기원은 高麗初부터 制度化하여 全國에 12倉을 設置했었다. 그러나 麗末에 이르러 倭寇의 侵入이 잦아지자 漕運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다. 李朝에 들어와서 漕運制度는 다시 整備되었으나 그 역시 全國적으로 골고루 惠澤을 주지는 못했다. 原州地方의 漕運은 興原倉으로 現 原城郡 富論面 興湖里에 本倉을 두고 文幕과 安昌에 小倉이 있었다. 各 漕倉에서는 11月初부터 다음해 1月 사이에 稅穀收集을 끝내고 2月 20일부터 5月 15日 사이에 모두 京倉으로 運送케 했다. 이때 運送責任은 監官 沙工 水夫등이 共同責任으로 嚴한 軍律下에 行하여지도록 했다. 水站船에는 3名 海船에는 15名씩 乘船하되 信賞必罰을 원칙으로 했다. 漕運은 稅穀運搬이 主任務였으므로 특히 站運의 경우는 京倉과 各 地方의 漕倉을 잇는 水路를 中心으로 運營되었다. 原州에 있던 興原倉은 南漢江 上流沿邊이었으니 原州, 寧越, 平昌, 旌善, 橫城, 江陵, 三陟, 蔚珍, 平海地方에서 나오는 稅穀은 모두 陸路로 興原倉까지 와서 여기서 京倉으로 運送되었다. 이들 水路는 비단 稅穀 運搬뿐만 아니라 民需物資 운반에도 利用되었는데 물줄기를 따라 내려갈 때에는 木材나 地方特產物 등을 싣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대개 소금을 싣고 왔다. 여기까지 실려온 소금 등은 各 地方으로 分散되었다. 또 하나 近代 以前의 通信連絡 수단으로 重要한 구실을 한 것이 烽燧制度이다. 이는 순전히 軍事的인 目的만을 위해 운영되었다는 데 特色이 있다. 烽燧는 邊境의 危急한 事態를 中央이나 邊境의 基地, 地方住民들에게도 알려져 危急할 때 피난하거나 軍民協同으로 격퇴하자는 데 있다. 烽燧의 종류는 京烽燧, 沿邊烽燧, 內地烽燧의 3種인데 京烽燧는 서울의 木覓山(南山)에 자리 잡아 全國의 모든 烽燧가 집결하는 中央烽燧의 役割을 담당했다. 沿邊烽燧는 陸地나 海上邊境의 제 일선에 설치된 任務 遂行이 가장 고생스럽고 중요한 봉수이며 內地烽燧는 京烽

## 第1編 總 論

燧와 沿邊烽燧를 연결하는 中間烽燧의 역할을 맡은 絶對多數의 烽수대였다. 烽燧역시 軍事의 目的을 爲한 것이므로 中央의 경우 兵曹의 武備司가 地方의 경우는 守令의 직접 責任아래 監司, 兵使, 水使와 都節制使, 巡察使 등 모든 軍事責任者가 관장했다. 通信方法은 대략 數10里의 일정한 거리의 마주 보이는 要地의 山頂마다 烽수대를 설치하고 밤에는 蠟燭로, 낮에는 연기로 危急한 狀況을 信號로 알렸다.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 蠟燭이나 연기로 連絡이 不可能해 질 때에는 各곳에 配置된 烽燧軍이 직접 달려가 차레대로 연락하도록 되었다. 信號는 平常時에는 한 줄기로, 賊이 나타나면 두 줄기로, 賊이 가까이 오면 세 줄기로, 侵犯하면 네 줄기로, 우리 軍士와 接戰하면 다섯 줄기의 蠟燭이나 연기를 피워서 알렸다.

### (2) 舊誌의 道路(舊 原州邑誌中에서)

自官東距丹邱驛五里自丹邱隄加里波峙至神林驛四十里自神林渡中川隄扭峙松峙至神興驛四十五里自神興渡縣前津至酒泉倉十五里自酒泉隄峨嵯峙渡沙川津至平昌郡接界二十五里自新興岐路涉大川隄遠矣谷峴又涉大川隄沙乞峙至堤川寧越兩邑界六十五里自官東北隄可莫只峴涉大溪隄鶴峴涉小川隄院谷峴涉大川隄土洞峴至橫城界烏原驛五十里自官西距懸鍾峴隄鞍峙馬峴渡安昌津至北倉三十里自北倉隄大小松峙又隄西化峙至砥平界七十里自安昌津前岐路隄登岸峴涉大川隄碧巖峴至興原倉六十里自興原江南接忠州界五里西接驪州界十里自官南距鄉校前三里自鄉校前隄板梯峴又隄兩大峙涉大川隄省台陽峴至忠州五十五里自官北涉鳳川下流又涉大橋川隄漳峴涉小川隄階巖峴至曲橋川接橫城界三十里

### (3) 오늘날의 道路現況

原州市管內 道路의 總 延長은 244,188m中 鋪裝된 道路가 9.6%로 23,445m이다. 國道는 20,387m中에 鋪裝된 道路가 11,607m로서 56.9% 砂利道가 8,778m로 43.1%이다. 市道로는 延長이 223,801m中 鋪裝된 道路가 11,838m로서 5.3%인데 砂利道는 73,686m로 32.9%이다. 未改修道路의 延長이 138,277m로 61.8%이다. 原城郡 管內 道路의 總 延長은 214,570m中 鋪裝道路가 41,544m 砂利道는 173,026m이다. 細分해 본다면 高速道路가 33,144m로 完全鋪裝되었고 國道는 80,210m로 8,400만이 鋪裝되었다. 砂利道로는 71,810m이다. 地方道는 66,936m로 鋪裝이 안되었다. 郡 道도 23,180m인데 鋪裝이 안쳐있다. 市 郡 道路를 地域別로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2級國道로 路線은 남해로 부터 原州까지가 21,771m로 竣工이 1931年 6月이고 貴來面과 原州 所草面을 經由해야 된다. 또한 2級國道는 仁川으로 부터 北坪까지는 19,446m로 1931年 6月에 竣工을 보았고 原州, 文幕을 經由한다. 1級國道로 馬山 忠강진 間이 113,481m로서 原州, 神林을 經由하게 된다. 2級國道로 原州 安興間이 13,878m로 原州, 鶴谷을 經由하는 데 竣工은 1915年 6月이 된다. 地方道는 原州, 平昌間이 17,419m로 神林, 黃屯을 經由하고 1929年 6月에 竣工되었다. 文幕, 興湖間은 14,286m로 文幕, 富論을 經由하는데 竣工은 1929年 5月이며 原州 楊平間은 6,829m로서 原州 地正面을 經由 1929年 5月에 竣工하였다.

### (4) 高速 道路

國土를 東西로 가로 지르는 민족의 대동맥인 서울~江陵간 고속도로의 1次 공사 구간인 서울~原州間 104km가 71年 3月 24日 起工을 보아 245일 만인 71年 12월 1일 역사적인 개통을 보게 되었다. 경기도 용인군 신갈 인터체인지에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새말까지 104km에 총 공사비 42억 8천 6백 만원을 투입 9개 소의 長大橋 54개 소의 일반교에 7개 소의 인터체인지를 갖춘 路幅 13.2m의 2차선으로 완공됐다. 사업내역은 총 동원인원 2,12만 5,000명으로 기술공 69만 2,000명, 하루평균 8,100명이 동원됐다. 주요 자재로는 시멘트 96만 2,386부대 강제 540t 철근 8,266t 아스팔트 13만 2천 5백 배럴이 소요됐고 총 투입장비는 28만 3,900대로서 불도저 1만 5,830대 스캐퍼 1,600대 그레이더 1만 500대, 페이로더 8,600대, 덤프트럭 8만 1,000대, 로더 3만 4,500대, 그렛샤 2,750대 프렌트 950대, 피니셔 770대 기타 9,700대가 동원됐다. 우리교장의 인터체인지

는 문막과 원주, 새말 3개소가 있는데 이 도로의 특징은 다른 고속도로와는 달리 산악지대 인 테도 터널이 전혀 없으며 경사 7도 이상 지역에는 등반차선을 따로 두어 화물차등 완속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原州간 택시로 4시간 20분 걸리던 것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1시간 50분으로 단축됐고 75년 江陵까지 완공되면 9시간 30분이 3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앞으로 完工되면 풍부한 자원을 지니고 있는 太白圈域과 首都圈域을 연결시켜 지하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며 도시집중 인구의 分散과 위성 도시발전에 기여 할 뿐아니라 江原道の 경제 및 生活 構造를 변혁시키게 된다. 우선 원주까지의 완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면 총 공사비 1억6,321만 원을 투입 원주진입로가 고속도로 완공이전에 완성되어 原州는 新興都市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4개 高速버스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2개 회사 (동부와 중앙)에서 독주하게 되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자동차 주행비 절감을 제외하고라도 철, 무연탄, 석회등 京仁공업지대와 강원도의 미개발자원을 링크시킬 뿐 아니라 직접적인 所得이 증대되는 농가는 서울~原州간에 6만2,600세대에 달하며 耕作面積이 7만3,000 ha, 농산물 수확량은 18만9,400T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原州~江陵間이 개통되면 연변의 경우 농가가 2만4,765세대, 경지면적 2만7,770ha, 농산물 수확량 20만3,900T을 잡고 있다. 이 밖에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유명한 관광지인 雉岳山을 찾는 관광객이 격증, 원성군은 71년도부터 치악산 관광개발 5개년 계획으로 5억원을 투자 개발에 나서고 있다.

#### (5) 橋 梁(다리)

橋梁은 세멘트콘크리트로된 10m 以上の 것 만을 記錄에 남기기로 한다. 그 以下는 部落 入口나 農路 및 部落과 部落間의 작은 橋梁도 1975年度까지 새마을事業으로 完全 架設되었음을 兼해서 記錄에 남긴다.

##### (1) 原州市 管內의 橋梁(9m以上)

台庄洞에는 9.9m의 加峴橋와 65m의 下台橋, 120m의 台庄橋, 9m의 加馬橋, 32m의 首岩橋, 9.5m의 一夜味橋가 있고 牛山洞에는 72m의 加賢橋, 24m의 牛山橋, 40m의 牛山第1橋, 32m의 牛山第2橋가 架設되어 있고 丹溪洞에는 29m의 丹溪橋가 있고, 明倫洞에는 9m의 校下橋가 있고 觀雪洞에는 20m의 觀雪橋가 있고 丹邱洞에는 11m의 丹邱橋와 73m의 兵營橋가 있다. 盤谷洞에는 37m의 盤谷橋가 있고 開雲洞에는 165m의 開雲橋가 있으며 仁洞에는 111m의 原州 第1橋와 原州 第2橋 등 두 개의 다리가 있어 쌍다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平原洞에는 111m의 鳳平橋가 있고 鶴城洞에는 122m의 鳳鶴橋가 있으며 杏邱洞에는 20m의 杏邱 第1橋와 13.5m의 杏邱 第2橋가 있어 原州市 管內를 連結하는 橋梁數는 23個橋에 總 延長 1,237m에 達하고 있다.

##### (2) 原城郡 管內의 橋梁(10m以上)

興業面에 30m의 미촌교, 20m의 금산교, 60m의 사제교, 50m의 자감교, 30m의 무수막교, 70m의 광터교가 있고 貴來面에는 12m의 法洞橋, 10m의 雲南橋, 22m의 水有橋, 30m의 雲南橋가 있고 神林面에는 25m의 神林橋, 10m의 神仙橋, 10m의 城南橋, 12m의 九鶴橋, 15m의 갈곡교, 10m의 黃屯橋가 있고, 所草面에는 10m의 屯屯橋, 10m의 衣冠橋, 10m의 下帳幕橋, 10m의 平庄橋 15m의 首岩橋, 10m의 上帳幕橋가 있으며 好楮面에는 124m의 玉山橋, 18m의 萬鍾橋가 있다. 板富面에는 10m의 南松橋, 10m의 端谷橋, 10m의 金垜橋, 10m의 雉岳橋가 있고 文幕面에는 555m의 文幕橋 59m의 宮川橋, 60m의 桐華橋, 20m의 飛頭橋, 30m의 盤溪橋가 있으며 富論面에는 10m의 法泉橋, 10m의 蓀谷橋 24m의 鼎山橋가 있고, 地正面에 12m의 慶山橋, 18m의 桐華橋, 10m의 加谷橋, 10m의 구재교, 10m의 中華橋, 10m의 하구현교, 10m의 북금교, 25m의 普通橋 등 原城 郡內의 45個橋에 總 延長 1,554m에 達한다.

## 第5節 山勢와 城池(옛 原州郡誌에서)

### (1) 山 城

#### (가) 鵠原山城

在雉岳山南麓石築周三千七百四十九尺內有一井五泉今廢◇三國史弓裔投北原賊梁吉吉委之以事使東略酒泉奈城鬱高御珍等四縣皆降之後元冲甲據此城破丹兵有功宜廟壬辰原州牧使金梯甲與驪州牧使元豪爲倭奴所敗歟

#### (나) 金臺山城

在州東三十里雉岳山腰石築周六千六百尺內有三井今廢州人松弼據此城叛降州爲一新縣

### (2) 城 址

#### (가) 영원산성(鵠原山城)

영원산성은 原城郡 板富面 金垆里 雉岳山 남쪽 영원골 영원사 뒤 절벽으로 500m地點에 있다. 石築으로 된 石城인데 周圍가 3,749尺인데 四方에 깎아진 벼랑으로 北쪽에 北門과 南쪽에 南門 西쪽으로 西門等 出入門이 있다. 石城이라고 하나 큰 돌을 깎아서 쌓은 것은 아니고 큼직 큼직한 막돌로 높이 1m 內至 2m로 넓이(幅) 1m꼴로 周圍를 完全 石築으로 했는데 位置에 따라 높고 낮게 하고 出入門에는 다듬은 石柱를 세웠다. 그러나 只今은 石築이 무너진 곳이 많고 出入門도 모두 破壞되어 있다. 城內에 井戶가(우물) 1개와 샘이 5군데 있었다고 하나 우물은 北쪽 門 附近에 있었던 흔적은 있으나 매몰되었고 샘은 只今도 있다. 東쪽의 높은 峰에서부터 양쪽으로 築城되어 내려왔는데 城內는 넓적하며 약간 西南方向으로 경사가 져고 오목하게 되어 있어 은신하기에 적합하다. 이 城은 北原賊 梁吉이가 이 곳에 있으며 本據地로 하였다 하니 그 때에 築城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後 契丹 遺族이 南侵할 때 元冲甲이 이 城에서 방어를 했고 그 때 큰 功을 세운 것도 天然의 요새인 이 城에서였다고 한다. 그 다음 壬辰倭亂 時에도 原州 牧使 金梯甲과 驪州 牧使 元豪가 이 城에서 倭兵과 마주 싸우다가 여기서 戰死하였다. 只今은 周圍에 싸리나무 등 雜木이 우거지고 城內는 새 밭이 되어있으며 한 가운데에 고리쇠나 무라는 古木이 서 있을 뿐이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이 城안에서 火田民 3家戶가 살고 있었으나 火田整理事業으로 소개되었다. 只今도 間或 땅속에서 세발 무쇠솥이 나온다.

#### (나) 海尾城(해미성 一名 金臺山城)

금대산성은 原城郡 板富面 金垆里 一輪谷에 있으며 일륜동에서 西쪽 좁은 溪谷으로 300m 올라간다. 이 城은 周圍가 원체 깎아진 벼랑이어서 군데군데 사람이 오를수 있는 溪谷에만 石築을 하였고 東쪽과 南쪽에만 出入口를 만들어 놓았다. 周圍가 6,600尺이나 되는 넓은 城이다. 城內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나 只今은 없고 샘물이 하나 있다. 石築도 모두 무너지고 몇군데 흔적만이 남아 있다. 이 城은 鵠原山城과 不過 3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이 城上에서는 原州市內가 잘 내려다보이며 神林 쪽 加里波제도 들여다 보인다. 또 이 성에서 영원산성까지는 직경거리로 不可 얼마 안되어서 영원산성과 자매성으로 같은 時代에 築城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영원성의 전초기지로서 연락이 되었을것이다. 이 城을 지키던 城將이 松弼이가 이 城에서 叛亂을 일으킨 일로 해서 原州골이 一新縣으로 降等된 일이 있었다. 一名 海尾城이라고도 한다.

#### (다) 금두산성(金頭山城)

이성은 原城郡 板富面 金垆里 一輪谷막바지 金頭高原에 있다. 土城으로서 周圍가 4km나 되고 城內는 오목한 便이어서 敵이 알아볼 수도 없고 또한 溪谷이 급하여 쉽게 功擊하기 어려운

地形인데 西쪽으로 좁은 溪谷에 물이 흐르고 있어 여기서는 이 물을 막았다가 敵이 功擊해 오면 물을 더 놓아서 물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하게 하는 水功戰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城도 영원산성의 北쪽 뒤에 있고 거리 또한 不過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 鰲原山城을 옹호하는 前哨기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水功戰을 하기 위하여 물을 막았다는 곳에 독을 싸놓은 것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라) 鰲萱山城

이 성은 原城郡 文幕面 浦津里에 있다. 옛날 전 원이 왕 건과 마주 싸우던 때 築城하였다는 이 城은 文幕平野를 向하여 前面에만 막돌로 石築을 했는데 臨時로 화살과 창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될 뿐 城內도 過히 크지 못하다. 只今은 石築도 많이 무너지고 또한 最近에 그 아래 堤防을 쌓을 때 그 돌을 굴러 내려다 쌓았기 때문에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마) 왕건성지(王建城址)

原城郡 文幕面 建登里 建登山에 있다. 王建이 전 원을 치기위하여 이 곳 建登山上에 陣을 치고 있었는데 山上에 우물이 있어 長期戰에도 견디었고 勝利를 했다고 하는데 只今도 우물에 물이 있고 山名과 이 곳 地名도 王建이 오른산이라고 해서 建登山이라고 부르고 있다.

(바) 민방터(民坊터)

原城郡 所草面 橋項里 公山部落 뒤 德高山에 城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의 城址가 아니고 李朝 末葉에 漢陽에 있던 어떤 富豪가 亂의 避難處로 만들어 놓았다는 民坊터라고 한다. 또한 이곳은 壬辰倭亂 때 격전지였기도 하다.

## 第5章 風俗과 慣習

### 第1節 風 俗

「尙蓄積」이라고 했다..

原州사람들은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을 風俗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形態의 生活이든 間에 사람의 生活이 있는 곳에 風俗과 習慣은 이룩되게 마련이다. 그 風俗은 地理 風土의 外的條件과 內面的 生活條件과 時代性 歷史性을 背景으로 造成되어 진다. 原州는 原城郡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江原道の 最南端이며 京畿道와 忠淸北道를 隣接한 우리 韓半島의 中央部에 자리잡고 있어 民俗의 一般的 傾向은 中部的 特色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다시 細論하면 原州 原城은 雉岳山과 白雲山이란 兩大山을 東南으로 그 支脈이 흘러내려 된 곳 이어서 大部分이 山間地帶이므로 農耕地가 많아 農業이 主生業이었고 따라서 모든 생활풍습이 山間農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農耕에만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必然的으로 농경생활에 적합한 生活을 營爲하게 되었으니 그들 나름대로의 民俗을 이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農村에 城隍堂에서 豐年을 祈求하는 行事는 農作物의 凶豐이 生活과 直結되어 있었던 탓이다. 이렇게 生活터전이 民俗의 性質을 決定짓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重要的 構成要素의 하나는 時代相과 社會相이다. 地理 風土의 특수성이 외면적 생활면에 具象化 되어 진다면 시대상이나 사회상은 내면적 정신생활의 領域에 作用하여 민족의 方向결정에 큰 役割을 하고 있다. 즉 高麗一代의 崇佛의 時代相 乃至 社會相은 當時 사람들의 內面的 精神生活의 지표가 되어 그 方向의 民俗을 낳았고 李朝時代의 崇儒의 政策은 李朝文化를 儒敎의 으로 만들어 놓았다. 儒敎와 佛敎는 勿論 原始信仰의 影響까지 받고 있어 그 영향이 생활면에 파고 들어가 그 方面의 風俗도 많이 이룩되어 있다.

### 第2節 冠 婚 喪 祭

#### (1) 四 禮

冠, 婚, 喪, 祭를 흔히 4禮라 일러오고 있다. 開化 以前의 在來式 4禮는 儒敎社會인 李朝時代에 있어서는 儒敎儀式으로 行하여졌고 民俗이나 儀式中에서는 가장 重要的 것이었다. 冠婚喪祭의 4禮外에도 또 出產儀禮, 回甲禮, 回婚禮 등이 사람의 一生에 있고 이들을 다 합하여 通常儀禮라고 이른다.

#### (2) 成年式의 由來

언제부터였는지 明白하지는 아니하나 古來부터 成人이 됨에는 男子는 冠禮를 行하고 女子는 笄禮를 行하여 아이와 어른을 區別하는 慣習이 있었으니 이는 最近 30餘年前까지도 行하여졌었다. 이것은 諸民族 原始 社會에 널리 行하는 Initiation(成人式成年式)의 하나로서 여기에는 民族과 時代가 달라서 儀禮의 形態와 社會의 關係 그리고 그 意義가 다르고 또 여러 學者들의 見解도 一定하지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이 글의 性質上 그것을 論議하지 않기로 한다. 冠禮와 笄禮는 婚約이 成立한 뒤에 비로서 行하는 것으로서 대개 婚禮를 行할 數日 前에 卜日을 擇하여 行하여지는 것이 通例로 되었었다. 百年前까지만 해도 婚約은 男女가 다 15歲 以上에 이르지

않으면 行하지 않으므로 해서 冠禮 笄禮는 15歲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行하여지던 것이 李朝 最近世에 이르러서는 速成을 생각하고 一般으로 早婚을 다루어 심지어 男子 11~12歲에 이르면 婚約을 하고 冠禮를 行하기도 하는 狀態였었다. 冠禮란 未婚 총각의 머리털(옛날에는 사내아이도 계집아이고 같이 머리를 뒤로 따아 느리었다)을 끌어 올리어 꼭뒤에 상투를 틀어 짜엿고 또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마 위에 망건을 둘러 쓰고 그 위에 갓을 써우는 것이고 笄禮란 未婚 童女의 머리 털을 後頭部에 쪽을 찌고 머리털이 풀어지지 않게 하기 爲하여 비녀를 꽂는 것인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成人의 標徵이 되어 成年者(어른)로서 原則적으로 社會의 地位가 保障이 되었으니 未婚한 者에 對하여서는 아무리 自己보다 나이가 많드라도 言辭를 下待하였으며 그 反面에 成冠한 者는 自己보다 나이가 年少者라도 優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最近世에 와서 斷髮이 行하여지고 갓 대신 帽子를 쓰고 戶籍法이 制定된 以後로는 男子는 17歲 女子는 15歲 以下の 婚姻은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教育이 普及되고 外來 思潮의 影響을 받아 漸次 早婚의 弊는 改廢되어 오늘날에는 전혀 볼 수 없게 되었고 이 冠禮와 笄禮는 近來에 와서 婚禮에 包含되고 말았다.

### (3) 婚 禮

婚姻을 함에는 最近世까지 男家 및 女家에서 兩便의 兩親 또는 祖父母들의 合意에 依하여 決定하여 왔었고 同時に 本人들 서로가 何等의 意思 表示도 없을 뿐만 아니라 當婚者의 諒解下에 結婚이란 또한 적었던 것이다. 이것은 12~13歲 前後에 結婚을 한 早婚의 關係도 있겠지마는 그 보다는 韓國의 大家族制度에서 基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近代 以來로는 教育의 普及과 外來思潮 其他의 影響으로 오늘날에는 當婚者의 合意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음은 勿論 仲媒結婚에서 漸次 自由 戀愛結婚의 傾向이 많아지고 있는 現狀이다. 婚姻의 儀式은 옛날은 社會階級(兩班, 中人, 常人, 賤民)이나 貧富의 事想에 依하여 差異가 있었으나 合窺하고 合禮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 (4) 在 來 儀 式

이제 여기에 시골 中流 以上の 家庭에서 옛 法에 依한 在來式 婚姻하는 順序를 叙述하기로 한다. 먼저 仲媒人에 依하여 男家에서 女家 또는 女家에서 男家에 그 뜻을 通言하고 交渉을 進行한다. 그러면 男女 兩家에서 좋은 婚處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자 門閥, 家系, 財産, 其他 등을 調査하고 또 看選이라고 하여 男女 性行 容貌를 보고 나서 별로 큰 缺陷이 없음을 보아 定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兩便에 內諾을 얻으면 男家에서 請婚의 뜻으로 男子의 四柱(生年月日時)를 女家에 보내고(女家에서 許婚의 뜻으로 이것을 받음으로서 約婚이 成立되는 것임) 女家에서 擇日 單子(이것을 「納吉」이라고 함)을 男家에 보내면 男家에서는 그에 대한 可否를 納吉 復書로 回答을 한다. 그리고 男家에서는 女家에 對하여 許婚의 好意를 感謝하는 뜻과 아울러 婚約成立의 物證으로 男家에서 幣物을 보내니 이것을 「納幣」라고 한다. 幣物의 內容은 幣帛과 婚書이다. 이 幣帛은 貧富에 따라서 內容의 差異는 있지만 世俗으로 靑紅綵緞 14석(靑紅綵緞 두 끝을 靑紅의 色 실로 묶는다)을 使用하고 또는 綢緞 布木 및 비녀, 가락지, 반지 等屬의 佩物을 보낸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女家에 가는 이는 되도록은 夫婦間에 想誼가 좋고 再婚者가 아닌 有子 多福한 이를 擇하는 것이다.

### (5) 結 婚

婚禮式날 成禮하기 爲하여 新郎을 紗帽冠帶 官服 黑靴 등으로 禮裝을 갖추어 盛服을 하고 말 또는 가마에 타고서 초롱(紗燈籠)을 든 이를 先頭로 하고 紅襟에 기러기(生雁 또는 木雁)를 안은 雁夫장이 밧 幣物이 든 函을 진 이가 뒤따르고 後行(近親者) 1인이 婚行을 거느리고 간다. 女家

# 第1編 總 論

에서는 大禮前의 待期處로서 大門밖 西便에 新郎이 馬轎에서 내려서 잠시 쉴 곳을 帳幕으로서 設置하고 中庭에 天幣와 床을 設置하고 新郎 오기를 기다린다. (또 女家에서는 迎接使가 초롱을 들고 數十里 밖까지 나가서 迎接하는 예도 많으나 대개는 洞口밖까지 나가서 맞이 해 온다) 新郎이 到着하면 女家에서는 接待者가 이를 맞이하여 待期處(舍處)에 案内하고 舉式할 때까지 잠시 쉬는 동안 茶果等을 내어 待接한다. 新婦는 이날 活衣 元衫 簇頭里(죽두리)를 쓰고 연지 끈지를 적어 化粧을 한다. 接待者가 新郎을 式場으로 引導하면 이때 笏을 부르는 이가 式場에 서서 結婚 式順을 口號로 부르니 新郎이 式場入口에 이르는에 부이 이 笏으로써 式이 舉行된다. 이제 婚笏記를 여기에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新郎下馬扶立(新郎이 말에서 내려서는 것)
2. 贊引揖(贊引은 接待人 即 接待人이 新郎에게 禮를 하는 것)
3. 新郎答揖
4. 新郎就醴觀所(奠雁床 앞으로 가라는 것)
5. 新郎跪(拜席 위에 꿇어 앉는다)
6. 拘雁(기러기를 받아 안는다)
7. 置雁於地(기러기를 奠雁床 위에 놓는다)
8. 新郎興(新郎이 일어선다)
9. 新郎再拜
10. 新郎興
11. 新郎小退(조금뒤로 물러 난다)
12. 新郎就郎禮廳(醴禮廳 拜席 위로 올라 간다)
13. 新婦出
14. 新郎正面(西向하고 돌아선다)
15. 新郎新婦跪(꿇어 앉는다)
16. 盥洗執巾(손을 씻고 手巾으로 닦는다)
17. 新郎 新婦興
18. 揖婦就席塲郎이 新婦에게揖하고 拜席위에 올라 간다)
19. 新婦再拜(新郎再拜 新婦四拜의 境遇)
20. 新婦跪
21. 新郎答一拜
22. 新婦興
23. 新婦再拜
24. 新婦跪
25. 新郎答一拜
26. 新郎新婦跪
27. 行砂盃禮(盃杯交換)
28. 行瓢盃禮의 禮와 같은것
29. 禮畢
30. 新郎 新婦 各歸 處所

以上

新郎은 捧雁者가 기러기를 주면 기러기목을 왼쪽으로 해서 안고 式場(中庭또는 大廳 마루)에 이르러 醴禮床(大禮床) 앞에 北向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차려 놓은 奠雁床 위에 기러기를 놓고 再拜하니 이것을 奠雁이라고 한다. 이때 女家에서는 侍女가 이 기러기를 치마로써 받아 房



으로 들어간다. 이때에 新婦는 부채로써 얼굴을 가리고 手母에게 부축하여 內房에서 나와서 그 뒤 交拜席으로 가서 新郎과 對하니 新郎은 西向하여 서고 新婦는 東向하여 마주선다. 먼저 新婦가(手母가 新婦를 부축하고 가리킨다) 新郎에게 再拜하고 나면 新郎이(侍伴이 新郎을 指導한) 答一拜하고 다음에 新婦가 또 다시 再拜하면 新郎이 또 答一拜한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는 新婦가 新郎에게 一拜하면 新郎이 新婦에 答拜 이렇게 두번 거듭하기도 한다. 이 交拜禮가 끝나면 手母가 술瓶에서 술을 盃(交拜盞)에 따라 가지고 新郎 新婦 사이에 세번을 交換하는데 첫번 新郎 新婦가 交拜한 뒤에 手母가 靑실 紅실을 손등에 드리우고 술을 두 盞에다 부어 하나는 新郎의 입에 대인 뒤에 그것을 新婦의 입에다 갖다 대이고 또 하나는 新婦의 입에 대인 後 그것을 新郎의 입에 갖다 대이고 이렇게 세번씩하고 나서 다시 交拜를 하여 盃禮를 마치니 이것으로서 儀式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中流以下 下流의 婚儀는 略式으로 簡略하게 行하는 것이 普通으로서 新郎은 步行으로 女家에 가고 또 男家에서 衣裳을 지어 新婦에게 입히고서 그 新婦를 新郎집에 데리고 와서 即時禮를 行하고 또 特別히 粗略한 儀式에는 술대신에 冷水를 使用하는 이도 있다. 新郎은 華燭의 밤을 지내지 않으면 新婦의 父母 및 妻家 親族과 正式으로는 相面하지 않는 것이 通禮이고 또 新婦도 初夜를 지낸 뒤에야 父母에게 拜禮를 하였는데 近來에 와서는 大禮後에 近親들과 바로 相面들을 한다.

그리고 大禮後에는 普通 2~3日間은 新婦집에서 지내는 것이 從來의 慣習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개 3일을 新婦집에서 머물고는 新郎집으로 가는 것인데 이때 新婦의 隨行으로는 手母 또는 新婦의 舅屬親中에서 男子 한 사람이 가고 新婦家の 兩親과 新屬들은 大門밖에서 餞送을 한다. 新婦가 新郎집에 到着하면 接待者가 舍處에서 引導하여 잠시 쉬게 하는데 이 때 新婦는 化粧 또는 옷매를 고친다. 이리하여 新婦의 見舅姑禮(舅父母에게 보이는 禮)를 하니 大廳마루 또는 房안에 舅姑가 나란히 座定해 앉고 舅姑의 뒤에는 親族들이 序列하고 舅姑의 앞에는 卓床을 놓고 그 위에 花盆 같은 것을 놓아 裝飾하여 禮席을 꾸민 뒤에 新婦가 接待者의 引導로 舅姑앞에 나와 먼저 舅(舅父)에게 拜禮한 뒤에 幣帛(舅에게는 대추 姑에게는 肉脯를 쓴다)을 드리고 다음에 姑(舅母)에게 拜禮한 뒤에 幘帛을 드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古禮式으로는 舅姑가 堂上에 座定하여 舅은 東에 姑는 西에 앉고 그 앞에 卓子를 놓고 家人과 親族男子로서 行列이 낮은 姑의 後列에 序立한다. 이렇게 座定한 뒤에 新婦가 手母의 引導를 받으며 東便 階下에 이르러 舅姑를 向하여 北쪽으로 向해 서고 侍女가 幣帛을 소반에 담아들고 新婦를 따른다. 그리하여 新婦가 階下에서 北쪽으로 向하여 舅에게 拜禮하고 西階로 升堂하여 舅 앞의 卓上에 幣帛을 올리면 帛은 손으로 이것을 어루만져서 嘉納의 뜻을 表하고 新婦는 다시 階下에 내려가서 다시 拜禮를 한다. 다음에 新婦는 西階앞으로 올라가서 姑에게 北쪽으로 向하여 拜禮한 뒤에 西階로 쫓아 升堂해서 姑 앞의 卓上에 幣帛을 올리면 姑가 이를 어루만지면서 嘉納하고 新婦는 階下로 내려가서 拜禮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舅姑禮를 마친 뒤에는 同居하는 尊長(舅祖父母)이 계시면 그 居處로 가서 舅姑禮와 같은 節次로 拜禮를 하나 幣帛을 使用하지 않는다. 또 新婦는 祠堂 參禮라 하여 舅父母가 이미 別世한 때에는 祠堂 位牌 앞에서 舅姑禮를 行하는 것이다. 옛 法에는 3個月만에 行하는 것이었으나 옛 法의 3個月은 너무 遲緩하다고 해서 近來에 와서는 3日만에 行하고 있다. 古禮에 依하면 아침 일찍이 新婦가 盛服하고 筭菜를 들고 祠堂門 밖에 이르러 祝官과 같이 洗手한 뒤 祝官의 引導로 祠堂에 들어 간다. 祝官이 告祝한 다음 新婦는 筭菜를 執事에게 주어 들고 있게 하였다가 拜禮한 後에 執事에게서 筭菜를 받아 考位(亡父의 位) 앞에 尊菜하고 다시 拜禮한 後에 堂을 내려와서 妣位(亡母의 位) 앞에 올릴 筭菜를 들

고 들어 간다. 妣位에도 考位에 한 것과 같은 拜禮 節次를 行한 後에 물러 나오면 祝이 徹菜闔門하여 儀式을 마친다.

그리고 東廂禮라고 하여 新郎의 親友 또는 新婦家の 이웃 靑年들이 新郎을 사로잡아 酒食을 내게 하고 或은 初夜의 經過를 問招하여 座輿을 돌우기도 하는데 甚한 例로는 新郎의 발바닥을 너무 때려서 傷處까지 나는 수가 있다. 于歸後 數日이 지나면 初覲親이라 하여 新郎 新婦가 同伴해서 婦家에 가니 이 目的은 成婚後에 新郎 新婦가 兩家の 父母에 對한 問安 兼 그 間의 經過를 報告해서 兩家の 父母로 하여금 安心시키는데 있으며 이 때에 많은 飲食을 해가지고 가서 親知들을 招待한다. 그리고 于歸한 이튿날부터 新婦의 옷을 求景하기 爲하여 村中 婦女들이 모여들고 婚家에서도 衣服을 보여 주는 風習이 있다. 이 婚儀도 近來에 와서는 教育의 普及과 外來 思潮에 影響을 받아서 兩家가 따로 따로 잔치를 차리고 또 親迎의 禮를 行하는 等의 繁弊를 없애고 많이 改善을 하여 行하는데 大體로 都市에서는 新式 곧 一般 社會式 敎會式(基督敎式, 佛敎式, 天道敎式等)과 같이 簡略한 儀式으로써 婚禮를 끝마치고 또 披露宴 兼 祝宴을 대개는 兩家 合同으로 베푼다.

## (6) 現代 儀式

所謂 新式 結婚式이라는 것은 저 西洋式 特히 敎會式의 儀式과 비슷한 것으로 現在 相當히 널리 行하여지고 있는 現狀이나 現代人이 이 新式 儀式을 좋아하는 理由는 簡單하면서도 嚴肅하고 또 모든 節次가 現代의인 맛이 있어서 現代人의 比위에 맞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都市에서는 禮式場의 設備가 되어 있으므로 利用하기가 便利하다. 特히 地方에서는 公會堂 또는 學校 講堂 같은 데를 利用하기도 한다.

### (가) 一般 社會式

이제 여기에 現代式 結婚式의 順序를 簡略히 敘述하기로 하는데 式順은 다음과 같다.

- |                    |                  |
|--------------------|------------------|
| 1. 一同着席            | 2. 開式宣言          |
| 3. 新郎新婦入場(奏樂)      | 4. 國民儀禮(보통 略한다)  |
| 5. 開式辭             | 6. 新郎新婦略歷紹介      |
| 7. 相見禮             | 8. 禮物交換          |
| 9. 誓約(또는 告天文)      | 10. 主禮辭          |
| 11. 婚姻申告提出(보통 略한다) | 12. 祝辭 祝文朗讀 及 祝歌 |
| 13. 花環贈呈           | 14. 親戚代表人事及 廣告   |
| 15. 新郎 新婦 人事       | 16. 新郎 新婦 退場(奏樂) |
| 17. 閉式宣言           | 以上               |

司式은 司式者가 따로 있어서 하는 수도 있고 主禮가 兼해서 하는 수도 있는데 主禮 또는 司式者가 지금 곧 式을 舉行하겠다는 人事를 하여 一同을 着席케 하고 나서 지금부터 아무개와 아

무개의 結婚式을 始作한다는 開式 宣言을 한다. 이때 主禮는 主禮席 正面에 서서 다음 順序인 新郎 新婦 入場을 맞이하는 姿勢를 取한다. 開式 宣言이 끝나면 奏樂(보통은 피아노 울건)이 시작되고 新郎 新婦가 나란히 서서 結婚 行進曲(Wedding March)에 발을 맞추어 걸어 들어 오는데 이 때에 新郎 新婦 앞에는 꽃바구니를 든 8~9歲된 어린 제집아가 꽃을 뿌리며 앞길을 引導하고 뒤에는 新郎 둘러리로 男子 두 사람(或은 한 사람) 新婦 둘러리로 女子 두 사람(或은 한 사람)이 각각 뒤를 따른다. 그리고 이 方式 外에 新郎은 둘러리와 함께 먼저 들어오고 新婦의 앞에는 꽃바구니를 든 어린 제집아가 꽃을 뿌리며 길을 引導하고 뒤에는 둘러리가 따르며 들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主禮를 向하고 新郎은 左便 新婦는 右便으로 나란히 선다. 新郎의 둘러리는 新郎의 左便으로 新婦의 둘러리는 右便으로 나란히 늘어서는 꽃바구니를 든 두 제집아이는 新郎 新婦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면 主禮는 開式辭를 하는데 그 內容은 來賓에게 對한 敬意 表示 新郎 新婦에 對한 祝賀 祝福 新郎 新婦의 結婚式에 臨하는 마음의 準備와 覺悟같은 것에 對하여 言及하고 다음 新郎 新婦의 略歷을 紹介하고 나서 主禮는 新郎은 右便을 向하고 新婦는 左便을 向하여 돌아서게 한 뒤 相見禮를 시킨다. 그리고 이 禮가 끝나면 그대로 新郎 新婦 各者가 서로 주는 禮物交換이 있다. 이때 新郎은 準備하였던 반지(대개는 금반지)를 新婦의 왼손을 잡고 왼손 넷째 손가락에 바로 끼워주고 新婦는 가령 時計같은 손수 新郎의 손목에 매어준다. 이 禮物交換이 끝나면 元姿勢로 돌아가서 主禮의 물음에 新郎 新婦의 誓約이 있는데 誓約을 略하고 告天文단을 읽는 例도 있다. 다음은 主禮가 主禮辭를 하는데 그 內容은 먼저 來賓 一同에게 敬意 또는 謝意를 表하고 夫婦의 誓約으로써 主禮의 重任을 無事히 치를 것을 말하고 新婚夫婦의 前途를 祝福하고 夫婦는 生民의 첫 걸음이야 萬福의 根源이 된다고 夫婦, 家庭, 社會, 國家, 人類 等の 關聯을 말하고 人生 行路는 苦樂이 相伴한다는 것을 말하고 夫婦 一體가 되고 一心協力해서 어떠한 難關과 隘路라도 이것을 突破 克服하여 永遠한 幸福을 얻으리라 하고 또 苦樂의 環境에서도 늘 오늘의 이 感激과 盟誓을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한다. 이 主禮辭가 끝나면 祝歌(獨唱 또는 合唱)를 부르기도 하고 祝辭(대개는 新郎 新婦 兩家側에서 한 두 명 나와서 한다)가 끝나면 祝電 같은 것을 朗讀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서 新郎 新婦에게 주는 花環贈呈같은 것이 있는데 이 花環은 一但 받았다가 둘러리에게 주면 둘러리는 이것을 받아서 卓子위에 놓는 것이다. 그 다음에 親戚代表 人事와 廣告가 있으니 新郎의 父親이나 新婦의 父親等이 兩家를 代表해서 主禮와 來賓들에게 致謝의 人事를 하고 萬若 이어서 披露宴이 있는 때에는 그것을 人事말 끝에 廣告한다. 이 親戚代表 人事가 끝나면 主禮는 新郎 新婦를 來賓席을 向해서 돌아서게 하고 禮를 하게 하는데 이 때에 둘러리도 돌아서고 꽃바구니를 든 少女는 新郎 新婦의 앞으로 나가서 서고 來賓은 모두 起立하는데 이때는 新郎 新婦와 같이 둘러리도 함께 禮를 한다. 그리고 이 禮가 끝나면 新郎 新婦 退場을 宣言하고 이때 奏樂이 시작되며 新婦가 오른便 팔을 新郎의 왼팔에 끼고 조용히 걸어 나간다. 이때 來賓은 起立해서 退場을 目送하는 데 新郎 新婦가 室外로 나가면 이것으로 式을 마친다.

#### (나) 基督教會式

다음 基督教會에서 行하는 基督教式 婚禮는 時間的으로는 30分 乃至 한時間 程度면 足하나 經費는 貧富의 形便에 따라서 適應하게 할수 있어서 매우 簡便하다. 한편 兩家의 親戚과 知人과 信友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和氣靄靄한 가운데 聖職을 맡은 牧師의 主禮로 하나님 앞에 夫婦 되기를 盟誓하고 모든 參禮者가 證人이 되어 祝福하며 儀式節次는 嚴肅하고도 莊重하여 보기에 아름답다. 儀式節次는 新教와 舊教 即 長老教 監理教 天主教等 各教派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點은 있으나 大體로는 大同小異하다. 또 天主教 長老教에서는 信者아닌 사람에게 對해서는 牧

# 第1編 總 論

師의 主禮를 許容하지 않으나 監理敎에서는 信者가 아니라도 要講이 있으면 應한다. 이제 여기에 監理敎會式 儀式 進行의 節次를 概略 說明하기로 하는데 式順은 다음과 같다.

- |                     |                |
|---------------------|----------------|
| 1. 一同着席             | 2. 開會          |
| 3. 新郎新婦入場(奏樂)       | 4. 式辭          |
| 5. 祈禱               | 6. 聖經 朗讀       |
| 7. 誓約               | 8. 信物交換        |
| 9. 祈禱               | 10. 公佈         |
| 11. 婚誓證授與           | 12. 祈禱         |
| 13. 祝電, 祝辭, 祝歌,     | 14. 主婚者側禮辭及 廣告 |
| 15. 新郎新婦告禮          | 16. 祝禱         |
| 17. 閉式(新郎新婦退場 一同退場) | 以上             |

儀式이 시작되기 前에 式場에는 新郎新婦의 兩親 親族知人等이 모두 着席해서 開式을 기다리고 新郎 新婦는 各其 準備室(待合室)에서 기다리고 있다. 主禮는 主禮席에 正面으로 서서 新郎 新婦의 入場을 맞이할 姿勢를 取하고 司式者(司式者가 따로 없으면 主禮牧師가 한다)가 開式 宣言을 하고 會衆一同은 牧師의 指示에 따라 讚頌歌를 부른뒤에 會衆一同이 起立하고 奏樂하는 가운데 新郎新婦가 入場하는데 여기에 몇가지 式이 있으니 新郎이 들어오는 길과 新婦가 들어오는 길이 式場 한 가운데로 나란히 마련되기도 하고 或은 新郎 新婦가 各各 兩 方向에서 다른 길로 들어와서 退場할 때만 한길로 나가게 하는 수도 있다. 또 新郎 新婦가 나란히 서서 함께 入場을 하는 수도 있고 或은 新郎의 둘러리 한 사람과 新婦의 둘러리 한 사람이 먼저 先導로 入場해서 主禮앞에 나가 서고 다음에 新郎 新婦가 그 뒤를 따라 入場하고 그 뒤에 또 男女 둘러리가 各各 따르고 해서 入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一般的으로 行하여지는 것은 新郎이 먼저 入場하여(이때 둘러리 두 사람도 뒤따라 들어온다) 主禮앞 左便에 主禮를 向해서 나란히 늘어서 서고 다음에 奏樂에 발을 맞추며 新婦가 들어온다 新婦의 앞에는 꽃바구니를 든 한쌍의 제집아가이 꽃씨를 뿌리며 길을 引導하고 둘러리 두 사람이 시중을 하며 入場해서 新郎 右便에 新婦가 서고 그 右便으로 둘러리가 늘어선다. 꽃바구니를 든 제집아가이 둘은 新郎 新婦 앞에 나란히 선다. 그러면 主禮牧師가 會衆을 向해서 式辭를 하니 그 內容은 우리가 이 곳에 모인 것은 하느님과 여러 證人앞에서 아무개 도령과 아무개 아가씨의 婚姻 成禮를 이루게 함임과 婚姻은 지극히 貴重한 것이고 太初부터 하느님께서 婚姻法을 設立하심과 또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敎會가 聯合하는 奧妙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심과 예수께서 갈리리 婚姻 잔치에 참여하시어 婚姻의 귀중함을 나타내심과 그러므로 婚姻은 輕忽히 할 것이 아니라는 것과 삼가 조심해서 하느님을 敬畏하는 마음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대체로 말한다. 이 式辭가 끝난 다음 主禮牧師는 祈禱를 하는데 天地 萬物과 人生을 내신 하느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하느님 앞과 여러 證人들 앞에서 婚姻 成禮를 이루어 夫婦가 되고자하니 彼此에 精誠된 마음으로 誓約하여 神聖한 家庭을 이루게 하시고 이 禮式을 하나님의 크신 祝福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빈다는 內容의 祈禱를 하니 이때 新郎 新婦는 勿論 一般 會衆은 모두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한다. 祈禱가 끝난 다음에 主禮 牧師는 聖經을 朗讀하는데 대체로 「마태 福音傳」 19章의 4節~6節과 「에페소」 5章 22節~25節을 朗讀하는 것이다. 다음에 主禮牧師가 新郎 新婦에게 各各 말로 물어서 여러 證人들 앞에서 盟誓하게 하니 新郎에게는 「그대가 이 新婦를 아내로 맞아 거룩한 婚姻을 이루니 하느님의 命令을 따라 男便된 責任을 다하여 그를 늘 사랑하고 慰勞하며 귀중히 여기고 保護하여 오직 이 新婦로만 아내를 삼아 永遠하도록 이 約條를 지키기로 盟誓하는가?」 물으면 「예」하고 대답하고 또 다음에 新婦에게 「그대가 이 新郎을 男便으로 맞아 거룩한 婚姻을 이루

니 하느님의 命令을 따라 아내된 責任을 다하여 그를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貴重히 여기고 順從하여 오직 이 新郎으로만 男便을 삼아 永遠하도록 이 約條를 지키기로 盟約하는가?」하고 물으면 「예」하고 對答한다. 이리하여 新郎 新婦 두 사람의 誓約이 끝나고 信物 交換에 이르면 新郎 新婦는 몸에 지녔던 信物을 包裝한채로 둘러리에게 꺼내주면 둘러리는 이것을 主禮에게 바친다. 主禮가 이것을 받아서 包裝을 풀고 內容을 吟味한 뒤에 新郎의 信物을 新郎에게 도로 주어 新婦의 왼손 무명지에 끼어 주게 하며 主禮는 右向 新婦를 左向케하여 서로 正面으로 對面시켜 놓는데 둘러리들도 各各 新郎 新婦를 따라서 돌아선다. 이때 新郎은 왼손으로 新婦 손목을 잡고 오른 손으로 반지를 끼어 준다. 이때에 主禮는 먼저 新郎은 내 말을 따라 盟誓하시오 하고 「내가 聖父와 聖子和 聖神의 이름을 받들어 이 반지로 結婚한 表를 삼아 맹서하노라 아멘」 하면 新郎은 그 말을 따라 원다. 그 다음에 主禮 牧師가 「우리 主의 이름으로 이 新郎 新婦를 爲하여 福을 비니 이 두 사람에게 恩寵을 나리시어 오늘 盟誓한 것을 굳게 지키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永遠하도록 하나님의 律法을 遵行하여 平安하게 이 세상을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內容의 祈禱를 하고 나서 主禮는 新郎 新婦로 하여금 오른손을 서로 맞잡게 하고 그위에 主禮牧師 自身の 오른 손을 놓은 後에 「아무개 도령과 아무개 아가씨 두 사람이 오늘 하느님과 이 會衆앞에서 거룩한 婚姻言約을 세우고 彼此에 精誠된 마음으로 盟誓하며 그 오른손을 서로 잡고 表를 주고 받음으로 憑據를 삼았으니 내가 聖父와 聖子和 聖神의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이 夫婦됨을 公佈하노라 아멘」하고 佈한다. 그리고 나서 主禮牧師가 婚姻의 誓約證書를 만들었다가 新郎 新婦에게 준 다음 主禮牧師가 新郎 新婦를 爲해서 祝福의 祈禱를 한다. 그 뒤 祝辭가 있으면 하고 祝電이 있으면 朗讀하며 祝歌(獨唱 또는 合唱)를 한다. 그다음 新郎 新婦의 父母와 親戚을 適當한 앞자리로 引導해서 앉게 하고 新郎은 新婦로 하여금 禮를 하게 하고 또 會衆一同에게도 敬禮로써 人事를 한다. 그리고 나서 主禮 牧師가 閉式祝福의 祈禱를 하고 奏樂裡에 來賓一同이 起立한 뒤에 新郎 新婦가 먼저 退場하고 그뒤를 쫓아 來賓一同도 次々히 退場하여 이로써 式이 끝나는 것이다. 이 外에 基督教 各 教會儀式도 大體로 이와 비슷하므로 前述한 것을 미루어 알것이다.

#### (다) 佛 教 式

佛教에서는 花婚法이라고 하며 佛前에서 獻花拜佛하는 儀式으로서 結婚式을 舉行하게 되어 있는데 服裝은 佛式의 特製 禮服은 없고 普通 韓服이나 洋服을 着用하고. 여기에 먼저 그 式順을 적고 그 儀式을 概略 叙述하고자 한다.

- |              |            |
|--------------|------------|
| 1. 開式        | 2. 來賓着席    |
| 3. 主禮法師登壇    | 4. 新郎新婦入場  |
| 5. 新郎新婦紹介    | 6. 三歸依禮    |
| 7. 新郎新婦敬禮    | 8. 告由文朗讀   |
| 9. 相見禮       | 10. 獻花     |
| 11. 信物交換     | 12. 諭告及 宣誓 |
| 13. 讚佛偈      | 14. 來賓祝辭   |
| 15. 祝電朗讀     | 16. 婚家の 人事 |
| 17. 閉式(四弘誓願) | 以上         |

佛壇앞 또는 禮卓앞에서 行禮를 하는데 開式은 鳴鍾을 다섯번 쳐서 알리고 各種 樂器 合奏裡의 引禮(案內者로서 僧侶中에서 擇한다)가 兩家 親族과 一般 來賓을 引導하여 入場 着席케하고 나서 8~9歲의 花童 花女의 先導로 主禮法師가 佛壇앞 主禮席에 登壇하면 花童 花女의 先導로 新

## 第 1 編 總 論

郎 新婦와 雙方 둘러러가 入場한다. 이때 花童 花女는 꽃바구니를 들고 新郎 新婦 앞에 서서 꽃을 홀어 뿌리며 式場에 들어온다. 入場이 끝나면 奏樂은 그친다. 主禮 法師가 新郎 新婦의 姓名과 略歷을 紹介한 다음 香을 香爐에 피우고 세 歸依(佛法 僧에 對한 세 歸依를 말하는 것으로 法師가 이 세 歸依를 부를 제 大衆은 每番 佛前に 敬禮를 하는데 세 歸依에 各各 한번씩 一禮를 한다)를 부르면 大衆一同(新郎 新婦도)은 一齊히 起立하여 그 唱聲에 맞추워 佛前に 敬禮(半拜禮)을 한다. 다음에 主禮 法師의 指示에 依하여 新郎 新婦가 다 함께 佛前に 敬禮(半拜禮)를 하고 나면 主禮 法師가 告由文을 읽고 新郎 新婦가 正面으로 相向해서 선 뒤 交拜禮(半禮)를 行한다. 引禮가 準備하였던 다섯 송이의 꽃을 꽃은 瓶을 新郎에게 주면 新郎은 이것을 받아서 主禮法師에게 드리고 主禮法師은 이것을 받아서 佛卓 東邊에 獻上하고 또 引禮가 新婦에게 주면 新婦는 이것을 받아서 新郎을 經由하여 法主에게 드리고 法主는 이것을 佛卓 西邊에 獻上한다. 그리고 信物 交換으로는 반지, 가락지를 交換하는 것이 보통이나 特히 篤信하는 佛教徒로는 高貴한 短珠를 交換하는 수도 있다. 다음에 主禮 法師가 論告(一般 社會式 主禮辭와 같은것)를 하고 나서 宣誓를 하니 主禮 法師가 新郎에게 「新郎은 이 女人만을 아내로 삼아서 다시는 다른 아내를 求하지 않을 것을 盟誓하는가?」 하면 新郎은 「예」 대답 또는 敬禮하고 또 新婦에게 「新婦는 始終이 如一하게 남의 아내된 道理를 잘 지키겠는가?」 하면 新婦는 「예」 대답 또는 敬禮를 한다. 다음에 主禮 法師가 讚佛偈(偈라는 것은 부처님의 功德이나 佛道の 敎理를 讚仰하는 詩歌)를 외우면 大衆은 그를 따라서 세번 敬禮를 한다. 그리고 나서 一般 他式의 例와 같이 來禮 祝辭와 祝文, 祝電, 朗讀이 있고 主禮 法師가 四弘誓願을 부르면 大衆은 이에 따라서 세번 敬禮를 하고 主禮 法師가 閉式을 宣言한다. 이에 奏樂이 시작되고 花童 花女의 前導로 新郎 新婦는 式場 前面 또는 側面으로 退場하고 參列者 一同도 뒤따라 退場하며 主禮 法師는 後面 或은 新郎 新婦가 反對側으로 退場한다.

### (라) 天道敎式

天道敎의 敎理는 儒 佛 仙 三道の 眞髓만을 추려 모은 宗教인데 天道敎에서는 婚禮에 關한 獨特한 儀式 節次가 있어서 信者들 사이의 結婚式은 大概 이에 依하여 行하여지고 있다. 約婚을 할때는 當婚者(新郎 新婦)와 兩方의 家族이 한자리에 모여서 먼저 清水로 尊(맑은 물을 깨끗한 그릇에 떠서 床위에 놓고 床은 여러사람이 둘러앉은 한 가운데 놓는다. 이 儀禮는 하느님께 對한 恭敬의 뜻을 表하는 것으로 天道敎에서는 一切의 奠禮는 酒饌 대신 清水를 떠놓고 드리게 되어 있다)을 드린 다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心告(하느님께 마음속으로 祈禱하는것)를 하니 대개 「하느님과 스승님의 恩德으로 오늘 이 慶事스러운 約婚의 儀를 行하게 되오니 感謝합니다. 이 두사람을 위하여 永遠無窮한 幸福을 주시옵소서」 하는 뜻으로 제각기 마음속으로 빌고 祝賀를 한다. 이 心告가 끝나면 兩方의 主禮者(儒敎式 婚禮와 마찬가지로 新郎 新婦의 祖父 또는 父親이 된다)가 約婚書를 交換하고 나서 新郎 新婦가 禮物를 交換한다. 結婚式을 一般 禮式場에서 行할 때는 主禮와 新郎 新婦 사이에 놓인 卓子위에 清水로 奉奠하고 奉奠한 卓子앞에 깨끗한 자리를 깔아 놓는다. 新郎 新婦의 服裝은 特別한 制式이 없고 韓服이나 洋服을 着用하며 主禮는 信者中에서 德望있고 習禮한 분이 하고 引導人은 男女 各 한 사람씩 擇하여 男子는 新郎을 引導하고 女子는 新婦를 引導한다.

여기에 먼저 式順을 적고 儀式節次를 概略 叙述하기로 한다.

1. 開式
2. 清水奉奠
3. 新郎 新婦 向禮卓敬禮立
4. 新郎 新婦 相向拜禮
5. 告天文 朗讀
6. 新郎 新婦 清水 分酌

7. 新郎 新婦 心告

8. 新郎 新婦 禮物交換

9. 告辭

以上

먼저 開式에 이어 禮卓위에 清水를 받들어 올리고 新郎 新婦가 禮卓을 向해서 敬禮를 한 뒤 마주선다. 이때 男左女右의 原則에 依해서 新郎은 左便에 서고 新婦는 右便에 선다. 新郎 新婦는 禮卓을 向해서 섰던 것을 正面으로 對立하여 선 뒤 허리를 굽혀서 立體로써 拜禮를 하고 나면 主禮가 告天文을 朗讀하는데 이때 一同이 起立한다. 告天文을 여기에 적으면 이러하다. 「布德 年 月 日 아무개 도령 아무개 아가씨가 하느님과 스승님의 恩德으로 오늘 婚禮式을 行하옵고 夫婦의 誼를 맺사오니 하느님과 스승님 感應하시와 永遠한 幸福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禮 아무개」 告天文 朗讀이 끝나면 卓上에 奉奠한 清水를 引導人이 各各 두잔에 따라서 주면 新婦가 各各 받아서 百年 偕老할 것을 盟誓하고 나서 兩人은 「하느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의 恩德으로 오늘 夫婦의 誼를 맺사와 永遠한 幸福을 누리겠아옵기 하느님과 스승님과 父母님께 盟誓하옵나이다」라고 마음속으로 心告한다. 그리고 나서 新郎이 新婦에게 結婚반지를 끼여 주고 新婦도 新郎에게 禮物를 준다. 다음에 主禮가 告辭을 하고 나면 式은 끝이 나는 것인데 告辭는 諸式의 主禮辭와 大同小異한 것이다. 以上으로써 婚禮에 就하여 在來式인 舊式 婚儀에서 부터 新式인 一般社會式과 基督教式, 佛教式, 天道教式, 現代式, 婚儀에 이르기 까지 節次에 依하여 概略 叙述하였다.

第3節 產 俗

產俗: 結婚한 女子의 最大의 義務는 子女를 낳는 것이고, 子女를 낳되 奉祭祠하여 家統을 이을 男子를 낳는 것이 最高의 希望이었다. 結婚한 女子가 子女를 낳지 못한다거나,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本人은 勿論 一族의 큰 煩悶거리가 되므로 아들 낳기를 바라는 祈子의 風俗이 생기게 되었다. 祈子의 風俗은 致誠祈子和 呪術의 祈子의 두가지가 있는데 致誠祈子는 婦人이 名山이나 寺刹에 가서 山祭를 지내어 致誠을 올리는 것이 普遍의 方法이다. 山祭致誠의 對象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이 巨石奇岩이다.

이 外에도 샘이나 巨木도 對象이 된다. 이러한 對象物은 그 自體가 靈驗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山神이 깃들여 있는 것으로 생각 되어졌고 山祭의 供物로 바치는 食物은 밥과 반찬인데 大部分의 경우 밥만은 現場에서 直接 짓고, 盛大히 하는 사람은 돼지머리를 供物로 提供하는 수도 있다. 簡素하게 할 때는 井華水만 바치는 수도 있다. 致誠을 드릴 때에는 他人은 勿論 집안 食口도 알리지 않고 禁忌를 하여 몸과 마음을 端正히 하고 對象物에게 아들 얻을 것을 祈願한다. 이 때에 特別한 呪文은 따로 없고 손을 合掌하여 所願의 成就를 비는데 곳에 따라서는 돌을 모아 돌무지를 만들기도 하고 或은 對象物인 바위를 깔고 앉기도 한다. 原城郡 貴來面 周浦里 黃山寺 뒷 산에 있는 미륵불상의 코를 만지면 得男을 한다는 由來도 있다. 致誠은 한번에 그치는 일도 있으나 數日 或은 數個月間을 繼續하는 수도 있다. 山致誠外에 寺刹에 가서 올리는 절致誠이 있다. 절致誠은 寺刹境內의 巨木奇岩이 對象이 되는 수도 있고 法堂에서 佛像에 祈求하는 수도 있다. 또 原州地方의 웬만한 寺刹에는 境內에 山神閣이나 七星堂이 있으므로 이러한 山神閣 七星堂에서 하는 수가 第一 많다. 이 절致誠은 大概 百日間 하는 百日祈禱가 많은데 이때에는 부처님의 芳석을 만들어 가거나 僧侶의 옷을 지어가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山致誠外에 집致誠도 한다. 집致誠은 自家의 한 모퉁이 方位가 좋은 곳을 골라 淨화수나 음식을 차려 놓고 七星, 조왕 또는 삼심할머니에게 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에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하는 수도 있다. 이 외에도 部落마다 있는 部落神에게 비는 수도 있고 東海岸地方 같은 데서는

龍王에게 致誠을 드리는 수도 있다. 이러한 致誠祈子 外에 呪術祈子가 있다. 이것은 아들을 낳기 위하여 特別한 飲食을 먹거나 이상한 行動을 하여 그 呪術의 힘으로 아들을 얻자는 方法이다. 아들을 낳은 집의 胎를 흠쳐다 장작불에 태우면서 그 불에 밥을 지어다 먹기도 하고 産家の 金줄을 흠쳐다 모시기도 하고 삼신상에 놓았던 쌀을 흠쳐다 7日마다 빌기도 한다. 妊娠을 하면 出産까지 禁忌가 있고 上流家庭에서는 胎教를 한다. 飲食物의 禁忌로서는 개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게, 문어, 喪家집 飲食을 禁하고, 行爲의 禁忌로서는 시루나 독을 들어서는 안되고, 어떤 물건이던 몸에 품어서는 아니되고, 말고때나 새끼줄을 넘어서도 아니되고, 喪家は 勿論 婚事 구경도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出産은 흔히 첫 아이는 親庭에서 낳으나 둘째 이하는 自己집에서 낳는다. 産室 윗목에 「삼신상」을 차려 놓는 곳도 있는데 이 상에는 쌀, 정화수, 미역을 놓는 것이 보통이다. 難産일 경우에는 男便의 이름을 종이에 써서 産母의 발바닥에 붙이기도 하고, 부적을 써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술뚜껑 창문 장농문등을 열어 놓기도 하는 呪術의 方法을 흔히 썼다. 胎는 普通 3日 以內에 處理하는데 그 處理方法도 埋藏하는 方法, 물에 띄우는 方法, 불에 태우는 方法이 있는데 原州地方에서는 데쳐로 태우는 方法을 많이 쓰고 있다. 태우는 方法도 것불에다 태우며 태우는 곳도 아무 곳에서나 태우는 것이 아니고 燒胎方이 있어 1, 5, 9월생은 辰方에서 태우면 富貴長壽하고 2, 6, 10월생은 酉方에서 태우면 大吉하고 3, 7, 11월생은 寅方에서 태우면 富貴善文하고 4, 8, 12월생은 卯方에서 태우면 及弟한다는 俗信이 있다. 出産 後에는 「금줄」을 쳐서 外人의 出入을 禁하게 하는데 「금줄」은 원세끼에 男子인 경우에는 고추, 숯 등을 달고 女子인 경우에는 숯, 솔잎등을 단다. 첫 7일이 되어야 집안 食口가 産室出入을 하게 되고 세 이레 卽 3×7일이 되면 「금줄」도 뜯어 버리고 産室은 開放되고 百日에는 百日 잔치가 있다. 백일 잔치는 옛날 醫術이 發達하지 못하여 百日內의 幼兒의 死亡이 많던 시대에 無事히 백일을 맞았다는 것을 祝賀하기 위한 잔치이고 다음 돌이 되면 돌잔치가 있다. 돌은 대개 外家에서 차려오는 것이 恒例이고 이 때에는 돌상을 차려 돈, 쌀, 붓, 실등을 놓고 돌잡히기를 한다.

#### 第4節 喪 禮

病者가 危篤하여 死期가 切迫해 오면 一家 近親者가 病室에 모여 病者에게 新衣를 입히고 숨을 거둘 무렵에는 마당에다 명석을 펴고 屏風을 둘러치고 榻床에다 촛불을 켜놓고 밤 세그릇(한床씩)과 술 석잔 醢신 세 켤레 白紙 한卷 明太 세마리 돈若干을 차려 놓는다. 이것은 閻羅王의 使者를 慰勞하고 平安히 魂이 가도록 하기 爲함이다. 絶命하며는 女子는 모두 머리를 풀어 散髮하고 男子의 喪主는 두루마기 한쪽 팔 화장은 빼는데 죽은이가 아버지일 것 같으면 오른쪽을 어머니일 것 같으면 왼쪽을 成服할때 까지 한쪽을 뺀다. 그리고 絶命하면 곧 死者의 生前에 입었던 上衣(적삼)을 屍體있는 지붕위에 던져 두는데 「아무개가 아무달 아무날 아무시에 죽었다」 또는 「當身 옷이나 가져 가시오」라고 세번을 부르는데 이것을 「招魂」이라고 한다. 絶命 後에는 死者의 身體 및 手足을 곧 收斂하여 辟戾되지 않게 하는데 萬一 身體가 뒤틀리어 굳은 뒤에는 容易하게 고칠 수 없을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收斂은 韓紙로서 먼저 兩손과 兩발을 습쳐서 묶고 솜으로써 턱을 고여서 머리는 北쪽으로 하여 바로 누인다. 이것을 小斂이라 하는데 屍體위에는 얇은 흰베로써 全身을 덮고 屏風으로 둘러 막아둔다. 그리고는 親戚과 知人에게 訃告를 發送하는 것이다. 喪主는 늘 屍體앞에 俯伏 謹慎하고 밤에는 燈불을 켜서 밝게 하고 交代로 達夜한다. 喪主는 喪中에 奠을 받들고 相續을 開始한다. 長男이 歿하고 長孫이 繼할 때는 이를 承重이라 일컫는다. 만약 施行 其他로 不在時에는 次男 以下 次男 以下가 없을 때는 長孫



이 이를 代行되 相續은 하지 않는다. 만약 相續人을 未定한 때는 配偶者 그도 없는 때는 親等の 最近한 卑族이 喪主가 된다. 但 相續에는 關係함이 없다. 親戚과 知人들은 賻儀(麻布, 팔죽, 초, 술, 돈)를 보내고 女子는 喪服을 만든다. 또 親戚 知人은 問喪으로 喪家에 이르러 哀悼의 뜻을 表하는데 屍體가 安置되어 있는 방으로 向하여 哭하면서 靈前에 再拜를 마치고 喪主에게 再拜하여 慰問의 말을 한다. 護喪은 主人에게 代身하여 葬儀 完了에 이르기까지 一切 事務를 掌理하는데 親族 또는 親舊中에 經驗있는 이가 이에 當하는데 護喪은 喪家の 事想을 잘 알아서 미리 葬儀費 豫算 其他 重要 事項을 立案하여 喪主 其他 主要人들과 協議를 遂하여 遺漏 없기를 기하고 吊客 및 費用 出納 其他 主要 事項은 이것을 記錄하여 終了後에 喪主에게 提出하여 後日의 備忘에 供한다. 護喪者의 이름으로써 親戚 知己에게 訃告을 하는 訃告에는 死者名 死亡日時 永訣 및 葬式의 日時 場所等을 明確히 記載하고 輓章 花環 謝絕等 吊客의 注意事項이 있으면 附記한다. 그리고 門前에도 揭示한다. 또 訃告과 同時에 戶籍令에 依한 申告 및 埋葬手續을 한다. 普通 死亡 翌日에 襲과 大歛을 하니 喪主 및 近親者 若干人(男喪에는 喪主 및 男子 女喪에는 主婦 및 女子)이 幃內에서 死者 病衣를 除去하고 衾을 覆하고 香湯으로 屍體를 洗拭(浴巾을 使用함)하고 =씻고난 나머지 汚水는 미리 구덩이를 파두었다가 地中에 묻고 病衣等 不潔物은 埋沒하거나 또는 燒却하여 地上에 流散되지 않도록 한다=입에는 쌀을 버드나무 꺾가락으로 넣는다. 이때 「千石 萬石 十萬石」하고 부른다. 그리고 壽衣(幅巾—女子는 掩—充耳 幘目 握手衣袴 周衣—女子는 치마—襪)을 입히는데 男子의 襪은 종이로 만들고 女子의 비녀는 버드나무로 만든다.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棺에 넣으며 손발은 주머니(袋)로써 이것을 싸고 귀에는 솜으로 막고 얼굴은 베를 덮는다. 그리고 다시 麻布로서 全部를 싸고 형질 또는 窓戶紙로서 全身을 일곱군데를 緊縛한다. 이는 他日 改葬의 경우에 散骨이 될까 해서 이를 防止하기 爲함이다. 이리하여 歛衾으로 屍體를 裹하여 棺에 넣은 뒤 棺內의 空隙에는 生存中에 着用하던 衣服等으로 充填하는데 이는 屍體의 動搖를 防止하기 爲함이며 入棺할 때는 全家族이 모여 울고 天板구멍에 銀針을 넣을때 제일 슬피 운다. 棺의 外部는 칠(漆)을 한다. 入棺하면 곧 葬式하기도 하나 대개는 數日後에 行한다. 屍體 入棺後는 靈魂의 倚存할 곳으로 靈座를 設한다. 卓子 또는 椅子를 据하고 그위에 位牌 같은 立札에 紙榜을 붙이거나 또는 사진을 安置한다. 卓子 앞에 小盤(供物臺)에 香爐 香盒 燭臺 등을 벌려놓고 또 지팡이, 안경, 時計等 日常時의 用具等을 靈座의 側에 陳列하고 奠에는 酒果脯를 차리고 香을 피어 讀祝하고 喪服을 입고 親戚도 喪에 服하는데 이것이 最初의 祭로써 成服祭라고 한다. 그리고 이 成服祭 後 男女가 서로 向하여 哭하면서 4拜를 한다. 喪服은 父, 母, 夫, 妻, 子(長男)는 相互間에 喪期中에 布(麻木) 素周衣(女子는 衣裳) 同頭巾(女子는 皂色唐只 黑角簪)을 着用한다. 銘旌은 絹 細 또는 綿布를 쓰고 扛는 데 또는 나무로 만들어 靈座의 右側에 세운다. 書式은 在來式으로 「某官某之柩」라고 쓰기도 하나 現代에는 姓名위에 雅號를 冠用하기도 한다. 넓이 約 1尺半 길이 約 7尺 朱地에 白書 또는 白會에 黑書한다. 婦人에는 古來 從夫職 「何何夫人」 또는 「儒人 某貫 某氏之柩」라 하였으나 요즘은 「某貫 姓名之柩」라고 쓴다. 葬式은 當日葬, 5日葬, 7日葬, 9日葬의 種別이 있는데 普通 3日葬이 많다. 永訣은 마지막 死者를 보내는 告別式인데 대개는 發柩 前 喪家에서 이를 行하나 葬齊場의 設備이 있는 地方에서는 이를 利用하고 또한 葬式 行列을 하여 가다가 中途에서 大擧를 놓고 屏風을 둘러치고 酒果脯를 차려 讀祝을 하여 永訣을 告하기도 한다. 永訣式의 次第는 喪主 以下 弔客—同이 靈座 前에 參列 喪主와 親族等이 焚香 再拜하고 出發을 告하기도 한다. 永訣式의 次第는 喪主 以下 弔客이 焚香拜하고 順次로 退出한다. 永訣式이 끝나면 곧 發柩한다. 子弟 近親이 靈柩를 받들고 나와서 喪輦에 塔載하고 銘旌을 先頭로 出發하는



|         |    |    |           |   |     |    |
|---------|----|----|-----------|---|-----|----|
| 從祖祖母    | 功  | 5月 | 從祖母       | 嫁 | 無功  | 5月 |
| 族曾伯叔父母  | 小  | 3月 | 族姑        | 嫁 | 小   | 3月 |
| 兄弟之子    | 總  | 1年 | 族         | 嫁 | 總   | 3月 |
| 兄弟之孫    | 不杖 | 9月 | 從祖兄弟之女    | 嫁 | 無   | 3月 |
| 兄弟之曾孫   | 大功 | 3月 | 族姊妹       | 嫁 | 無   | 3月 |
| 從父兄弟    | 無功 | 9月 | 三父入母服     | 嫁 | 無   |    |
| 從祖伯叔父母  | 小  | 3月 | 同居繼父      |   | 不杖  | 1年 |
| 族祖伯叔父母  | 總  | 5月 | 不同居繼父     |   | 齊衰  | 3年 |
| 從父兄弟之子  | 小  | 3月 | 元不同居繼父    |   | 大功  | 9月 |
| 從父兄弟之孫  | 總  | 3月 | 附異父同母兄弟姊妹 |   | 大齊  | 3年 |
| 從祖兄弟    | 無功 | 3月 | 嫡母之父      |   | 小嫡母 |    |
| 族伯叔父母   | 小  | 5月 | 為嫡母之姊妹    |   | 則不  |    |
| 族兄弟     | 無  | 3月 | 兄弟姊妹      |   | 齊衰  | 3年 |
| 姊妹      | 總  | 3月 | 繼母出則無服母出  |   | 小   | 5月 |
| 姑       | 無  | 3月 | 則為繼母之父    |   | 齊   | 3月 |
| 從祖祖母    | 不杖 | 1年 | 嫡養        |   | 齊   | 3月 |
| 族曾祖母    | 大功 | 9月 | 嫁出        |   | 齊   | 3月 |
| 兄弟之女    | 不杖 | 1年 | 乳庶慈       |   | 齊   | 3月 |
| 兄弟之孫女   | 大功 | 9月 | 三         |   | 齊   | 3月 |
| 兄弟之曾孫女  | 小  | 5月 | 子         |   | 齊   | 3月 |
| 從父姊妹    | 總  | 3月 | 孫         |   | 齊   | 3月 |
| 從祖姑     | 無功 | 3月 | 嫡會玄孫      |   | 齊   | 3月 |
| 族祖姑     | 無功 | 9月 | 叔父        |   | 齊   | 3月 |
| 從父兄弟之女  | 小  | 5月 | 從祖祖父      |   | 齊   | 3月 |
| 從父兄弟之孫女 | 總  | 3月 |           |   | 齊   | 3月 |

— 104 —

|          |    |     |    |        |    |     |    |
|----------|----|-----|----|--------|----|-----|----|
| 夫從父姉妹通人降 | 嫁  | 總小功 | 3月 | 祖父母    | 妻婦 | 不杖褻 | 9月 |
| 夫從父兄弟之女  | 嫁  | 總小功 | 5月 | 曾祖父母   | 婦  | 總大功 | 3月 |
| 夫從父兄之孫女  | 嫁  | 總無功 | 3月 | 伯叔父    | 婦  | 總大功 | 9月 |
| 夫從祖兄弟之女  | 嫁  | 總無功 | 3月 | 從兄     | 婦  | 總大功 | 3月 |
| ◎出嫁女爲本宗服 |    |     | 3  | 兄弟之子   | 婦  | 總大功 | 9月 |
| 父        |    | 不杖褻 | 1年 | 兄弟之孫   | 婦  | 總大功 | 5月 |
| 祖父母      |    | 齊衰  | 1年 | 從祖父母   | 婦  | 總大功 | 3月 |
| 曾祖父母     |    | 齊衰  | 5月 | 從父兄弟   | 婦  | 總大功 | 3月 |
| 高祖父母     |    | 齊衰  | 3月 | 從父兄弟   | 婦  | 總大功 | 5月 |
| 伯叔父母     |    | 齊衰  | 9月 | 從父兄弟   | 婦  | 總大功 | 3月 |
| 從祖父母     |    | 齊衰  | 3月 | 從父兄弟   | 婦  | 總大功 | 3月 |
| 兄弟之子     | 妻婦 | 總大功 | 9月 | 姑      | 嫁  | 總大功 | 9月 |
| 兄弟之孫     | 妻婦 | 總大功 | 5月 | 從祖姑    | 嫁  | 總大功 | 5月 |
| 從祖父兄弟    | 妻婦 | 總大功 | 9月 | 姊      | 嫁  | 總大功 | 3月 |
| 從父兄弟     | 妻婦 | 總大功 | 3月 | 兄弟之女   | 嫁  | 總大功 | 9月 |
| 從父兄弟     | 妻婦 | 總大功 | 3月 | 兄弟之孫女  | 嫁  | 總大功 | 5月 |
| 姑祖姑      | 妻婦 | 總大功 | 9月 | 從祖姑    | 嫁  | 總大功 | 3月 |
| 姊弟之孫女    | 妻婦 | 總大功 | 3月 | 從父姊妹   | 嫁  | 總大功 | 3月 |
| 從祖姑      | 妻婦 | 總大功 | 3月 | 從父兄弟之女 | 嫁  | 總大功 | 5月 |
| 從父姊妹     | 妻婦 | 總大功 | 3月 | 從祖姊妹   | 嫁  | 總大功 | 3月 |
| 從父兄弟之女   | 妻婦 | 總大功 | 3月 |        | 嫁  | 總大功 | 3月 |
| 從祖姊妹     | 妻婦 | 總大功 | 3月 |        | 嫁  | 總大功 | 3月 |
| 爲人後者爲本生服 |    |     |    |        |    |     |    |
| 父        |    | 總大功 |    |        |    |     |    |
| 母        |    | 總大功 |    |        |    |     |    |

以上으로서 喪禮에 관하여 그 儀禮를 대강 叙述하였다. 本「喪禮」는 그 大部分을 「儀禮準則과 解說」에서 引用하였음을 附記한다.

## 第5節 祭 禮

祭祀는 先祖에 對한 報恩의 大義와 思慕景仰의 情念에 基하여 그 靈을 奉事하는 것이므로 沐浴 齊戒하여 몸을 맑히고 마음을 統一하여 先祖를 思慕하기를 懇切히 한다. 祭祀 前부터 家內를 掃除整頓하고 汚處는 沙土를 布하는 등 境內를 清潔靜肅하는 主人 以下 沐浴 剪爪 治髮 更衣 禁酒 謹慎하고 一意專心으로 祭神을 思慕한다. 祭服은 通常禮服 즉 男子는 두루마기 女子는 襦長裳의 清潔한 것을 쓰고 苧布木 帛屬으로 特製한 것을 쓰기도 하며 祭器 拜席等은 特製

## 第1編 總 論

한 것을 쓴다. 그리고 神主는 通常 假主 또는 紙榜이라 일컬어 넓이 2.3寸 길이 6.7寸 되는 白紙에 祭神의 稱號 神位를 黑書하나니 每祭時에 이를 作成하며 配偶者는 항상 合祀함을 原則으로 同一 紙片에 配偶者를 列書한다. 紙榜은 櫃(木製箱形이니 神主를 入하도록 만든것)에 넣어 內面에 붙이는 것이나 櫃이 없을 때에는 屏風 또는 土壁에 貼附하기도 한다.

### ※ 父 母

顯考學生府君 神位

顯妣孺人○○○氏 神位

### ※ 祖父母

顯祖考訓練主簿通政大夫府君 神位

顯祖妣貞夫人○○○氏 神位

### ※ 曾祖父母

顯曾祖考處士府君 神位

顯曾祖妣孺人○○○氏 神位

### ※ 高祖父母

顯高祖考絕衛軍行龍驤衛副護軍府君 神位

顯高祖妣淑夫人○○○氏 神位

### (가) 忌 祭

忌祭는 祖 禰에 限하고(不遷之位는 此限에 不在함)每年 이를 行하니 매개 前日 夜半에 執行한다. 이제 忌祭의 順序를 적고 그 行事に 要點을 說明하기로 한다.

- |                        |                     |
|------------------------|---------------------|
| 1. 祭主가 紙榜을 祭位에 奉安함     | 2. 祭主 以下 列立함(男東 女西) |
| 3. 進饌                  | 4. 祭主 以下 再拜함(參神)    |
| 5. 祭主 焚香 降神禮를 行함(祭主再配) | 6. 初獻               |
| 7. 讀祝                  | 8. 亞獻               |
| 9. 三獻                  | 10. 闔門              |
| 11. 啓門                 | 12. 點茶(熱水)          |
| 13. 祭主 以下 再拜함(謝神)      | 14. 撤饌              |
| 15. 撤位                 |                     |

祭主가 陳饌을 檢閱하고 나면 祭主 參祭者 一同 모두 神位에 向하여 再拜하니 이는 迎神의 뜻 다음 祭主가 焚香하고 酌酒하여 茅沙(沙鉢에 沙를 넣고 茅 또는 松葉을 넣어서 地土를 象定한 것)에 붓는다. 즉 魂昇魄降하여 陰陽之氣가 交流하여 神靈이 이에 來臨한다는 것을 意味하니 降神禮를 行한다. 祭主 再拜 이어서 祭主가 初獻을 行한다. 助事者가 술을 따르면 祭主가 받아 가지고 神位前에 드리고(先考後妣) 再拜한다. 다음 親族中에서 讀祝者를 定하여 (또는 祭主 自身)이 祝文을 朗讀한다. (省略하기도 한다) 다음 主婦가 亞獻을 行한다. 主婦가 有故時에 兄弟의 長男 親族의 順序로 이에 當하나니 잔을 들어 退酒器에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初獻과 같이 한다. 但 男子는 再拜 女子가 四拜 이어서 兄弟中에 長者長男 其他 族屬中에서 한사람이 終獻을 하는 데 亞獻과 같이 한다. 다음 闔門을 하니 이는 祭物을 물리기 전에 문을 잠시 닫는다. 그리고는 侑食 뒤에 闔門을 여니 이것을 啓門이라고 한다. 다음 點茶(熱水)를 하나니 羹을 물리고 熱水를 드린다. 그리고 나서 祭主 以下 一同이 再拜하니 이는 神이 감에 一同이 告別함을 뜻한다. (辭神) 이로서 祭祀는 끝나 撤饌하니 神位 撤去하며 紙榜 및 祝文을 불태워 버린다.

忌祭 祝文 文例는 다음과 같다.

維歲次甲戌○月○○朔初○日○○孝子某敢昭告于

顯考 某 官府君

顯妣 某封某貫某氏歲序遷易

顯考諱日復臨追遠感時昊天罔極謹以清酌庶

羞恭伸奠獻尙

饗

그리고 忌祭 祭奠 供物은 飯, 羹, 酒, 果, 醢, 脯, 菜, 醬 等이며 祭饌의 陳設에는 從來로 여러가지 方式이 있으나 여기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陳設圖로 보면 다음과 같다.

| 屏   |   | 風  |     |
|-----|---|----|-----|
| 位   |   | 牌  |     |
| 湯   | 飯 | 湯  | 飯   |
| 脯   | 蔬 | 匙筋 | 餅   |
| 湯   |   | 湯  | 炙   |
| 煎   | 煎 | 醬  | 湯   |
| 果果果 |   | 酒酒 | 羹   |
|     |   |    | 果果果 |

#### (나) 寒 食

寒食, 秋夕, 重陽 또는 適當한 날을 擇하여 이를 行하는데 墳墓를 展視한 뒤에 修理 掃除하고 墓앞에 祭饌을 供하는데 그 順序는 다음과 같다.

1. 祭主 以下 墓前에 再拜함
2. 祭主 焚香 降神禮를 行함(祭主再拜)
3. 進饌
4. 獻酌(單獻 또는 三獻)
5. 祭主 以下 再拜함(辭神)
6. 撤饌 그리고 墓祭 祭奠의 供物은 酒, 果, 脯, 餅, 菜, 等이다.

### 第6節 가정 의례 준칙

#### 답 화 문

「가정의례준칙」 공포에 즈음하여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오늘「가정의례준칙」을 공포함에 즈음해서 나는 국민여러분이 이 준칙의 내용과 정신을 옹기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하루속히 널리 보급되어 번잡한 옛 의례에 따르는 고루(固陋)와 낭비가 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무릇 의례란 한편으로는 조상이래의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활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발전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생활은 불편과 번거로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통이나 전래의 방법이란 마땅히 길이 보전되고 전승 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나 그것은 그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관혼상제만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는 그 정신이 귀중한 것이지 음복(飮福)이나 따파(茶葉)가 많고 적고 하는 절차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조국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활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과업수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 第1編 總 論

적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가정의례준칙」의 제정과 그 실천의 팔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던 것입니다.

이번 제정된 이 준칙은 이 여망에 따라 사회에 권위있는 인사들이 한데 모여 오랜 시일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 검토한 끝에 마련된 것이며 국민여러분이 이 준칙에 대해 각별한 이해와 협조만 해 주신다면 좋은 준칙으로 생활화 될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정녕 우리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름아래 일상 생활에서 조차 남의 이목과 체면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랫동안 허례허식에 얽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의에 정신과 형식이 부합되는 생활의 근대화를 국민각자가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지도층에 있는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이 준칙이 철저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 언론 사회 교육기관에서도 이 준칙의 보급과 계몽에 앞장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으로써 하루바삐 이 준칙이 우리의 새로운 의례로 생활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1969年 3月 5日

대통령 박 정 회

## 가정의례준칙 주요골자

### (1) 혼 려

#### (가) 약 혼

1. 약혼당사자가 합의한 후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한다.
2. 사주나 혼서자등의 재래 격식은 폐지하고 약혼식(또는 약혼잔치)을 하지 아니한다.

#### (나) 혼인초청

1. 혼례식에는 친척과 가까운 친지에 한하여 초청한다.
2. 청첩장은 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혼례식

1. 혼례식 장소는 양가의 가정이나 공회당 등으로 한다.
2. 혼례복장은 새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정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3. 혼례식에는 화환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축사나 축전의 낭독과 테프 락송 꽃가루 등의 사용을 아니하도록 한다.
4. 혼례 답례품과 피로연은 하지 아니한다.

#### (라) 혼인신고

혼례식에서 혼인서약서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서명 날인하고 혼인신고는 혼인당일로 하도록 한다.

#### (마) 신행과 폐백

1. 신행은 혼인 당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폐백과 예물은 간소하게 한다.



## (2) 상례

### (가) 입종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직계 존비속이 입종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수시

1. 초혼과 사자밥은 하지 아니한다.
2. 심한 절시를 하지 아니한다.

### (다) 발상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재래격식대로 맨발이 되거나 머리푸는 것은 아니하고 호복은 삼가 한다.

### (라) 복인

재래식 복잡한 구분을 단일화하여 고인의 8촌이내의 친족으로 한다.

### (마) 부고

1. 서식을 간결하게 한글로 한다.
2. 관공서나 일반직장 명의로 관련된 부고는 하지 아니한다.

### (바) 입관

1. 재래의 염습절차를 없애고 간소하게 한다.
2. 수의는 고인의 평상복으로도 될수 있다.
3. 전상및 성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사) 상복

1. 재래의 복잡한 굴건제복등의 복제를 한복과 양복으로 구분하여 한복은 백색계 양복은 흑색계로 한다.
2. 상복을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평상복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 장일

장일은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 (자) 조문

1. 상가에서 음식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2. 조화등은 보내지 아니한다.

### (차) 묘소

1. 공동묘지나 공공 납골당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카) 영결식

1.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2.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 또는 위패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 (타) 관나르기

1. 관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나르기의 행렬순서는 사진, 명정, 영구, 상제및 조객 순으로 한다.
3. 노제등은 지내지 아니하고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상장의 규격은 별지 3에 의한다.

## 第1編 總 論

### (파) 하관 및 성분

1. 정상제와 하관시의 폐박등은 하지 아니한다.
2. 매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앞으로 혼령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잔올리기 축문읽기 및 배례로써 행한다.

### (하) 우 제

1. 초우 재우및 삼우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2. 졸곡및 부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 (가) 상 기

1. 상기중 신위를 모셔두는 제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2.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자의 상기는 장알까지로 한다.
3. 담제및 길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 (3) 제 려

### (가)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와 종래의 절사 친신 묘사 시제등을 폐합한 절사 및 연시제등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 (나) 제례의 대상

1.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2. 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3. 절사의 대상은 직제조상으로 한다.
4.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 (다) 제례의 일시

1. 기제는 별세한 날 일몰후 적당한 시각에 지낸다.
2. 절사는 추석절 아침에 지낸다.

### (라) 봉사(행사)방법

1. 기제는 양위를 합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사와 연시제는 봉사대상을 합사한다.

### (마) 제 수

1.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2. 절사시는 메를 떡으로 연시제시는 메를 떡국으로 대신 할 수 있다.

### (바) 지방 및 축문

1. 한글로 새로 제정한다.
2.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

(1969年 1月 16日法律 第2079號)  
(改正 1973年 3月 13日法律 第2604號)

第1條 (目的) 이法은 家庭儀禮에 있어서 虛禮虛飾을 一掃하고 그 儀式節次를 合理化함으로써 浪費를 抑制하고 健全한 社會氣風을 振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家庭儀禮라 함은 家庭儀禮로서 行하는 婚禮, 喪禮, 祭禮, 回甲宴 등을 말한다.

第3條 (家庭儀禮準則)

1. 家庭禮儀의 儀式節次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準則에 따라 嚴肅하고 簡素하게 行하여야 한다.
2. 家庭儀禮의 儀式節次에 關한 準則은 家庭儀禮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및 政府管理企業體의 任 職員은 家庭儀禮準則의 實踐에 率先垂範하여야 한다.

第4條 (虛禮虛飾行爲의 禁止)

- ① 누구든지 家庭儀禮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다만 家庭儀禮의 참뜻에 비추어 合理的인 範圍 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請牒狀 또는 訃告狀等 印刷物에 의한 個別告知
  2. 花環 花盆 이와 類似한 裝飾物의 陳列 또는 使用
  3. 答禮品의 贈與
  4. 屈巾祭服의 着用
  5. 挽文의 使用
  6. 慶吊期間中 酒類 및 飲食物의 接待
- ② 第一項의 規定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名義나 會社 또는 團體의 名義로 行하는 喪禮의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5條 (儀禮式場等營業)

- ① 家庭儀禮를 行하는 式場을 提供하고 賃貸料를 받거나 葬禮에 所要되는 器具 物品을 販賣 또는 貸與하거나 結婚相談 또는 仲媒行爲를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第一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種類, 施設基準, 賃貸料, 手數料 또는 營業者의 遵守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6條 (廢業申告等)

- ①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休業 또는 廢業하고자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② 第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期間中에 提出된 廢業申告는 當該 營業停止處分期間이 終了한 날에 提出된 것으로 본다.

第7條 (許可의 取消等)

-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게 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月以上 6月以下의 範圍 안에서 期間을 定하여 그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許可를 받은 후 3月이 經過하여도 그 營業을 開業하지 아니할 때
  2. 第4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을 違反할 때
  3. 第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이나 遵守事項을 違反할 때
  4. 其他 이法 또는 이법에 依한 命令을 違反할 때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의 取消處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 第1編 總 論

6月이 經過하지 아니하고는 同一한 營業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 第8條 (家庭儀禮審議委員會等)

- ①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家庭儀禮에 關한 事項을 調査 研究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家庭儀禮審議委員會를 둔다.
- ② 家庭儀禮準則의 普及 實踐을 推進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長官 所屬下에 中央家庭儀禮實踐推進委員會를, 서울特別市, 釜山市, 道와 市(區를 包含한다) 郡에 地方家庭儀禮實踐推進委員會를 둔다.
-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와 各級 家庭儀禮實踐推進委員會의 構成 職務 運營 및 經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條 (罰則)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行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10條 (同前) ① 第4條의 規定에 違反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對하여 50萬圓 以下の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다만 同條 第2項의 行爲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機關名義로 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婚禮 또는 回甲宴에 있어서는 그 當事者
2. 喪禮에 있어서는 喪主 다만 第4條 第1項 第4號 違反의 경우에는 그 着用者
3. 祭禮에 있어서는 祭主

②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가 14세에 達하지 아니한 者인 때에는 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을 處罰한다.

③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の 意思에 反하여 따로 그 行爲를 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者에 對하여 處罰한다.

第11條 (權限의 委任) 保健社會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12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家庭儀禮에 關한 法律 施行令

(1973年 3月 13日 大統領令 第6552號)

第1條 (목적) 이 령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정의) ① 법 제3조 제3항에서 “정부관리 기업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식품이라 함은 장식용 테두리, 꽃가루, 띠춤, 꽃수술, 조각품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류”라 함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음식물”이라 함은 다과류나 청량음료 이외의 음식물을 말한다.

第3條 (가정의례준칙)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條 (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례허식의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전이나 묘소 또는 예식장에 좌우 1개씩 2개의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하는 행위
  2.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나 매장지 또는 화장장까지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3. 혼례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주례가 꽃을 폐용하는 행위
  4. 혼례에 있어서 가정에서 당사자의 친족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5. 회갑연에 있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 ② 혼인 사망등의 사실을 사후에 고지하는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第5條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 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중앙실천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지방실천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되 중앙실천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 및 중앙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지방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第6條 (위원회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사연구
2. 가정의례준칙의 심의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중앙실천위원회 및 지방실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계몽
2.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상황에 관한 조사 전의
3. 기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第7條 (위원의 임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第8條 (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직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第9條 (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第10條 (의사)**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11條 (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第12條 (경비 부담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과 가정의례준칙의 보급 실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第13條 (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약혼서식

약 혼 서

|             |   |   |   |
|-------------|---|---|---|
| 구           | 본 | 남 | 여 |
| 본           | 적 |   |   |
| 주           | 소 |   |   |
| 성           | 명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생 년 월 일     |   |   |   |
| 호주의 주소: 성 명 |   |   |   |

위 두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함.

1. 결혼예정일
2. 기타조건

년 월 일

약혼자

(남)

인

(여)

인

입회인

(남자측): 주소

성명

(여자측): 주소

성명

※ 첨부: 호적등본 1부 진강진단서 1부

※ 민법 제80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은 그 동의권자로 한다.

###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

#### 혼인식순

- |              |             |
|--------------|-------------|
| 가) 개 식       | 나) 신랑·신부 맞결 |
| 다) 신랑·신부 서약  | 라) 성혼선언     |
| 마) 혼인 신고서 날인 | 바) 신랑·신부 인사 |
| 사) 폐 식       |             |

#### 혼인서약

주례는 신랑 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혼인서약을 하게 한다.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 합니까?

#### 3. 성혼선언

성혼선언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성 혼 선 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탁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 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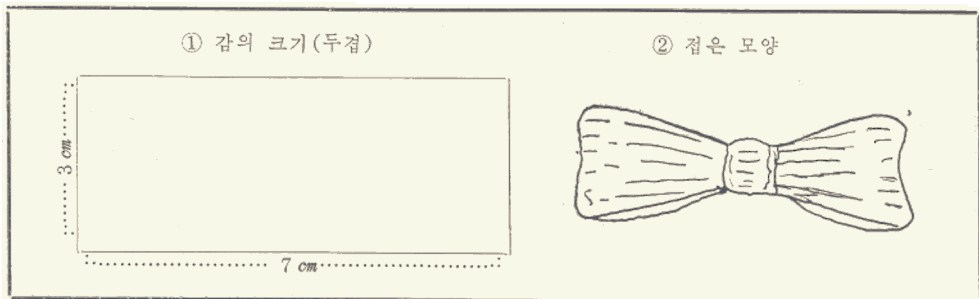
년 월 일  
주례 ○ ○ ○

###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

#### 1. 발인제의 식순

- |             |                 |
|-------------|-----------------|
| 가) 개 식      | 나)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
| 다) 고인의 약력소개 | 라) 조객 분향        |
| 마) 폐 식      |                 |

#### 2. 상장(喪章)의 크기와 모양



### 제례와 신위

#### 1. 제례의 절차

- 가) 혼령 모시기 : 제주는 분향하여 묘사에 술을 붓고 참사차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 나) 잔 올리기 : 술잔은 한번 올리기로 한다.
- 다) 축문 읽기 :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 라) 물림절 : 참사차는 일제히 신위앞에 재배한다.

## 第1編 總 論

###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의 본보기에 따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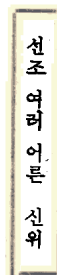
가) 부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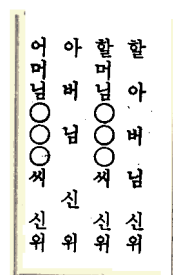
나) 배우자의 경우



다) 절사의 경우



라) 합사하는 경우



## 第7節 歲時風俗

### (1) 正朝의 民俗

正月 初하룻날 아침 各 집에서 歲饌과 歲酒를 갖추어 祖上의 神主 곧 位牌를 安置한 家廟(祖上의 位牌를 奉祀하는 建物 또는 房)에 祭祀를 지내니 이를 正朝 茶禮라 한다.

#### ※ 歲 拜

正月 初하룻날 아침 일찍 男女老少가 모두 새옷(설빔)을 갈아입어 설빔하고 祖父母, 父母에게 절하고 一家 親戚과 이웃 어른을 찾아가서 절하고 새해 人事를 하니 이를 歲拜라고 한다. 最近까지만 해도 歲拜의 熱이 繼續되더니 近間에 와서는 漸次 그 熱이 식어가고 있다. 나이 많은 이는 집에서 子女들과 親戚 또는 其他의 나이 젊은 이로부터 새해 人事를 받고 나이 젊은 이는 自己집에서 禮를 마치고는 親戚이나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歲拜를 하고난 뒤에 서로 親舊들을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하고 논다. 그리고 歲拜하러 온 이에게 對하여 어른에게는 酒食을 내놓는 것이 例가 되어 있으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약간의 돈이나 또는 떡과 果實 같은 것을 준다. 그리고 喪中에 있는 사람은 正月 보름까지(15日) 出入을 하지 않는다. 一家親戚의 웃.어른에게 대하여서는 몇십리씩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서 歲拜를 한다.

東國歲時記에도 「京都俗 歲闕家廟行祭日 茶禮 男女年少卑幼者 皆着新衣曰歲粧 訪族戚長老曰 歲拜饋以時食曰歲饌酒曰歲酒」라고 記錄되어 있음을 보아 相當히 오랜 歷史를 가진 것으로 그 風俗이 오늘날과 조금도 다름 없음을 알 것이다.

#### ※ 설 빔(歲粧)

설날 곧 初하룻날 아침에는 男子 女子 늙은이 젊은이와 어린이가 다 일찍 일어나 洗手하고 모두 새옷을 차려 입으니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하는데 大體로 보름날까지 입는다. 京都雜志 卷2 元日條도 「男女悉着新衣曰歲粧」이라고 記錄되어 있음을 본다. 只今도 歲粧은 繼續되어 있으나 前 같지는 않다.

#### ※ 福 조 리

正月 初하룻날 이른 아침 또는 설날 그믐날 밤 子正이 지나서 조리대로 엮어 만든 조리를 사서 壁에 걸어 두는 風習이 있으니 이것을 俗稱 福조리라고 한다. 原州뿐만 아니라 各 地方에서 조리장수가 이것을 팔기 위하여 初하루 전날 밤부터 「福조리 사시오, 福조리」하고 밤새도록 人家 門을 돌아 다닌다. 이 福조리의 風習은 생각컨대 조리는 쌀을 이는 道具이니 그해의 幸



福을 조리와 같이 일어 取한다는 뜻에서 온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런데 요지음에 와서는 조리도 화학성 제품이 많아 조리대로 엮어 만든 것은 正初에나 선을 보일 뿐으로 크게 盛行되지 못하고 있다.

### ※ 三災 免하는 法

三災(不吉한 運星의 하나로 厄年에 當한다는 뜻)는 12支의 巳·丑·酉 해에 난 사람은 亥·子·丑 해에 申·子 辰해에 난 사람은 寅·卯·辰해에 亥·卯·未해에 난 사람은 巳·午·未해에 寅·午·戌해에 난 사람은 申·酉·戌해에 三災가 든다.

### ※ 五 行 占

새해 새날에 身數를 보기 爲하여 五行占이란 나무를 깎아서 바둑돌만하게 다섯개를 만들어 金 木 水 火 土의 다섯字를 그 各各(예) 새겨가지고 呪文을 외우면서 한꺼번에 다섯개를 흔들어 던져서 그 자빠진 五行글자를 가지고 占辭를 보아 吉凶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呪文의 例와 占辭를 들어보기로 한다.

(가) 呪文의 例=「하늘밑에 달 있으니 땅밑에 달 없을소나? 이를 告하여 즉시 應할 것 같으면 느끼어 順通되어라. 이제 아무 고을(郡面) 아무 동네에 사는 姓名 아무개 아무해生 아무달 아무날 올해 一身上의 道命吉凶을 보아 주십시오. 願컨데 神文은 指示해 주시옵기를!」……

(나) 占辭의 例=「金木水火土(上卦)」麒麟과 鳳凰이 글(書)을 받들고 龍과 거북이 慶事를 祝賀하는 故로 災殃은 가고 福祿은 올 것이다. 풀어 이르기(解曰) 다섯별(五星)이 밝아져서 하늘이 비치고 사람이 卦에 當하자 子孫이 昌盛하고 오래도록 榮華를 누릴 것이다.

「金(中卦)」엿일을 고쳐서 새로 求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기가 龍門에 뛰므로 凡人이 神仙이 된다. 풀어 이르기(解曰) 일을 議論하고 있을 때 貴人이 榮華를 만들어 줄 것이다.

「木火(下卦)」불이 나무에서 나서 다시 나무를 태우므로 恩惠가 變하여 도리어 원수가 된다. 心亂하여 他鄕에서 苦生할 것이다. 풀어 이르기(解曰) 나무가 불에 타서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살아져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財物은 消失하며 誹謗을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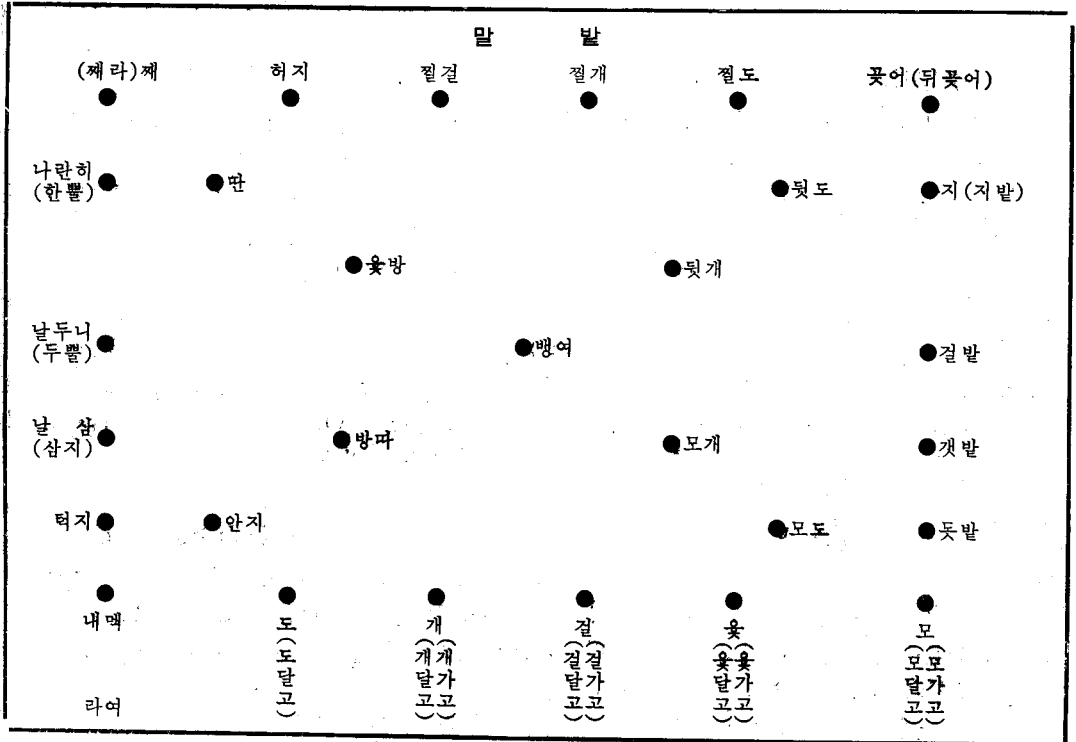
### ※ 安 宅 祭

보름前날부터 각가지 飲食을 차려 놓고 巫堂과 소경을 불러 安宅經을 읽으며 家神禁를 지내는데 이것은 一年동안의 災厄招福을 비는 것이다.

### ※ 웃 놀 이

설날의 遊戲로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웃놀이는 娛樂으로서 가장 新正의 情趣를 갖는 特殊한 놀이인데 初하룻날부터 보름날까지 한다. 이 웃은 박달나무 或은 붉은 통싸리 나무로써 만드는데 웃에는 장작웃과 밤웃의 두가지 種類가 있다. 장작웃은 이를 나무 두가지를 조개서 길이 네치 徑 7, 8分쯤 되게 조개서 네個를 만드는 것을 장작웃이라 하고 콩싸게 만하게(길이6分 徑4分 가량) 만든 것은 밤웃이라 한다. 이 名稱은 다 그 웃의 생김새에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밤웃은 장작웃에 比하면 펴 작은 것이나 縱으로 조개서 네個를 2組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밤웃은 주로 南韓農夫들 사이에 賭博用으로 쓰이고 正月의 遊戲用으로서는 一般的으로 行하여 지지 않는다. 이 웃을 던지고 말을 써서 지고 이기는 장난을 하나니 그 노는 法은 먼저 스물아홉 동그라미를 그린 말판을 펴놓고 두사람 또는 세사람(이 웃놀이는 대개 2, 3人乃至 5, 6人이 普通이나 人數가 많을 때에는 두 패 또는 세패로 나뉘어서 한다)이 서로 웃을 던져서 先後 차례를 定한다. 그러면 웃을 던져서 그 나타나는 것을 보아 入口에서부터 말을 쓰는데 웃 네個가 다 없어진 것을 모라 하고 세個가 없어지고 한개가 자빠진 것을 도라 하고 두개가 없어지고 두個가 자빠진 것을 개라 하고 한個가 없어지고 세個가 자빠진 것을 걸이라 한다. 그리고 도는 한구멍 개는

두구멍 걸은 세구멍 옷은 배구멍 모는 다섯구멍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 쓰고 못쓰는데도 勝負에 많은 영향이 있으며 구멍을 지나가는 데는 돌아서 가는 길과 질러서 가는 길이 있는데 말 네個가 모두 出口에 먼저 나가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 이 옷놀이는 생각하건대 韓國에만 있는 獨特한 遊戲로서 그 起源은 이미 三國時代(新羅)때에 存在하였음을 隣接國家의 여러 文獻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推測할 수 있겠다.



※ 널 뛰기(跳板戲)

설날에 女子의 遊戲로서 널 뛰기를 하는데 길다란 널판(대개 길이 7尺 넓이 1尺8寸가량)을 짚음 또는 가마니 뭉치 위에 절반을 걸쳐 놓고(지방에 따라서는 짚뭉치나 가마니 대신 兩쪽 끝에 구멍이를 파서 하기도 한다) 널판 兩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굴러고 뛰는 것인데 젊은 여자가 빛갈이 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새해 새날의 空中을 서로 번갈아 솟았다가 떨어졌다 노는 樣은 참으로 한 幅의 그림인 것이다. 이 널 뛰기는 韓國 獨特한 習俗으로서 옛날(尙武時代)서 부터 傳承되어 오는 遺風의 하나로 생각되나니 옛날의 韓國女子(銅鑼期以前)는 매우 活潑하여 男子들과 같이 말하고 擊述같은 것도 例事로 하던 固有한 民俗의 하나였던 것이다. 高麗 末年에서부터 李朝 中宗朝 사이에는 琉球나라 使節의 來朝가 頻繁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漂流民이 한 동안 우리 國土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간 일도 있었으니 이 동안에 琉球나라의 板舞는 이들에 依하여 傳하여진 것이라고 여겨진다.

※ 有毛日・無毛日

초하룻날에서 부터 열 이튿날까지는 干支의 이름을 일컫는 風習이 있으니 이를테면 子日을 쥐날, 丑日을 소날, 寅日을 호랑이날, 卯日을 토끼날, 辰日을 龍날, 巳日을 뱀날, 午日을 말날, 未日을 염소날, 申日을 원숭이(잔나비)날, 酉日을 닭날, 戌日을 개날, 亥日을 돼지날이라고 한다. 그

리고 앞에 들은 12支의 動物中에서 쥐, 호랑이, 염소, 토끼, 말, 닭等 털이 있는 것의 날을 有毛日 곧 「털 가진 짐승의 날」이라고 하고 그 反對로 뱀, 용等 털이 없는 것의 날을 無毛日 곧 「털 없는 짐승날」이라고 한다. 또 이것으로서 그 해의 豊凶을 占치기도 하니 초하룻날이 「털날」이면 그해는 豊年이 들고 그 反對로 「털없는 날」일것 같으면 그 해는 凶年이 든다는 俗說이 있다.

※ 上子日 鼠火戲

正月 첫 子日을 쥐날이라 하니 特히 農家에서는 이 날에 방아를 쥘으면 그해에 쥐가 없어진다는 俗說이 있으므로 밤 중에 婦女子들이 빈 방아를 쥘는 일이 있다. 또 農村에서는 「쥐불(鼠火)」이라 하여 이 날은 마을마다 靑少年들이 자기네 洞里 附近에 있는 밭에나 논두렁에다 짚을 散布하여 놓고 해가 지면 一齊히 불을 놓아 雜草를 태운다. 불은 四方에서 일어나 壯觀을 이룬다. 이 쥐불의 大小에 依하여 그해의 豊凶 또는 그 마을의 吉凶을 占치기도 하는데 이리하여 이 날은 각 마을이 서로 다투어가며 火勢를 크게 하는 風이 있다. 그리고 他洞 사람들과 마주서게 되면 이 쥐불 놀이로 해서 다툼도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으며 子正이 되면 사람들이 다 自己 마을로 돌아가는데 뜰에 질러 놓은 불은 끄지 않는다. 이날 들판에 불을 놓는 까닭은 鼠害가 甚하므로 쥐를 滅하기 爲함과 田畠의 雜虫을 除去하고 또 새싹을 旺盛하게 함이라고 한다.

※ 上寅日

正月 첫 寅日을 호랑이날이라 하니 이날은 特히 山골 婦女子들이 바깥 出入을 꺼리는데, 理由인즉 이날에 女子가 外出을 하여 남의 집에서 大小便을 하면 그 집 家族이 그 해에 虎患이 있다는 俗說이 있음으로 서이다.

※ 上卯日・命糸

正月 첫 卯日을 토끼날이라 하니 이날은 그 집안의 家長되는 男子가 먼저 일어나 門을 연다. 그런 뒤에 女子가 門밖을 나오게 되는데 만일 女子가 먼저 나와 門을 열면 그 해에 身邊이 不吉하다고 하며 男子가 먼저 나와 열어야 吉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은 무명실을 짜서 옷을 지으면 그 사람의 命이 길다고 해서 特히 婦女子들 사이에는 그 실을 서로 선사로 주고 받고 하니 그 실을 「命糸」「上元糸」 또는 「룻실」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이 命糸란 진 실과 같이 壽命이 길어지라는 뜻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 上辰日・龍알뜨기

正月 첫 辰日을 龍날이라 하니 이날 農家の 婦人들은 서로들 남 먼저 일어나려고 한다. 이것은 이 龍날 밤에 하늘에서 龍이 下降하여 우물속에 들어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은 우물 물을 누구보다도 먼저 길어와서 밥을 지으면 그 해의 自己집 農事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우물 물을 먼저 길어간 사람은 그것을 表示하기 爲하여 지푸라기를 조금 우물 위에 띄워 놓는다고 한다.

※ 上巳日

正月 첫 巳日을 뱀날이라 하니 이날 머리를 빗으면 그해 집안에 뱀이 들어온다는 俗言이 있어 男女 모두 이날은 빗지 않는다.

※ 春祝・春帖子

立春날 各地 各家에서는 大門 欄干 기둥 대들보 등에 祝願한다는 글귀를 붙이니 이것을 春祝이라 하는데 俗說 이를 「立春 붙인다」고 한다. 그런데 喪中에는 이것을 行하지 않게 되어 있어 옛적 이날 대궐 안에는 內殿의 각 기둥과 欄干에다 初하룻날의 延祥詩(承政院에서 侍從 堂下 文臣을 뽑아서 弘文館 提學이 韻을 내어 5言 7言의 律詩와 絶句로써 延祥의 詩를 짓게 하여 이중에 뽑힌 詩)를 帖子에 써서 붙이는데 이것을 春帖子라고 한다.

## 第1編 總 論

立春大吉 建陽多慶 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國泰民安 家給人足 國有雲慶 家無撻玉愁 天上三陽近 人間五福來 百忍堂中有泰和 天下泰平春  
四方無一事 一勤天下無難事

이날 선비들은 시를 짓기도 하며 古人의 아름다운 글귀를 골라 쓰기도 한다.

### ※ 더위 팔기

正月 열 나흘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기전에 개에게는 東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 개목에 동그렇게 하여 걸어 주고 소에게는 원새끼를 파서 목에 매어 주고 「今年에는 더위를 먹지 말아라」하고 나서는 自己도 洞리에 사는 벗이나 親戚들을 찾아 다니며 아무개 하고 사람의 이름을 불러 對答을 하면 「내 더위 사가게」하여 더위를 팔고 만일 對答을 하기 前에 「내 더위 사가게」하면 오히려 사는 수도 있다 한다. 이리하여 해가 뜨기 前에는 서로서로 奔走하게 더위를 팔러 다니는데 이렇게 열나흘날 더위를 팔면 그 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 新年 禾積

시골 農家에서는 대보름 전날 곧 14일이 되면 짚을 묶어서 큰 畸形狀으로 해서 벼, 가장, 피, 조의 이삭으로 싸고 또 綿花 꽃을 긴 장대 위에 썩워 집결에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새끼를 늘어 놓는데 이것은 벼가릿대(禾竿)와 같이 높이 쌓이라는 뜻에서 세우는 것이다. 또 가지 많은 나무를 외양간 뒤에 세우고 五穀의 이삭과 綿花꽃을 걸어 놓고 아침 일찍이 아이들이 일어나 그 나무를 싸고 돌면서 노래를 부르며 當年の 豐年을 비는 것이다. 이 벼 가릿대는 2月初 하룻날 아침 일찍이 내리는데 이때 싸놓은 穀物을 섬에 집어 넣으면서 큰 소리로 벼가 數千石이요, 조가 몇 百石이요, 콩이 몇 10石이요, 팥이 몇 10石이요, 하고 제마음대로 부르면서 올해는 大豊이라고 한다.

### ※ 귀 밝기 술(耳明酒)

正月 보름날 맑은 새벽에 술 한잔씩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며 또는 그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듣는다고 하는 傳說이 있어 이날 아침이 되면 男子와 女子 늙은이와 젊은이가 모두다 한잔씩 마시는데 이 술을 俗稱「귀 밝기 술(耳明酒 膺聾酒)」이라고 한다.

### ※ 부름(腫果)

正月 보름날 새벽에 밤, 胡桃, 銀杏, 잣等 굳은 껍질의 果實을 깨물고 祝辭하기를 「1年 열두달 無事 太平하고 부스럼 腫氣 하나 나지 맙시다」고 하니 이것을 「부름 먹는다」 또는 「부름 켜다」고 하는데 이날 먹는 果實을 總稱하여 「부름」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1年中에는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하는 것이나 一說에는 이를 굳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를 굳게 하는 하나의 術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風習은 隣接한 中國 日本에도 있음을 보는 바이다.

### ※ 雜穀밥·福쌈

대보름날에는 五穀 雜穀으로 밥을 지어서 서로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날 마른 취나 김에 밥을 싸서 먹는데 이것을 「福쌈」이라고 한다.

### ※ 陳菜食

대보름날에는 고사리, 버섯, 호박고지, 외쪽지, 가지껍질, 무씨래기등 햇빛에 말린 것을 물에 잘 씻어서 삶아 간을 쳐서 먹으면 여름에도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陳菜食」이라고 한다.

### ※ 개 보름 쇠기

대보름날은 개를 먹이지 않으니 이날 개를 먹이면 파리가 많이 퍼일 뿐 아니라 개가 파리해

자기 때문이라는 俗說이 있으므로 서다. 이 風習으로 因하여 사람의 굶는 것을 「개 보름 쇠듯」 하였다는 俗說이 생겨났다.

#### ※ 달 맞이

대보름날 初저녁에 農家에서는 왜(炬)를 가지고 東山에 올라가서 달 떠오르는 것을 맞이하니 이것을 달 맞이(迎月)라고 한다. 달이 떠 오르는 것을 보고는 절을 한 다음 곧 왜에다 불을 붙이니 이때에 여기 저기에서 불 빛이 가득 차서 휘황찬란한데 이것을 「달 집 사른다」고 한다. 이날 달빛을 보고 그 해의 일을 占을 치니 달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가 닳을 徵兆라고 하며 또 달이 山 위에 떠 올랐을 때의 形體의 大, 小, 湧, 浮, 高, 低로써 占을 치기도 한다. 또 輪廓과 四方의 厚薄으로써 四方의 年事를 占치는데 北쪽으로 다오면 두메가 豐年을 徵兆고 南쪽으로 치우치면 바닷가에 豐年을 徵兆라고 한다. 李朝 宣朝 때 사람 滄洲 車雲輅의 望月詩에도 이와 같은 內容이 적혀 있어 보나니 여기에 이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豐家正月望 嘗候月昇天 赤疑枯草木 白怕漲淵天 近北豐山峽 差南稔海邊 圓滿深黃色 方知大有年」

#### ※ 연 날리기(紙鳶)

各地의 靑年들은 正月 初하루부터 보름날까지 연 날리기를 하는데 대보름이 되면 「厄鳶 띄운다」하여 鳶에다 厄字 하나를 쓰기도 하고 「送厄」이니 「送厄迎福」이니 여러가지 厄을 써서 날리고는 일례에 감아있는 실을 모두 풀고 일례대 밑에 있는 실을 끊어서 멀리 날려 보내는 것이니 이렇게 하는 뜻은 그 해의 災厄을 멀리 쫓아 보내는 것으로서 이것을 「厄鳶 띄운다」고 한다. 이 연날리기는 靑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大人들도 많이 하는데 다른 鳶과 달리 많이 배어먹는 것을 재미로 하므로 서로를 競技를 많이 한다. 그러므로 鳶糸에다 사기 가루나 陶片細屑로 가미를 먹여 鳶糸에 서술이 있게 하여 鳶을 올릴 때에 탄 鳶을 잘 배어 먹도록 하는 것이니 이것을 갭치 먹인다고 한다. 이 鳶은 그 날리는 이의 能手에 따라 한 곳에 머무르는 일이 없고 세로 가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뒤로 물러갔다 自由自在로 날리는 것이며 競技를 할 때 鳶을 잘 배어 먹도록 하는 것은 鳶을 올리우는 이의 手段에 달리기도 한다. 이 鳶날리기는 대개 대보름 數日前부터 大盛況을 이루고 보름이 지나면 날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보름이 지나서도 鳶을 날리는 이가 있으면 「고리 白丁」이라고 놀려 대고 욕을 하는 것이다. 이 紙鳶을 만드는 方法은 窓戶紙나 또는 좋은 白紙를 접어 크기를 定한 뒤에 한 가운데를 크게 도려서 구멍을 내고 대를 가늘게 깎아서 窓살 같이 뼈를 종이에 붙이는데 먼저 가로 上下를 붙이고 세로 한 가운데를 내리 붙이고 左右 머리를 交叉하여 붙인 뒤에는 종이를 그 鳶에 알맞게 종이로 이마(이마는 대개 半月形과 滿月形으로 한다)와 兩쪽 발을 오려서 붙인다. 그런 뒤에는 色칠을 하는 것인데 이 色칠 모양에서 먹꼬지니, 쟁반이니, 반달홍반달이니, 먹반달이니, 까치 날개니, 5色이니, 바둑이니, 고기비늘이니, 하는 各色을 붙인다. 이 紙鳶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世界 여러나라에서도 存在하는데 韓國 紙鳶은 新羅時代(眞德女王 元年 西紀647)에 이미 存在하였음을 보아 그 起源은 三國時代까지 遡及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다.

#### ※ 洞神祭

各地 各部落에서는 1년에 한번씩 洞神祭를 지내는데 대개 正月 15日 곧 14日 밤 子正이 지나면 各部落에서 洞神祭를 지낸다. 이 洞神祭를 지내는 場所는 대개 部落의 入口 또는 뒷산에 있는 祭壇이나 地方에 따라서는 祠堂을 지어 祭神을 安置해 놓은 곳도 있다. 祭壇은 큰 돌로 쌓아 올린 것으로서 이 祭壇이 있는데도 部落을 지키는 守護神이 들어있다는 神木(古木으로서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휘추리나무, 또는 소나무等)이 있다. 祭主되는 이는 舉祭 3日前에 이 祭壇에 와

서 그 附近一帶을 清潔히 하고 黃土를 퍼고 술가지를 꺾어 새끼에 달아 禁絶을 치놓는다. 역시 祭主의 住宅 門前에도 이와 같이하여 外來者의 出入을 禁하는 것이다. 이 洞神祭를 舉行하는 데는 洞會에서 洞長中에 比較的 年老하고 喪中에 있지 않는 清潔한 이를 選定하여 祭祀를 執行케 하는데 選定된 祭主는 한 週日 前부터 沐浴齋戒하고 肉類를 먹지 않고 喪人과 病者를 만나지 않는다. 또 이 洞神祭를 舉行하기 前날은 洞民들도 되도록 謹慎을 하는 것이다. 祭主되는 이는 正月 14日 저녁 새우를 갈아 입고 洞神 있는 祭壇으로 가서 기름불 또는 촛불을 흰히 켜놓고 밥, 나물, 떡, 魚類, 果實, 술을 차려 놓은 다음 15日 午前 零時 初刻頃이 되면 洞神祭文을 읽으면서 祭祀를 지내는 것이다. 이날 午前中에 祭主는 有司로 하여금 洞民會를 열게 하여 祭費의 支出 및 洞神祭의 狀況을 報告하고 이듬해 祭日 및 其他를 協定한 뒤에 洞會 新任 有司를 選定한다. 이것이 끝나면 祭餐 및 酒食을 나누어 먹는 것이다. 이 洞神祭는 洞民들의 年中 無病과 平穩 無事 및 祈豊에 있다. 지금도 各面村에서는 行하는 곳도 있지만 大概是 中斷되어 있다.

#### ※ 줄 다리기(素戰)

줄 다리기(素戰)는 옛부터(어느時代부터였는지 不分明하나 대단히 오래된 것만은 事實이다) 中部以南 各地方에서 盛行해 오던 習俗으로 대개는 正月 15日頃부터 行하여지는 大衆的 特殊한 意義를 가진 놀이이다. 한 部落이 東과 西로 나누어 여러 집집에서 짚을 모아 두가닥 또는 세가닥의 큰 줄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은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總出動이 되어서 줄을 당기어 勝負를 다투다. 그리고 줄에는 암 솟이 있어 東을 솟줄 西를 암줄이라고 일컬으며 이긴쪽은 그 해의 惡疫에 걸리지 않고 農事는 豊作이 된다고 傳해 오고 있어 사람들은 果然 年年의 豊凶禍福이 한 일에 左右되는 것 같이 생각한인지 喊聲을 지르면서 必死的으로 勝負를 決定하는 것이다. 이 줄다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世界的으로 그 分布 地域은 中國, 蒙古, 日本, 琉球, 버마, 잉글랜드, 아프리카, 에스키모等地이다. 특히 原州는 줄다리기가 年中 第1 큰 行事로 지속되어 왔었으나 지금은 中斷되어 있다.

#### (2) 2月의 民俗

##### ※ 中和節과 中和尺

지금은 없는 일이지만 2月 初하룻날은 御前에서 王의 자(尺)를 宰相과 侍從하는 臣下에게 나눠주어 中和節임을 알리었다. 이 자는 얼룩이가 진 무늬 있는 斑竹이나 或은 붉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이 中和尺을 나누어주는 뜻은 農業에 힘 쓰게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며 李朝 正祖 때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 ※ 술 떡

正月 보름날 세웠던 벼장매(禾竿)의 穀食을 2月 初하룻날 내려서 흰 떡을 만들어 먹는데 술잎으로 격지를 놓아 찌서하므로 이것을 「술떡(松餅)」이라 한다. 떡을 만들기를 큰 것은 주먹만하고 작은 것은 달걀만큼씩 한데 콩 또는 전 팔으로 속을 넣고 시루에다 술잎을 깔아 놓아 찌서 꺼내어 맑은 물에 씻고 참기름을 바른단다. 이날 이 떡을 奴婢들에게 주어서 그나이 數대로 먹이니 이날을 奴婢日이라고 하는데 最近年에 와서는 이 風俗은 漸次로 없어져가고 있다. 생각컨대 이것은 農事를 始作할 때가 되므로 해서 奴婢를 爲함일 것이다.

##### ※ 줌생이 보기

줌생이는 昴星(宿)의 俗稱으로서 2月 初6日 초저녁에 줌생이와 달의 거리를 보아서 年中의 吉凶을 占察하는데 이것을 「줌생이 본다」고 하며 이것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民間에 普遍的 占候術의 하나이다. 줌생이는 昴宿(플레아데스=牡牛座에 있는 星團의 하나라서 肉眼으로는 여섯個 또는 10餘個의 별을 셀수 있음. 望遠鏡으로는 百個 以上이 보이고 寫眞으로는 2千個 以上이 撮影된다고 함)

의 俗語로서 여러 별이 좀으작 하므로 해서 이렇게 좀생이 보는 法은 좀생이가 달과 나란히 가거나 좀 앞서서 한자 以內에 있으면 吉하고 만일 先後가 너무 멀면 凶年이 들어 어린아이들까지 거두어 먹이지 못 한다고 하는데 대개 증험이 맞는다고 한다.

### ※ 上丁日

2月の 上丁日을 맨 첫번의 干支의 丁에 該當하는 날로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各地 文廟에서는 祭享을 行하니 이것을 「春期文廟釋奠」이라고 한다. 文廟란 孔子 및 其他 名賢의 位牌를 安置한 곳으로서 대개 各郡에는 하나씩 있다.

이 文廟釋奠은 春秋로 두번 하며 가을에는 8月 上丁日에 한다. 이날이 되면 儒生들이 文廟에 모여서 大祭를 行하니 司祭는 3獻에 나누어 初獻은 그 고을의 守令 亞獻 및 終獻은 그 地方에서 德望 있는 이가 여기에 當한다. 그리고 大祝은 祝文을 읽고 奉者는 香爐를 받들며 執禮執事는 그 外 여러가지 雜役을 設備한다. 이 大祭를 行할 때는 소 돼지와 밥을 배풀어서 威儀를 갖추어 嚴肅하게 지낸다.

### ※ 꽃샘(花妬忌)

2月中에는 바람과 비가 차서 마치 겨울 같으므로 이 때를 「꽃샘」이라고 한다. 俗說에 「2月 바람에 큰 독 얼어터진다」고 하며 또 「꽃샘에 설늪은이 얼어 죽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2月中에 얼마나 찬 바람이 대단한가를 可히 알 것이다.

## (3) 3월의 民俗

### ※ 3 日

3月 3일은 보통 삼월 삼짇날이라고 하는데 또는 上巳라고 하며 元巳라고도 하고 또 上除라고도 한다. 이날에는 진달래꽃을 뜯어서 찹쌀가루에 반죽하여 참기름을 발라 가면서 둥글게 지져서 먹으니 이것을 「花煎」이라고 한다. 또 篆豆가루를 반죽하여 익혀서 가늘게 썰어 五味子물에 넣고 또 꿀을 타고 갖을 넣어서 먹으니 이것을 「花麵」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時食으로써 祖上 祭祝에도 使用한다. 이날에는 各村落 書堂의 儒生들이 山으로 올라가서 花煎을 지져 먹으면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낸다. 李朝 宣朝 때 文人 東岳 李安訥이 3月 3일을 읊은 時에 「即欲踏青去 其於垂白何 春風變楊柳 曉雨濕桃花 相議意中少 所懷心上多 壙閑歌簡閑 處處鬪葉華」라고 記錄되어 있다. 3月 삼짇날에는 9月 9일에 江南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고 하며 또 이날에는 나비도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만일 흰나비를 볼것 같으면 그해에 喪服을 입게 된다고 하며 호랑나비를 볼것 같으면 그 해의 運이 吉하다고 하는 말이 傳해온다.

### ※ 寒食

冬至로부터 105日째 되는 날이 寒食日인데 清明節 後 1일이 되며 或은 清明節과 같은 날이 되기도 하며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이날은 술, 과일, 나물, 떡, 魚肉等 여러가지 飮食을 만들어 가지고 山所(祖上墳墓)에 가서 墓所를 行하니 이것을 「省墓」라고 한다. 山所가 먼 데에 있는 사람은 墓直에게 돈을 주어 代身祭를 지내게 하는 수도 있다. 이날은 대개 낮을 보자기에 싸서 들고가서 墓地 周邊의 풀을 베는데 이풀을 「改莎草」라고 한다. 이 寒食의 起源에 關하여는 中國 晉나라 忠臣 介子推가 불에 타 죽음을 불쌍히 여겨서 이를 吊慰하는 故事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는 造作 野說에 지나지 않으며 「劉向別錄」에 「寒食踏蹴 黃帝所作兵勢也」라고 있음을 보아 이 寒食은 벌써 그 以前에 있었음을 可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寒食의 起源은 생각컨대 古代 季春에 불에 關한 禮俗에서 나온것이라 생각한다.

### ※ 春節 時食

옛날 司龜院 官員이 葦魚를 漢江에서 蘇魚를 安山바다에서 그물로 잡아 大關에 進上하는데



## 第1編 總 論

이때가 되면 생선 장사가 蘇魚와 葦魚를 끓여지고 거리로 돌아 다니면서 판다. 관묵과 연한 쑥을 한데 끓여 먹으니 이것을 「애湯」이라고 하며 籩豆와 청포를 쭈어 썰어서 豚肉과 미나리와 김(海苔)을 섞어 넣어서 초醬에 묻혀서 서늘하게 하여 먹으니 이것을 「蕩平菜」라고 한다.

### ※ 春節의 떡

봄철의 떡으로서 찹쌀로 흰 떡을 하여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속에 팥을 넣고 떡에다 5色을 붙여서 다섯個를 잇달아 마치 구슬 편것 같이 한다. 작은 것은 다섯個 색이요 큰것은 세個씩으로 하니 「산떡(餠餅)」이라 한다. 또 찹쌀과 송기와 쑥을 넣어서 떡을 하니 이것을 「고리떡(環餅)」이라 한다.

### ※ 春節에 먹는 술

봄철에 먹는 술로서 술집에서는 봄철에 먹는 술을 빚으니 小麵酒, 桃花酒, 松筍酒, 三亥酒, 過夏酒 등이 有名하고 關西의 甘紅露, 碧香酒와 海西의 梨薑酒 湖南의 桂當酒와 그리고 湖西의 魯山春, 瑞香露 등이 다 佳品이다. 그리고 四馬酒는 네번째 午日에 거듭 맺는 술이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술은 한 해를 지나도 變하지 않기로 有名하다. 李朝 宣祖 때 文人 李 東岳이 南宮績의 四馬酒 試飲會에 가서 詩 한 편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君家石酒貯經年 釀造應從王雉傳」

### ※ 花柳 놀이

꽃과 버들은 3월이 한창이니 날이 和暢하고 마른나무 가지에는 새싹이 돋고 산과 들에는 푸르고 붉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마을이나 동네 사람들은 기뻐하며 어느 하루를 擇하여 가지고 물 있고 景致 좋은 山으로 가는 것인데 대개 늙은이는 늙은이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끼리 婦人네들끼리 한 패를 지어서 놀이를 가니 이것을 「花柳 놀이」라고 하는데 地方에 따라서는 「꽃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한다. 이 놀이를 가는데 있어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제가끔 얼마간의 會費를 거두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네들끼리 제가끔 즐기고 좋아하는 飲食을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갔던 것이다. 이와 같이 山기슭이나 山谷間에서 하루를 즐기고 해가 西山으로 기울어지려 할때 철쭉꽃을 꺾어 들고(이것을 꽃방망이라고 한다) 33 55 짝을 지어 長短을 치면서 打興을 하며 내려 오는 것이다. 이 꽃놀이는 一般的인 民俗으로 옛날서부터 盛行하여 오는 것이나 지금도 陰曆 3월이 되면 各地 各處 山野에 꽃놀이가 盛行한다. 原州에서는 花田놀이라고도 한다.

### ※ 각시 놀음

각시는 색씨를 말함인데 해마다 3월이 되면 제집아이들이 풀을 뜯어서 대나무쪽에다 풀끝의 머리를 실로 매고 머리를 땅아 가노다란 나무로 족을 찌고 형질 조각으로 대쪽에다 노랑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만들어 입히어서 새각시 모양으로 하고, 요, 이불, 벼개, 병풍을 베풀어서 장난들을 하고 노니 이것을 「각씨 놀음」이라고 한다.

### ※ 호드기 불기

사내 아이들이 물 오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비틀어서 껍질을 통해 뽑고는 속 뼈는 내취하고 그 껍질로서 피리를 만들어 불고 돌아다니면서 논다. 「호들기」라고도 한다.

### ※ 풀 씹

대개 農村 아이들이 여러가지 풀을 캐어 서로 이름을 불러서 맞춤 내기를 하니 이것을 「풀 씹」이라고 한다.

### ※ 養 蠶

해마다 3월이 되면 一般 農家에서는 뽕 잎사귀를 따서 蠶飼를 시작한다. 養蠶의 起源은 上古時代부터 비롯한 것이나 李朝 國初에 種桑法을 頒布하였으니 大戶에는 300本 中戶에는 200本



小戶에는 100本으로 規定하였는데 規定대로 桑本을 植栽하지 않은 이는 嚴罰에 處하였으므로 李朝 末期까지는 坊坊谷谷 뽕나무 없는 마을이 없었고 누에 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이 養蠶은 女子들이 全的으로 맡아서 하였는데 大闕內에는 後妃들의 親蠶制가 있어서 해마다 3월이 되면 王后가 命婦를 거느리고 親히 後苑의 桑壇에 이르러 뽕 잎사귀를 따다 禮를 行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옛날부터 蠶業을 重要視하여 百姓들에게 獎勵하였음을 可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 弓 術 會

해마다 3월이 되면 各地의 閑良들이 어느 날을 擇하여 亭子에서 편을 짜서 弓術會를 연다. 이 활을 쏘 때에는 妓生들이 華麗한 옷을 입고 활 쏘는 閑良들 뒤에 나란히 열을 지어 서서 소리를 하여 활 쏘는 이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 쏜 화살이 관역에 바로 마치면(바로 마치고 안마치고는 관역 옆에 사람이 서 있어 旗로써 信號를 하여 이를 알린다) 이 때에 妓生들이 「지화자!」라는 노래를 하면서 한 바탕 춤을 추는 것이다. 이 弓術會는 옛날부터 全國的으로 行하여져 오는 風俗의 하나로서 往年까지 이 大會 때에는 男女老少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大盛況을 이루었다. 해마다 두번씩 여니 가을에도 한다. 原州에는 鶴鳳亭이라는 이름의 弓道會가 있어 全國大會도 유치한다.

### ※ 餞 春

3月 그믐날 詩人 墨客들이 서로 불러 모여서 酒食을 가지고 山谷 江亭에서 詩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醉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즐겨 보내니 이것을 「餞春」이라고 한다. 李朝 正宗 때 사람 申 紫覆는 「今年花似去年春 花落年年惜別新」이라는 이날의 餞春을 읊었다.

### (4) 4월의 民俗

#### ※ 浴 佛 日

4月 初8일은 釋迦牟尼가 誕生한 날인 故로 「浴佛日」이라고 하여 寺女들은 새옷을 찾아 입고서 附近的 寺刹로 가는데 各地寺刹에서는 큰 齊를 울리고 各殿에 燈을 켜다. 그리고 이 날 저녁을 「燈夕」이라고 하여 저녁이 되면 家家戶戶에 燈을 켜달아서 밝게 하는데 數日前부터 집집이 燈대(竿)를 세우고 대밭에다 평의 꼬리를 묶고 물드론 비단(色帛)으로 旗를 단다. 그런데 집이 가난하여 燈대를 세우지 못하는 집에서는 처마나 나무가지에 燈을 달기도 한다. 이 燈夕 行事는 그 이튿날 9일에는 그치는데 奢侈하는 집에서는 큰 대를 數10個씩 얹어 매어 쓰기도 하고 或은 해와 달의 形狀으로 만들어 꽂아서 風勢에 따라 굴러 돌게 하기도 하고 或은 굴러 돌아다니는 燈(轉燈)을 매달아서 그 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마치 彈丸이 달아나는듯 하기도 한다. 그리고 或은 종이에다 火藥을 써서 이것을 노끈 또는 새끼에 얹어매어 불을 땡기면 터져서 꽃불같이 비오듯 하게 하기도 하고 或은 종이에다 龍을 만들어 바람에 날려 띄우게 하기도 하며 혹은 傀儡를 만들어 옷을 입히게 얹어매어서 搖動케 하여 놀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 各店舖에서는 燈台를 서로 높이 하려고 다투어 勝負삼아 만들기도 한다. 이날밤 燃燈하는 燈籠의 形狀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수박燈, 日月燈, 거북燈, 蓮花燈, 鶴燈, 잉어燈, 향아리燈, 七星燈, 마야燈 等 그 種類가 많다. 이날 燈을 켜는 風俗은 新羅 中葉에 八關會를 始作하므로 부터 始作이 되어 高麗 때에 매우 極盛하였으며 李朝에 이르러서는 儒敎가 旺盛한 結果 佛敎를 排斥함에 이르러 漸次 佛敎上의 信仰은 없어 갔었지만은 各 家庭에서는 如前히 燈籠을 매달아 景觀을 보였었는데 近年에 와서는 寺刹 아닌 民家에서는 보기가 드물게 되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地方에 따라서는 數10年前만 해도 觀燈하는 저녁에는 前例를 따라 밤 새도록 男女老少가 燈불이 환하게 매달린 거리를 길이 메이게 돌아 다니면서 求景을 하였다. 高麗 仁宗 때 사람 金 富弼이 이날 燈夕을 보고 지은 詩에,

「城闕沈嚴更漏長 燈山火樹燦交光

綺羅繡縵春風細 金碧鮮明曉月涼

華蓋正高天北極 玉爐相對殿中央

君王恭默疎聲色 弟子休誇百寶粧」이라 하였고 또 高麗 明宗 때 文人 李仁老는,

「電鞭初報一聲雷 春色之凝萬歲盃

銀燭影中寒漏水 玉簫聲裏暖風催

仙桃帶露枝偏重 瑞萊含烟葉盡開

輦路月門糸管沸 翠眉爭唱紫雲廻」라고 이날의 燈夕을 읊었다.

#### ※ 4月の 時食

이날의 時食으로 蒸餅, 花煎, 魚菜, 魚饅頭, 미나리, 강희 등이 있다. 蒸餅은 찹쌀 가루를 반죽하여 방울같이 빚어서 솥에 쪄다. 그리하여 팔속에다 꿀이나 설탕을 섞어서 방울 속에 넣고 또 방울 위에는 대추를 붙이는 것이다. 魚菜는 생선 菊花 잎사귀나 파, 石莖, 점복, 달걀 등을 가늘게 썰어서 섞은 것인데 여기에 초장과 기름을 쳐서 먹는다. 魚饅頭는 생선을 두껍게 저며 그 조각에다 고기를 넣어서 익힌 것이다. 미나리 강희는 미나리를 삶아서 파 하나 마늘 하나를 함께 하여 고추 모양으로 깎아서 회를 하는 것인데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 (5) 5月の 民俗

##### ※ 端 午

5월 5일은 우리말로 「수취」 또는 端午, 天中節이라고 하여 年中 4大 名節의 하나로서 各家庭에서는 「端午茶禮」라고 하여 이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러가지 飲食을 작만하여 家廟에 祭祀를 지내며 男女가 다 새옷을 갈아입고 서로 부르고 모여서 하루를 즐긴다. 5월 5일인 端午를 「수취날」이라고 하는데 있어 京都雜誌나 東國歲時記의 記錄이 거의 같으니 그 解釋인즉 端午를 俗名 戌衣날이라고 하여 戌衣라는 말은 車 곧 수레의 뜻이고 이날 쪽잎을 爛搗하여 쌀가루에 넣고 푸른빛이 나게 하여 수레바퀴 形象으로 만들어 먹으므로 해서 戌衣日(수취날)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제 前記 두 記錄을 보면 다음과 같으니 京都雜誌에 「端午俗名戌衣日 戌衣日戌衣者東語車也是日作艾糕象車輪形食之故謂之戌衣日」이라고 記錄되었고 東國歲時記에는 「端午俗名戌衣日 戌衣者東語車也 是日採艾葉爛搗入梗米紛發綠色打而作糕象車輪形食之故謂之戌衣日」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그리고 端午의 五는 古文의 午와 通用되는 字이므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5월 5일의 5는 奇數이니 이 奇數는 中國 哲學의 陰陽學에 있어서는 이를 陽數가 접치는 날은 대개 名節로 삼았다. 또 天中節이라 함은 이날이 1年中에서 陽氣가 映盛한 때이므로 이렇게 부르게 된듯 하다.

##### ※ 菖蒲湯과 菖蒲비녀

端午日에 男女 兒童들은 菖蒲 삶은 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고 紅綠의 새옷을 갈아 입는다. 그리고 菖蒲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거가다 「壽福」이란 두글자를 새기고 그 끝에 麝脂를 발라서 머리에 꽂는다. 이것은 邪鬼를 물리친다 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를 「端午빔」 또는 「端午염」이라고 한다. 歲時雜記에도 端午에 菖蒲를 새겨 小人形象이나 葫蘆의 形象을 만들어 차면 辟邪를 한다 하였다.

##### ※ 그 네 뒤키

그네뛰기 곧 鞦韆은 5월 端午날 主로 女子들의 遊戲로서 各地 各處에 크나큰 버드나무 가지에 새끼를 꼬아 줄을 매어서 그네를 만들어 뒀다. 綠陰이 짙은 사이에서 빛깔이 찬란한 옷을 입은 젊은 女子들이 그네를 뛰는 모양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나르는것 같고 또 仙女들의 놀음

같이도 보인다.

이 그네뛰기를 읊은 古詩에,

「非天非地半空中 青山綠水自進退

形如二月落花來 容似三月飛去燕」

이라 하였고 近代 名詩人 黃 綠次의 지은 鞦韆詞는,

「新嫁娘言嫁娘 皇姑皇舅福應長

爲吾好送令端午 百尺青糸繫綠楊」

이라 하였으며 李朝 正宗때 文人 申 光洙의 關西樂府에 平壤 端午 12首를 보면 다음과 같다.

「青苧裙白衣 一時端午著生輝

桐花別院鞦韆索 推送空中貼體飛

村女紗裙玉指環 天中祭墓大成山

夕陽長廈門前路 皆著深深荻笠還

桃鬟鵲額紛紅裳 列侍輕盈時體粧

爭趁雙飛向蝴蝶 石榴花下捉迷藏」

#### ※ 씨름 대회

端午의 男子 遊戲로서 各地 各處에서 씨름大會를 연다. 이 씨름은 上古時代로 부터 國內 各處에서 盛히 行하던 것으로서 장정들이 넓은 마당에서 씨름하여 勝負를 다툰다. 그 하는 方法은 두사람이 마주 꿇어 앉아서 各其 오른손으로서는 相對方의 허리를 잡고 또 왼쪽 손으로서는 相對者의 오른쪽 다리를 잡는다. 이렇게 彼此 準備가 다 되면 一時에 일어서서 서로 들고 걸고 들어던져서 먼저 넘어지는 者가 지는 것이다. 이 씨름을 하는때는 배지기(內局) 등지기(外局), 탄족거리(輪起), 무릎재비, 꼭두재비, 안니기 등의 여러가지 法式이 있으며 그 中에서 特히 힘이 세고 손이 빠르고 하여 連戰連勝하는 者를 판막음(都結局) 또는 판매기라고 한다. 中國人들은 이것을 「高麗技」라고도 하고 或은 「撓跤」라고도 하여 본받아 行한다. 이 씨름은 端午뿐 아니라 農閑期에는 農民本位의 遊戲로서 盛行하는데 鄉村에서는 흔히 1等賞으로 農牛 한마리를 주고 그 外에는 廣木等 農家의 生活 必須品을 준다. 씨름은 漢文으로 角戲, 角力, 角抵, 角觔라고 하며 또 豈尤戲 相撲이라고도 쓰이는데 여기에 關한 記事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高麗때 부터이다.

#### ※ 端午 부채

옛날부터 李朝 末期까지는 해마다 端午날에 工傭에서 부채를 만들어 進上하였으니 이것을 宰相과 侍從하는 臣下와 掖庭所屬에 까지 나누어 주었다. 부채의 가장 큰 것은 竹幅이 최고 50살(矢)이나 40살이 되는 것을 白貼이라 하고 옷(漆) 칠한 것은 漆貼이라고 한다. 이런 부채를 받은 이는 흔히 그 부채에 金剛山의 1萬2千峰 그림을 그리어 가지기도 하고 또 近俗에는 桃花, 蝴蝶, 芙蓉, 白鷺 등을 그려 가지기도 한다. 또 湖南 嶺南의 方伯및 節度使의 外官도 各其 그곳 特產品으로서 부채를 宮中에 進上하고 또 朝官과 親知에게 선사하였다. 그리고 부채를 生産하는 各邑의 守令들도 이와 같이 宮中에 進上하고 서울 近處에 선사하는 風俗이 있으니 그 中에서도 全州 南平과 羅州에서 만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쳐주었다.

부채의 種類는 債頭扇, 魚頭扇, 蛇頭扇, 合竹扇, 斑竹扇, 外角扇, 內角扇, 三臺扇, 二臺扇, 丹木扇, 彩角扇, 素角扇, 廣邊扇, 狹邊扇, 有環扇, 午環扇, 竹節扇, 太極扇 등 여러가지가 있어 그 만드는 樣式 各其 다르고 그 빛깔은 자주, 유록, 분홍, 鴉青, 雲暗, 石磯, 白, 黑, 赤, 靑等 여러가지가 있다.

普通 부채는 白, 黑 2色으로서 여름에 使用하는 것이나 婚禮때에는 어느 季節이고 遮面用으

로서 이것을 使用하였다. 新郎은 靑色, 新婦는 紅色, 喪人은 白色, 그外에 빗같은 一般 男女 小兒가 使用한다.

團扇에도 5色이 있고 그 形狀이 桐葉, 蓮葉, 蕉葉의 여러가지가 있으며 男子들은 대개 집안에 서만 使用하고 外出할 때는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며 普通 女子와 아이들이 이 團扇을 많이 부친다.

또 團扇에는 色종이로 竹幅을 크게 하여 輪扇으로 만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자루가 있어서 마치 陽傘같이 피어 햇빛가리는 데도 쓰며 또 자루가 길다란 團扇은 파리나 모기를 쫓는 데도 使用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蕉葉形象으로서 크게 만든 것은 大臣이나 富豪들의 儀飾物로 使用하는 것이다. 그리고 斑竹皮로서 뼈를 만들고 거기다 紅色絹을 붙이고 5色の 珠貝로 裝飾하여 만든 것이 있으니 이것은 新婦가 使用한다. 또 巫女나 倡優들은 歌舞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채를 손에 쥐므로 그들은 이 부채가 日常 所持品으로서 色彩가 찬란한 것으로서 桃花, 蘭草, 蝴蝶 등의 그림이 있는 것을 使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明나라 太宗에게 접는 부채를 선사한 일이 있었다. 明 太宗은 그 접어지고 펴지고 하는 것을 좋아 하여 尙方에 命하여 이를 모범하여 만들어서 撤扇 또는 高麗扇이라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 ※ 天中赤符

端午日 各家庭에서는 不吉한 것을 除去하는 뜻으로 朱砂로 辟邪文을 지어서 門 위에 붙이는데 이것을 「天中赤符」이라고 하며 或은 「端午符」라고도 한다. 옛적 觀象監에서는 해마다 端午日에 朱砂로 天中赤符라는 赤符를 박아서 闕內에 올라 얹는데 이것을 門위에 붙였었다. 그 글은 「5月 5日 天中之節에 위로 天祿을 얻고 아래로 地福을 얻는다. 豈尤의 鬼神은 구려 머리오 죄 이마다 붉은 입과 붉은 혀로 404가지 病을 一時에 消滅하라 律令 같이 急急할 지어다」하였다. 이 天中赤符는 桃印으로 惡氣를 除去한다는 端午의 옛制度에서 온 것이다.

### ※ 쑥과 益母草

해마다 端午日 午時(正午)에 쑥과 益母草를 캐어 말리어서 藥用에 쓴다. 쑥과 益母草는 漢藥에 많이 쓰이는 것인데 傳하는 말에 5月 5日の 午時에 캐어서 그늘에 말린것이 아니면 藥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原城郡 貴來面 貴雲里에서 나오는 쑥이 藥効가 좋다고 한다.

### ※ 대추나무 시집 가기

해마다 端午日에는 시골 農家에서 대추나무를 시집 보낸다 하며 대추나무 兩쪽 가지 사이에 작으마한 둥근 돌을 끼어 놓는다. 이와 같이 하여 端午日 午時에 대추나무를 시집보내면 대추가 많이 연다고 하여 이러한 風習이 있다. 또 「花樹新栽」에 依하면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에는 端午日의 午時가 좋고 또 「端午日에 도끼로써 여러 과일나무의 가지를 내려 치면 結實이 많다」하였다.

### ※ 太宗雨

5月 10일에 비가 오면 農家에서는 그 해에 豐年이 들 징조라고 하여 좋아 한다. 이날에 오는 비를 俗稱 太宗의 비라고 하니 그것은 이날이 李朝 第3代 太宗王의 忌辰으로서 王이 臨終時에 날이 몹시 가쁜 것을 민망하게 여기어 말씀하시기를 「내 마땅히 上帝께 請하여 비 내리기를 빌어서 우리 百姓들에게 恩惠를 입히리라」하시고 崩御하시자 沛然히 비가 내렸다. 그리하여 그 뒤해마다 이날이 되면 비가 오므로 이날의 비를 「太宗의 비」라 하였다.

### ※ 鳳仙花 물 들이기

5月이 되면 少女들은 장독대나 울타리 밑에서 피는 鳳仙花꽃을 따서 白礬을 섞어 손톱에다 물을 드린다. 이 習俗은 아마도 辟邪의 뜻에서 나온것 같다. (赤은 邪鬼를 물리친다는 五行說에서)

## (6) 6월의 民俗

## ※ 流頭日

6월 15일은 流頭日이라고 한다. 해마다 이날은 各地 사람들이 酒食을 가지고 맑은 시내 또는 山間瀑布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며 술마시고 놀면서 하루를 서늘하게 해를 보내니 이것을 「流頭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厄을 除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高麗 熙宗 때 사람 金 克己 文集에 依하면 「東部遺俗六月望日谷髮於東流水, 祓除不祥因爲稷飲謂之流頭宴」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新羅 때부터의 習俗인 것이다.

## ※ 流頭薦新

이날 아침 各家庭에서는 밀국수와 水團 乾團 그리고 피, 조, 벼, 콩 등 모든 穀食을 참외 其他 新果와 함께 이것을 家廟(祠堂)에 바치고 祭祀를 行하니 이것을 「流頭薦新」이라고 하며 農家에서는 年中 農事가 잘되어 달라고 農神에게도 祭祀를 지내는 것이다.

## ※ 流頭日 飲食

이날 家廟에 流頭薦新하고 나서는 一家가 단란하게 流頭麵, 水團, 乾團, 또한 霜花餅等 여러가지 飲食을 먹는다. 流頭麵은 밀가루로 면을 만들어 男女老少가 다같이 먹는데 이렇게 해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은 밀가루로서 구슬같이 만들어 5색물을 들이고 세個씩 포개서 色칠로 꿰어 이것을 차기도 하고 제앙을 쫓는다 하여 或은 門위에 걸기도 하였다) 水團과 乾團은 쌀가루를 찌서 길게 빚고 또한 가늘게 썰어 구슬같이 만들어 꿀물에 담그고 얼음 물을 넣어서 먹는 것이 水團이고 어름물에 넣지 않고 먹는 것이 乾團이다. 그리고 霜花餅은 밀가루에다 물을 붓고 반죽하여 콩가루와 깨를 섞어서 꿀물에 버무려 찌서 먹는다.

## ※ 三 伏

夏至로부터 세째 康日을 初伏 네째 康日을 仲伏 立秋로부터 첫째 康日을 末伏이라 하니 이것을 3伏이라 하는데 3伏이라 하면 여름中에서 가장 더운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伏中에서 대개 炎暑를 避하여 酒食을 가지고 물가 또는 山間 瀑布水 있는 데에 가서 잔을 주고 받으며 더위를 보내기도 하여 濫足이라 하여 山間 溪谷물에 발을 잠그면서 하루의 더위를 잊기도 한다. 또 이날에 팔죽을 쑤어 먹으면 더위를 먹지도 않고 病에 걸리지도 않는다 하여 모두들 쑤어 먹으니 이는 退暑 避邪의 뜻이며 또 고사리와 목은나물 여러가지를 넣어 개장을 끓여 먹으니 이는 더위를 물리치고 또한 虛弱함을 補하기 위함이다.

## ※ 鷄 蔘 湯

三伏더위에 鷄蔘湯을 먹으면 元氣가 있고 또 年中에 疾病에 걸리지 않는다 하여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 鷄蔘湯이란 닭을 잡아 털을 뽑고 배를 따서 창자를 낸 뒤 그속에 人蔘과 참살 한합 대추 4~5個를 넣어서 푹 고아서 그 국물을 먹는 것이다.

## ※ 遷 暑

伏中에는 대개 家族 또는 親舊끼리 한 패를 짜서 海邊으로 또는 山間 藥水터로 避暑를 가는데 대개 山間에 가서는 藥水를 마시고 海邊에 가서는 海水浴 或은 모래 점질을 하는 것인데 이때가 되면 名勝地로 四方에서 避暑客이 모여들어 대단한 번잡을 이룬다.

## ※ 農 樂

6월 除草期間인 農繁期에는 農樂이 盛行하니 이는 各마을마다 農民들이 組織한 農樂隊로서 隊員 서로가 農作을 차례로 도와가는 것인데 아침 일찍이 일터로 나갈때나 논두렁에서 논두렁으로 옮길때나 해가 저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農旗를 先頭로 하고 징, 팽파리, 북, 피리, 젓대 등의 樂器를 쳐 울리고 또는 춤을 추면서 걸어가는 것이며 이것을 俗稱 「農樂」 또는 「農夫놀이」라

## 第1編 總 論

고 한다. 이것은 하루의 勞苦와 慰安과 情誼를 풀고 두터이 할뿐만 아니라 일의 能率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다. 只今は 거의 없어져 가고 있으나 部落의 遺物로 있는 곳도 있다.

### (7) 7月의 民俗

#### ※ 7 日

이날은 各地 各家庭에서 옷과 冊을 널에 쪼이는데 이는 오랜 옛날부터의 習俗으로서 여름 장마 뒤에는 으레히 축축하고 곰팡이가 나므로 하는 일인데 이것을 「曬書曝衣」이라 한다.

#### ※ 七 夕

이날 저녁을 七夕이라고 한다. 이날밤 處女들은 牽牛 織女 두별을 보고 질하여 바느질이 늘기를 빌기도 하며 文士들은 이날밤 이 두별을 題目으로 하여 詩를 짓기도 한다.

李朝 中宗때 사람 慕齊 金 安國이 지은 「七夕」이란 詩을 보이면 이러하다.

「鵲散鳥飛事已休 一宵觀會一年愁

淚傾銀漢秋波潤 腸斷瓊樓夜色幽

錦帳有心邀素月 翠簾無衣上金鉤

只應萬劫空成怨 南北迢迢不自由

믿을 수 없는 웃스운 이야기이나 傳해오는 말에 牽牛星과 織女星은 銀河라고 하는 天河의 東쪽과 西쪽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다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만날수가 없으나 해마다 이날이 되면 烏鵲이 놓은 다리로서 銀河를 건너 가서 서로 맞난다고 하며 또 七夕날에 까마귀와 까치가 하늘 위 銀河에 가서 烏鵲橋 다리를 놓기 때문에 이날 땅위에는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고 하는 말이 傳해 오고 있다. 이는 아마도 中國 「齊諧記」란 冊에서 보고 한 말에서 이런 말이 우리 民間에 傳해오는 것일 것이다.

#### ※ 百 種 日

7月 15日을 百種日 百中節 또는 中元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男女가 서로 모여 온갖 飲食을 갖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노는데 地方에 따라서는 씨름대회 장치기(手搏)等 技戲를 내기도 한다. 이날 僧侶들은 各 寺院에서 齋을 올리는데 부처에게 백가지 實果과 나물을 갖추어서 供養을 하며 그러므로 이날 이름을 百種日이라 하였다. 생각컨대 이 百種日이란 新羅 固有의 嘉俳日의 한 行事와 또 佛教가 隆盛했던 新羅, 高麗 兩時代에는 僧侶 俗人 할것 없이 다 같이 부처의 供養을 盛히 하였던 것이 李朝에 들어와서는 民間에서 佛供하는 風俗은 거의 없어지고 오직 僧侶들이 寺院에서 修學됨을 볼 뿐이다.

#### ※ 호 미 씻 기

오랜 옛날부터 해마다 이날에 各部落의 農夫가 제각기 應分의 酒食을 내어서 시냇가나 또는 산밑 나무 그늘밑에 모여 앉아서 酒食을 같이 하면서 醉하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징, 팽파리, 날날이북, 장고等を 쳐서 춤을 추면서 진탕하게 하루를 한껏 노는데 이것을 「호미씻기」라고 하니 그 뜻인즉 이때에 논밭의 김을 다 맨고로 호미를 씻어두고 놀으므로서이다. 그리고 그 村落에서 그해 農事가 잘된 집이 있으면 그집 머슴을 뽑아 여러 머슴中에서 우두머리로 삼아서는 그 머슴에게 샷갯을 써우고 황소에다 태워서 여러 머슴이 에워싸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村落으로 돌아다니는데 이때 그집 主人은 이것을 보고 酒食을 내어 잘 먹었다.

#### ※ 삼 삼기(續麻)

7月 15일부터 農村 各部落의 婦女子들이 數10名씩 1團이 되어 삼을 삼는데 每日 저녁 1團이 된 各 사람의 집을 順次로 오늘저녁은 모두 저집으로 가서 저집 삼을 삼고 내일저녁은 이집으로 가서 이집삼을 삼고 이렇게 번갈아 돌레 돌레 돌아가면서 삼을 삼는 것을 「돌레삼(協同

續麻)」이라고 한다. 이렇게 돌레삼을 하는 뜻은 各家庭에서 한사람이 제각기 따로 하게 되면 能率이 나지 않을 뿐더러 또 時日이 오래 걸리므로 이렇게 數10名씩 集團이 되어 協同하여 우스운 이야기나 노래를 부르면서 삼을 삼으므로 일은 절로 그리 힘들지 않고 쉽게 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돌레삼에 協同하는 婦女子들은 모두 自己 일로 생각하여 誠意을 가지고 힘껏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新羅때부터의 習俗이었으니 그 자세한 것이 「三國史記」에 記錄되어 있음을 본다(8月 15日 「가위」參照)

### ※ 파 리 불 기

7월에는 파리들이 많이 열리므로 少女들은 이때를 當해 다투어 그 열매를 따서는 가운데 모듬을 바늘로서 구멍을 내어 껍질이 상하지 않게 살금살금 속을 꺼내 버리고 껍질 구멍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어 동그랗게 한뒤 입안에 넣고 이로서 가만히 누르면 빠드득 하는 소리가 누를 때마다 계속해 나는 것이다. 이것을 파리 분다고 한다.

### (8) 8월의 民俗

#### ※ 上 丁 日

上丁日은 2월의 上丁日과 마찬가지로 이 달의 제일 첫번의 干의 丁에 當하는 날로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各地 文廟에서는 祭享을 行하는데 이것을 「秋期文廟釋奠」이라고 일컫는다. (24 春期文廟釋奠을 參照)

#### ※ 1 5日

이날은 「秋夕」 또는 「8월 한가위」라고 하는데 이날은 黃鷄 白酒로 이웃이 배부르게 먹으며 醉하고 온갖 遊戲를 하면서 한껏 즐긴다. 이 「가윗날」의 起源은 續麻考査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對하여 「三國史記」 卷第1 新羅本紀 第1 儒理尼師今條에 依하면 「王이 이미 6部로 定한 뒤 이를 두部에 나누어 王女 두사람으로 하여금 各各 部안의 女子를 거느리어 편을 짜고 패를 나누어 秋7月 既望(열셋새날)으로 부터 날마다 일찌기 6部の 마당에 모이며 筵을 시작하여 午後 10時頃에 罷하게 하고 8月 15일에 이르러 그 功이 많고 적음을 考査하여 지는 便是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便에 謝禮하고 이에 노래와 춤 온갖 遊戲가 이때 진편의 한 女子가 일어나 춤을 추며 嘆息하기를 會蘇라 하여 그 音調가 슬프고 아름다웠다. 後人이 그 소리로 因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會蘇曲이라 하였다 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 會蘇曲은 全國에 퍼져서 나중에는 新羅의 한 有名한 曲이 되어 傳하였다 하나 지금 그 歌詞는 傳하지 아니하는데 李朝때 사람 佔 畢齊 金 宗植이 일찌기 그것을 模擬하여 지은 會蘇曲이 있으니 여기에 그것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會蘇曲, 會蘇西, 西風吹廣庭, 明月滿垂屋, 王姬壓坐理巢車, 六部女兒多加簇, 兩管既, 盈我筐空, 釀酒挪揄笑相謔, 一婦嘆千室勸座, 令四方勤杼軸, 嘉俳縱失閨中儀, 猶勝跋河岸嚙嚙」

#### ※ 茶 禮 · 省 墓

이날은 各地 各家庭에서 아침 일찌기 일어나 男女老少 새옷을 가라입고 秋夕 茶禮를 지내는 데 하루 前日에 新穀으로서 술과 떡을 빚고 其他 山海珍味를 작만하여 밤, 대추, 감等 新果를 家廟에 차려놓고 先祖께 祭祀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날은 갖은 飲食을 차려 가지고 先祖 墓地에 省墓를 가는 것이다.

#### ※ 秋 節 時 食

中秋節에는 온갖 穀食과 各種 果實이 다 익고 秋收도 멀지 않았으므로 農家에서는 名節中에서도 이 가위를 第1의 名節로 여긴다. 햇벼로서 술을 빚고 햇쌀로서 떡을 해 먹나니 햇동부름 술일과 같이 전 것이 송편이요 무 호박을 섞어서 시루에다 전 것이 시루떡이다. 또 찹쌀을 찌서

## 第1編 總 論

인절미를 하고 찹쌀에 밤을 섞어서 團子도 하는데 토란團子, 밤團子도 한다. 新果로는 배, 밤, 잣, 배, 수박 등이 소반에 오르며 여러가지 새로 난 채소가 또한 소반에 그득하게 오른다.

### ※ 씨름 놀이

이날 시골 各地方에서는 씨름놀이를 盛히 하는데 規模가 큰 씨름大會에는 優勝者에게 賞品 한마리를 賞으로 준다.

### (9) 9월의 民俗

#### ※ 9 日

9月 9日是 重九 또는 重陽이라고 하니 重陽이라 함은 陽數가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 이날 各地 各家庭에서 菊花煎이라고 하여 菊花를 따서 먹울 지쳐 먹는데 마치 3月 3日에 진달래로 花煎 만드는 것과 같이 한다. 또 柚子를 잘게 썰고 石榴알과 잣으로 함께 밀수에 다져 마시니 이것을 「花菜」라고 하며 時食이라 하여 先祖께 茶禮를 드린다. 이날 사람들은 郊外로 楓菊놀이를 나가는데 詩人 墨客들은 酒食을 가지고 나가서 黃菊을 술잔에 띄워 마시면서 詩를 지어 읊으기도 하며 또 그림을 그리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다. 李朝때에는 이날을 읊은 文人들의 詩가 많이 보이니 여기에 數人의 詩作을 보이면 明宗때 사람 古玉 鄭 碕이란 이의 重陽을 읊은 詩에 「世人最重 重陽節 未必重陽 引興長若對黃花傾白酒 九秋何日不重陽」이라 하였고, 顯宗때 사람 北軒 金 春澤이 지은 9月을 읊은 詩에 「幽居初聽葉秋飛 步履登高一經微 我庚 谷中流水向何歸壯懷鬱鬱 惟樽酒 節序駸駸又夕睟 在古人 令都不見牛山河以淚霑衣」라 하였으며, 英祖때 사람 趙 觀彬의 9月 登山詩에는 「丹楓千樹又萬樹 我行悠悠水石間 不知天中白雲起 却疑山上更有山」이라 하였다.

### (10) 10월의 民俗

#### ※ 開天節

오랜 옛날부터 상달 초 사혼날(10月 3日)을 開天日이라 하여 이날을 記念하여 왔었다. 이날 大倭敎에서는 大祭를 行하며 政府및 官公廳에서는 國慶日로서 嚴肅히 禮式을 舉行한다. 開天節이란 韓國神話에 依하여 國祖 檀君의 天降을 記念하는 날이다.

#### ※ 時 祭

이달에 各地 各家庭에서는 自家 祖上의 墳墓에 가서 祭를 지내니 이것을 時祀 또는 時祭라고 한다. 이 時祭는 先祖 遠代의 墳墓에 모여서 行하게 되어 있는데 喪中에 있는 이나 婦女들은 參禮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름 높은 遠代의 先祖墓에는 數많은 그 子孫들이 모여 들어 盛大한 祭가 行하여 진다. 이 祭祀의 費用은 대개 墳墓 近方에 土地(祭田 또는 位土)가 있어 거기서 나오는 收入으로 이 때에 使用하며 또 이 土地는 그 一門一族이 共有하여 宗契 또는 門契에서 이것을 管理하게 되어있다.

#### ※ 城 主 祭

10月은 상달이라 하여 各地 各家庭에서는 月內에吉日(대개 午日에 하는데 戊午日을 最吉日로 한다)을 擇하여 新穀으로서 먹울 하고 술을 빚고 實果며 여러가지 飲食을 갖춰 놓고 城主神에게 一家가 平安無事하기를 비니 이것을 城主祭라고 하며 대개는 巫堂을 불러 들리어 하는데 或巫堂이 아니고 판수를 불러서 經文을 읽게 하는 집도 있으니 이것을 또한 安宅한다고도 한다.

#### ※ 손 돌 풍

10月 20日에는 해마다 큰 바람이 부니 이 바람을 俗稱 손돌바람(孫丕風)이라고 한다. 江華海中에 險한 목(項)이 있으니 이목을 孫丕목이라 하는데 高麗때 어느王께서 戰亂이 일어나 江華島로 逃遁을 가시게 되어 바닷길로 배를 타고 가시는데 孫丕이 왕에게 바람이 일어나 배가



危險하게 되었으니 安全한 곳에 쉬었다가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여려번 알리므로 王은 그러지 않아도 파천하시는 몸이라 모든 것이 疑心스러운데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어 그를 疑心한 나머지 그를 叛逆罪로서 近臣에게 분부하여 그의 목을 베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큰바람이 일어나 도저히 뱃길을 노저어 갈수 없으므로 싣고 가던 王의 딸머리를 베어 억울하게 죽은 손들의 靈을 慰勞하는 제사를 지내고서 江華島에 到着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 원혼이 큰 바람이 되어 분다고 하여 손들의 목을 베었던 곳을 「孫丕母」이라 부른다고 한다.

#### ※ 만 두 국

冬節에 時食으로 饅頭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메밀가루 또는 밀가루로 반죽하여 饅頭를 만드는데 그속에 썰어 넣어 싸서 장속에 끓여서 먹는 것이다.

#### ※ 썩국과 썩단자

첫 겨울의 時食으로 썩국과 썩단자를 먹는다. 썩국이란 썩의 연한 싹수를 캐어 쇠고기와 닭고기를 섞어서 국을 끓인 것이요 썩단자란 썩을 찢어 찹쌀가루에 버무려 團子를 만들어 여기에 콩가루를 묻혀 물에 재운 것이 썩團子이다.

#### ※ 강 정

이달의 時食의 하나로 강정(乾釘)을 만들어 먹는다. 이 강정은 一種의 菓子로서 吉冥 또는 제사에도 많이 쓰인다. 만드는 법은 술과 물에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大小로 切片하고 말린 뒤에 기름에 넣고 달여서 튀기면 속이 부풀어 올라서 둥글고 크게 된다. 그 모양이 마치 누에고치같이 되는데 여기에다 조청을 바르고 흰 깨나 검은 깨를 볶아서 이것을 묻혀 입힌다. 또 이외에도 콩을 볶아서 엿물과 섞어 만든 것을 콩강정이라 하고 잣을 엿물에 섞어 만든 것을 잣강정이라 하고, 깨를 볶아서 엿물에 섞어 만든 것을 깨강정이라 하고, 또 다섯가지 色을 칠한 것을 5色강정 또는 色강정이라고 하며 강정모양을 梅花꽃 같이 하여 만든 것을 梅花강정이라고 한다.

#### ※ 김 장

우리 韓國 飮食物中에 特히 冬節의 副食物은 김치 위에 더할것이 없으니 대개 이달에 김장을 한다. 그런데 立冬節이 9月이면 立冬前에 하고 立冬節이 10月이면 立冬後에 한다. 김장을 하는데도 김치, 깍두기, 동침이, 장김치, 찐김치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 무 배추를 주로 하고 파, 마늘, 고추, 생강, 잣, 밤, 소금, 조기젓을 必要材料로 하여 질독에 김치를 담근다.

#### (11) 11月の 民俗

#### ※ 동 지

11월을 冬至달이라고 부르며 冬至날은 新曆의 12月 22日에 當하는데 俗稱 「豆歲」라고도 한다. 이날을 우리 民間에서는 작은 설이라 하며 마치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으로 나이 한살 더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이 冬至날 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살 더 먹는다고도 하나니 이는 古代에 冬至로서 正月을 삼는 遺風인 것이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各家庭에서는 붉은 팔을 달여 죽을 쑀다. 찹쌀가루로 새의 알만큼씩 빚어서 넣는데 이것을 「새알심」이라 한다. 時食을 삼아 祠堂에 茶禮하고 또 죽물을 집 문간 또는 大門 板子에 뿌려서 厄을 除한다. 前楚歲時記에 依하면 「共工氏가 不肖子를 두었더니 이 아들이 冬至日에 죽어서 疫鬼가 되었는데 이 鬼神은 붉은 팔을 무서워하므로 冬至日에 팔죽을 쑤어서 재앙을 免하기를 빈다」고 하였다.

#### ※ 동침이와 水正果

동침이와 水正果는 모두 시원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이를 좋아하는데 동침이는 무와 김치를 짜지않고 심심하게 담는 것이며 水正果는 乾柿를 더운 물에 담그고 生薑, 잣과, 설탕을 넣는 것으로 그 맛이 달고 시원하다.

(12) 12月の 民俗

12月은 첫달 또는 서웃달이라고 한다.

※ 臘 享

冬至날에서 세번째 未日을 「臘日」이라고 하는데 이날에는 太廟와 社稷에 大享을 舉行하니 이것을 「臘享」이라고 한다. 臘은 곧 獵의 뜻으로서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 先祖께 祭祀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李 光의 芝峯類說에 依하면 「蔡邕의 說로 引用하여 青帝는 未日로서 臘을 삼고, 赤帝는 戌日로서 臘을 삼고, 白帝는 丑日로서 臘을 삼고, 黑帝는 辰日로서 臘을 삼았으니 우리나라는 未日로서 臘을 하니 東方이 木에 屬하는 연고라」고 하였다.

※ 臘 雪 水

臘日에 눈(雪) 물을 取하여 독에 넣어두고 藥에 쓰는데 눈 물에 물건을 담그면 벌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臘日前에 큰눈이 세번 오면 보리뿌리에 벌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醫書에 「臘雪水는 熱病과 모든 病을 다스린다」고 한데서 이 風俗이 생긴 것일 것이다.

## 第 6 章 衣食住와 生活

### 第 1 節 生活과 慣習

#### (1) 生 活

어느나라 어느 고장이든지 그 나라 그 고장 사람의 嗜好에 알맞고 歷史와 傳統을 지킬 수 있는 生活環境을 좇아서 衣服과 飲食과 住居가 固定도 되고 變化도 되어 온 것이 事實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中國을 大國이라 하고 中國君王을 天子로 모셔왔던 事大慕華思想에 지나친 民族性을 지녀왔기 때문에 5千年 歷史上的 衣食住 生活形態가 빈번하게 變化하여 온 것은 勿論이다. 檀君時代에 制定하였다고 傳하여진 저고리의 동정과 處女 總角의 編髮을 장식하는 땁기(檀戒) 저고리 같은 것은 數千年 變함이 없이 始終一貫하게 지켜온 事實도 없지 않지만 그 외에 衣, 冠, 帶, 鞋, 履 등의 모든 制度의 大部分이 中國의 것을 模倣하여 온 것이라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新羅때에는 唐나라, 高麗末에는 元나라, 李朝때에는 明나라, 倭政때에는 日本式의 生活環境으로 近似해 진바 事實이 너무나 許多하다. 더구나 麗末에 우리나라는 元나라의 駙馬國이 되면서 政治의인 大勢에 어찌 할수 없어서 言語, 衣服 모든 慶吊行事까지를 蒙古式으로 強要 당한 것 처럼 倭政때에도 우리 民族은 所謂 創氏制度에 못 이기어 姓氏 3字를 바꾸는 同時에 우리 國語까지를 제마음대로 말 할수 없는 壓政 밑에서 呻吟하던 時期도 있지 않았던가!

그리하여 모든 生活形態가 日本式으로 左右되고 우리 固有의 모든 制度는 어느 사이에 하나씩 들식 抹殺되어 가면서 本意아닌 變革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隣近한 他國과의 密接한 관계를 맺고 地理의으로나 文化的의으로나 外界의 影響을 받으면서 自然的으로 變경되는 것은 몰라도 所謂 植民政策에 따라 強要당한 우리 民族性이란 참을 수 없는 屈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8.15解放以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極盛을 부리던 모든 倭色臭도 역시 하나 들식 消滅되어 가는 것이 事實이나 그 뒤를 이어서 代替되어 들어온 것은 洋式이었다. 붉은 머리 붉은 입술, 좁은 통바지 肉體의 露出 등이 瞬息間에 流行되면서 自由夫人이 橫行하고 히피族이라 해서 젊은 男女 蕩兒들의 登場을 보와 東方禮儀之國으로 遵守 傳來하여 오던 風習이 脈을 못추게 되었으니 이것은 매우 寒心스런 일이다. 더구나 男女關係에 있어서는 倭政時에도 어느 程度 그 命脈을 維持하여 왔지만 解放後 男女交際의 無分別은 많은 脫線과 過誤를 범하는 事實이 많은데다가 그 중에는 中流以上の 知識層 男女들의 合勢도 적지 않았다.

이제 우리 民族은 自主獨立 國民이 되었으니 自覺, 自戒, 自肅하여서 우리나라의 傳統과 美風 良俗을 더 한層 昂揚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너무 奢侈에 빠지지 말고 清雅 淡泊하면서도 儉素 淳朴하고 明朗 活達하면서도 嚴而不亂하는 生活環境을 整理하면서 修身齊家의 新生活를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의 生活慣習에 있어서는 勿論 除去할 만한 缺點이 적지 않지만 永遠히 살려나가야 할 美와 長도 많으니 우리는 至今 衣, 食, 住 3部門에 대한 研究와 努力을 加하여서 우리 生理에 맞는 方向으로 簡素化하도록 努力해야 되겠다.

### 第 2 節 衣 生 活

#### (1) 白衣의 由來

우리 韓民族은 예로부터 白衣民族이라 일컬었고 우리 自身도 白衣同胞라 自稱해 온 만큼 우

러 民族의 服色은 白色이 傳統이다. 白色은 高尚, 清雅, 淡白, 光明, 希望, 淨潔, 淳朴, 明朗, 嚴肅等 이러한 用語로 表現될 一切의 高와 潔, 優와 明을 象徵함이니 이 白衣의 愛好는 곧 우리 民族性의 表現인 것이다. 人類는 古代 原始로 부터 自發的으로 太陽을 崇拜해 왔으니 이는 各國의 民族說話가 證明하고 있다. 우리 民族은 예로부터 太陽에 對한 敬慕의 禮를 極盡히 해온 民族이니 太陽 卽 「해」를 하느님에 比하고 우리 民族의 아들 卽 하느님의 아들로써 믿어 왔든 것이다. 이 太陽은 白色으로 表現되었음으로 우리 民族이 太陽의 아들인 만큼 白衣를 입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한 것이다. 太陽을 崇拜하는 民族이 白色을 愛好하고 尊敬하는 例는 白色崇拜民族인 바빌론 埃及等에서도 그 共通性을 發見할 수 있으니 바빌론과 埃及도 太陽을 崇拜하고 白衣를 입은 族屬이다. 그러던 이 白色은 언제부터 우리 民族이 입기 始作했는지 文獻으로 考證할 記錄이 없어 遺憾이나 전하여 오는 記錄에 依하여 보면 우리들 韓服의 목것으로 하얗게 등정을 다는 것은 檀君時代부터 制定된 服色으로 그 때는 등정이 아니라 同領으로 일컬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太陽을 象徵하는 白衣民族이니 設事 色服을 입더라도 上衣의 보기 쉬운 어느 部面에 同一한 白色의 標識이 必要하다는 見地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등정을 옷깃에 달기로 決定하였던 것이라 한다. 그러니까 同領은 그 때 우리들은 白衣民族인 同時에 다 같이 檀君할아버지 治下에 있는 百姓이라는 標識의 統一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悠悠綿綿 오랜 歷史를 지나온 다음 後世 扶餘를 비롯하여 新羅, 高麗, 朝鮮의 모든 歷代 王朝에 우리 民族이 白衣를 입었다는 것은 高麗 見聞錄에서 發見할 수 있으니 이것만 미루어 본다면 우리 民族은 數千年前부터 白衣를 愛用해 왔으니 有史以前에 歷史가 始作될 때 부터 白衣를 입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民族이 太陽을 崇拜하는 또 하나의 證據로서 예로부터 지켜오는 東方 崇拜를 들 수 있으니 東方은 해가 뜨는 곳이다. 太陽의 宮이 있는 곳이요 太陽宮은 또 神明의 집이란 것이다. 太陽은 一切 萬物의 生命力和 繁殖力을 掌握한 偉大하고 거룩한 存在이며 이 太陽이 있는 東方을 우리 民族은 예로부터 崇拜해 왔던 것이니 天神께 올리는 祭壇도 東方住宅의 門도 東方民閭의 上座도 東便을 上으로 定하는 習慣等이 이를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까지 傳來하고 있는 禮服과 喪服의 白色은 곧 古代에는 禮服만이 白色이었던 것도 推測할 수 있으며 一部禮式에 着用하는 것이 漸次 一齊히 流布되어 白色으로 統一된 것 같다. 如何間이 白色으로서 우리 民族이 自古로 高潔과 平和와 光明을 愛好하는 民族이라는 것을 窺知할 수 있으니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傳來된 衣服制度는 어떠하였던가를 詳考해 보기로 한다.

## (2) 古代의 裝束

確實한 記錄은 없으나 濊貊이나 扶餘時代부터 金錢을 煉製하는 法은 진주부터 發達되어 扶餘의 大人은 金銀으로서 喪을 飾하고(三國誌) 濊人男子는 衣上에 銀花를 달되 廣이 數寸이었다 하며 高句麗人은 公會衣服을 金銀으로 自飾하고 또 金銀으로써 送死의 具로 썼다 한다.

扶餘人이 나서면 繪繡錦嚴를 尙한다 하였는데 그 이름은 詳傳하지 아니 하였으나 高句麗의 織綿으로 말하면 紫地의 繪紋이 上이오 그 다음 五色線이 있고 그 다음 雲布綿이 있었다 하니(唐雅公數翰苑誌) 扶餘人의 崇尚하는 繪繡의 類 대개 이러한 것일 것이며 또 肅愼(挹婁를 가르침)은 貂毛를 續아야 布를 만들었다 하니 지금으로 말하면 毛織의 一種인데 毛織으로는 貂로써 續出한 것은 近世에 듣지 못하던 바이라 高句麗에서 障日을 造하되 靺鞨의 猪鬃로써 한다 하였으니 障日은 近代 紗扇 或 毛扇의 種類라 이런것도 毛物로 만들기를 잘하여 名産이 되는 것을 보면 古代人이 獸類에 毛皮를 다루는데 特長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朝鮮史研究)

## (3) 衣服의 製作

韓國의 男着은 흔히 朱紅옷과 흰 머와 검은 冠을 썼으며 女子는 彩衣요 扶餘人은 흰 베로 갓옷

을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가 벼슬을 하던 비단옷을 입는데 大加는 白狐 黑貂의 갓옷을 입고 金銀으로써 帽子를 만들었다. 濊는 曲領을 입고 銀花로 꾸미며 貂는 狸狐의 가죽을 갓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沃沮는 베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肅愼은 猪狗의 가죽으로 옷과 신을 만들고 三韓은 흰 도복과 풀신이며 辰韓은 珠玉으로 꾸미고 弁韓은 黼족한 頭巾을 썼다.

#### (4) 新羅의 衣冠과 佩飾

新羅의 朝服은 白을 崇尚하더니 法興大王時에 公服朱紫의 秩를 定하여 大角干으로 大阿湊까지는 紫衣요 阿湊에서 級湊까지는 緋衣를 입었다. 그리고 大奈麻와 奈麻는 青衣며 大舍以下는 黃衣를 着하고 冠은 錦冠과 緋冠을 썼다. 庶人은 褐袴요 黑巾으로서 髮을 冑하고 婦人은 長襦요 粉黛를 不施하며 辨髮로서 머리에 繞하고 珠綵로 飾하다가 眞德女王時에 服制를 고치어 眞骨로 부터 平人까지 表衣와 內衣와 半臂袴와 腰帶와 表裳과 內裳을 使用하고 渤海는 品을 秩이라 하여 3秩以上은 紫衣를 입으며 牙篇을 執하며 金魚袋를 佩하고 五秩以上은 緋衣와 牙笏과 銀魚袋요 6秩 7秩은 淺緋를 입고 8秩은 綠衣나 다 木笏이었다.

#### (5) 織物과 玩品

織物은 新羅에 五彩氍毹가 巧麗하므로 世界에서 歡賞하니 其製가 歌舞妓樂과 列國山川과 草木虫鳥의 形狀이 方寸內에 있어서 微風이 入寶하면 蜂蝶과 燕雀이 助舞하여 眞假를 알지 못하였다. 玩品은 渤海에 瑪瑙櫝와 紫瓷盆을 唐에 보내어 唐主가 櫝에는 神仙의 글을 두고 盆에는 仙臺秘府에 藥을 만들었다.

#### (5) 百濟 衣服과 首飾

百濟는 古爾太王때에 옷 制度를 定하여 임금은 붉은 큰 道袍와 푸른 비단마지와 흰 가죽피와 鳥革신이요, 鳥羅갓에는 金花로 장식하였으며 6品以上은 갓에는 金花로 장식하고 붉은 옷이며, 11品 以上은 붉은 옷이요, 16品 以上은 푸른 옷이요, 百姓은 붉은 옷을 입지 못하며 女子의 옷은 道袍와 같으나 삼매가 가늘고 털을 엮어 머리뒤에 더하며 치녀는 엮어내리고 시집가며 高句麗는 통삼매와 큰 바지며 흰 가죽피와 누른 신이며 임금은 五彩옷이요, 흰테 단갓에 금으로 장식하고 貴人은 붉을 비단갓이요, 그 다음은 붉은 깃으로 하여 두세에 나래를 꿰고 金銀으로 꾸미며 백성은 털옷이요 갓을 쓰며 여자는 치마와 저고리에 선을 두르고 수건을 쓰며 팔에 쇠고리를 걸었다.

#### (6) 高麗 衣服의 裝飾

高官의 衣服은 光宗朝에 百官公服을 始定하고 毅宗時에는 君主冕服과 百多服까지 盡備하였으며 官吏의 常服은 文羅巾과 皂細表와 黑角束皂와 鳥革句履요 民庶의 服은 다 白紵袍와 皂巾이니 官役이 有하면 色衣를 易하거나 或은 官에서 紫袍를 終하고 婦人은 右肩에 垂하며 緯羅로서 束하고 紬繻帛으로 長衣를 作하나 1名은 羅元이라고 하며 頭에 蒙하여 面을 掩하고 旋裙을 腋에 高繫하니 八幅으로서 製하며 內衣가 重疊하고 未嫁女子는 紅羅로 束髮하여 下에 垂하니 未冠男子로 亦然하나 黑羅로 結하였다.

#### (7) 李朝 衣冠의 常着

朝鮮의 男服은 襦(赤古里) 道袍(通用) 直領(武官着)을 加하며 漆笠(堂上 眞絲笠 其外布笠) 絲帶(堂上 紅色 堂下 柳綠色 土氈 草綠色) 皮鞋(堂上 紫芝發莫 其他 鼻鞋 隨意婦幼唐鞋)를 使用하더니 光武帝 甲申에 中赤草氊衣道袍直領이 有袖라 하여 廢하고 搭襪로 代하더니 小氊衣와 搭襪도 自廢되어 同衣가 出行時도 素服이 되고 婦人을 襦袴와 裏衣가 有하여 長裙으로 腋下를 圍하고 首飾은 髮을 券하여 頃後에 髮을 作하여 簪釵를 插하고 或은 髮을 辨하여 頂에 盤하는 高장도 有하며 出門엔 長衣로 낮을 가리었다.

(8) 衣服의 變遷史

일찌기 우리나라의 의복은 상고시대 부터 이조말에 이르기까지 문헌을 통해서나 근세에 간혹 남은 옷이라든지 어른들의 말을 통합해 볼 때 가장 변화가 심했던 것은 활수의(闊袖衣)와 협수의(狹袖衣)라고 하겠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도포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시작된 옷으로서 직령에 활수의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고종 (서기 1884)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전후해서 두루막 모양에 소매만 넓은 중치막에서 무가 넓은 창옷을 거쳐 간편하고도 입기 좋은 두르막에 까지 이르렀다. 일찌기 우리나라는 삼과 저(苧)가 발달되어 대개가 재료는 모시로 된것이 많았었고 색깔로 직위를 뚜렷이 나누게 되어 있었다. 또 하나는 옛날 옷은 도련과 수구에 선(襷)을 두른 것이 많고 이것 역시 색을 가려서 돌려쳐 있었다. 어떤 의복에 있어서는 선선(立襟)과 아랫단 선이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이것 역시 직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부분의 옷 위에는 반드시 각머나 술머를 띠는데 단령(團領)에는 각머(角帶) 직령(直領)에는 술머를 띠게 되었다. 같은 활수의 이면서도 예복은 소매 부리가 전부 터져있고 중간을 막았을 때도 단추로 끼었다 뻗다 하게 되어있고 보통 예복으로 입은 옷은 전부 중간까지 막혀 있었다. 또 다른 점은 벼슬에 따라서 높은 사람은 무늬있는 편, 낮은 사람은 무늬 없는 편으로서 뚜렷이 가려져 있었다. 관(冠)에 있어서는 벼슬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것은 물론 망건에 붙이는 관자 하나 까지라도 모양으로 크기와 차이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꼭 같은 관이라도 길흉(吉凶)을 나눌수가 있었고 관 전면 상부에 가는선을 쳐서 이것을 양(梁)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오량(五梁) 사량(四梁) 삼량(三梁)으로 나누어 선이 많은 것이 벼슬이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 뿐만아 신발에 있어서도 당혜(唐鞋) 운혜(雲鞋) 수혜(繡鞋) 초혜(草鞋)등으로 나눈 모양인데 이것 역시 당혜 운혜가 많이 불리우고 수혜는 글자 그대로 수놓은 신을 말했던 모양이다. 당혜 역시 앞코에 선이 둘러 있었고 관(冠)의 양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옛날의 옷을 보면 옷을 중심으로 관에서 신발까지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곧 사람의 벼슬을 알게 되어 있었다. 그 옛날 반상(班常)을 뚜렷이 갈랐을 때 벼슬이 높을수록 홍(紅)색이 많았었고 화려한 색을 많이 입었다.

예복을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있게 만들어져 있으나 의복 자체만은 그대로 모양을 지니고 있고 색이라든가 부속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 만들어져 있으니 의복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않고 뚜렷이 직위를 나타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조상님네의 우수성을 엿볼 수가 있다. 궁중의복으로서 간혹 남아있는 옷들을 보면 모시, 운문사, 은조사, 순인, 삼죽황라 등인데 이것 역시 모든 점으로 보아 저(苧)가 먼저인듯 하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때에 천인지는 자세히 알바 없으나 비단보다는 먼저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옛날에도 모시만은 우리나라 옷감이었으나 비단은 전부가 중국에서 건너왔던 모양이다. 재료도 그러했고 의복 자체도 그러했고 자수(刺繡)도 그러했다. 활수의의 원인이 본래 당나라에서 들어왔으나 만큼 옛날 옷은 중국옷과 흡사한 점이 많았고 활수의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는 있는듯 하나 그리 큰 혁명인 변화는 없었던 모양이다. 활수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나라의 평화한 때와 전시를 가릴 수 있으리만큼 대표적인 전복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시대로서는 의복전체가 크면서도 무라든가 소매가 좁다든가 한 것은 확실히 천시에 맞춘 의복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색으로 길흉(吉凶)을 가린다는 것은 세계 공통인듯 하다. 붉은 것은 길(吉) 검은것은 흉(凶) 보기에다 그렇듯이 구군복에 있어서도 길은 남색이면서도 소매만은 붉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길(吉)을 상징함이요 동시에 정부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의미와 승리를 의미한 것 같다. 의류문화란 주로

궁중에서 부터 시작되었고 궁중의 상이한 자체가 그리 급진적인 변화를 보인것도 아니다. 멀리 상고시대의 의복에 있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도 없으려나와 문헌조차 찾아볼 길이 없고 과거의 이 여성(李如星)씨의 복식고가 참고자료의 하나로서 이것도 벽화와 총(塚)에서 발굴한 것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참고자료는 되나 옛날의복의 실감을 도저히 낼수가 없는 일이다. 여기서 벽화 같은 것을 참고로 완전한 의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의상을 연구하는 분들은 과거 조상들이 밟은 길을 다시 반복치 말고 문헌으로나 실물에 있어서나 근세의 것 이라면 한 점이라도 모아놓는 것이 우리나라 의류문화를 역사적으로 이어놓는 가장 가까운 일 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衣服이란 그 時代의 潮流에 따라서 嗜好도 변하는 것이요 그 時代의 環境에 依해서 樣式도 변천하는 것이다. 지금의 男子저고리가 허리에 내려오든 것이다. 國中處女도 老婦人들도 이 流行의 긴 저고리를 따라갔고 그것이 점차 짧아치자 老婦人들도 점차 또한 이에 追隨케 되었다. 지금은 소매끝에 藍끝동을 달지 않으나 한때는 남끝동을 다는 것이 流行이었고 치마도 이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였든 것이다. 最近 半世紀동안에 우리네 衣服變遷을 보면 끝동이 없어진것과 男子의 長衣가 없어진것이 代表的이고 옛날에는 女子들이 입지 않던 男子同衣를 女子들도 입게 되었다는 것도 特記할 만한 事實이다. 女子들의 치마는 兩班들의 婦女子는 외로 입고 平民은 바로 입던 風俗이 있었으나 이도 班階級의 自然的 消滅과 함께 混用되어 現在는 거의 그런 觀念조차 없어졌다 할수 있다.

#### (9) 衣服의 種類

韓服의 種類는 平服, 禮服, 喪服 등이 있으며 그 制度는 特異한바 있으나 現代에는 婚喪服만이 傳承·襲用될 뿐이다.

男子用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道袍, 토수, 버선, 대님, 행진中 토수는 약 30餘年前부터 漸次 衰退하여 지금은 거의 形色을 볼 수 없고 道袍는 一部에서 祭祀때만 使用되고 있으니 이도 거의 退滅狀態이며 행진은 喪服에만 使用되고 있다. 그밖에는 大部分 特別한 변천이 없으나 버선도 老人階級에서만 利用되고 양말이 流行되고 있다.

女子用 저고리, 치마, 背子, 단속옷, 長衣, 赤衫, 버선 등이 있으나 長衣만은 이미 없어졌고 버선만은 젊은 婦女子까지 愛用되고 있다. 버선은 特히 古來로 외세 같은 발 모양을 내기 위하여 되도록 발을 좁게 해 신던 風俗도 衛生上의 見地로 넓어졌고 젊은 女性과 知識階級의 女性들이 解放以後에 긴 치마를 많이 입은 傾向이 생긴 것도 倭政때 拘束에 對한 反動的 心理로 作用되었지만 女子用 洋襪이 高價인 것도 큰 理由의 하나로 되어 있다.

#### (10) 傳來 衣冠의 由來

周衣(두루마기) : 두루마기라 함은 全衣의 幅을 쪽 돌아가면서 다 막은 것이라 함이나 옛날 男子의 옷옷에는 兩脇下에 「무」가 없이 開通된 것과 「무」가 있어 縫合한 것과의 2種이 있음으로 兩脇下가 터져서 三幅이 따로 도는 창옷이란 것에 대하여 두루마기는 곧 全衣가 휘돌아서 다 막힌 것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에 후리매라하니 휘둘러 맨다는 뜻이다. 두루마기와 창옷과는 똑같이 소매가 좁은 옷이며 옆구리가 —開—合한 점에서 分別이 있으니 필시 창옷으로 부터 두루마기의 次序로 發達되어온 것 같다. 옛날에 있어서는 두루마기나 창옷이 다 옷옷으로 完全獨立性의 것이 되지 못하여 普通 창옷은 중치막의 두루마기 道袍의 밑옷 좁 되었으니 대개 士大夫 階級에서는 平日家居에도 창옷이나 두루마기를 입고 있음이 威儀요 戶外의 出動에는 다시 중치막 道袍를 덧 입음이 例였으며 다만 중치막 道袍의 着用이 허락되지 않는 常民階級에서만 창옷 두루마기를 옷옷으로 입든 것이다. 중치막이라는 것은 창옷과 같으면서 廣袖요 뒤로 져서서 四幅으로 생긴 것으로서 男子의 常時 正式의 옷옷이 되는 것이니 —에 창옷을 「小창옷」 중치막

을 「큰창옷」이라 부르기도 한다.

鶴岡散筆에 據하건대 白鷄衣의 禁令이 난뒤에 朝士의 有服者가 新制의 中衣를 만들고 그 色을 회색한 것이 周衣의 始라 한다.

道袍: 袍는 古代 옷옷의 通稱이니 옷길이가 附(발등)에 닿는 것을 일컬는다.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는 袖의 廣함을 通例로 하는 모양이다. 三國誌의 扶餘傳에 「白衣大袂袍」의 俗을 傳하고 後周書의 百濟傳에는 「婦人衣袍而袖微大」한 事를 記하였으니 廣袖의 袍가 진즉부터 震域諸邦에 普行하였음을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袍의 種類가 많아지고 또 거기 禮儀의 條件이 附隨하게 되기는 中國의 여러가지 袍制가 傳來한 以後의 事이니 이를테면 內外史乘에 보인 百濟王의 「紫大袖袍」 新羅王의 錦袍等이 그 例이며 일변 民間에 行하는 道俗諸流의 袍制도 많이 傳來하였다.

道袍는 중치막과 같이 廣袖에 (곧 容태가 달리고) 四幅이요 背後에 따로 垂幅이 있어 兩裾를 掩蔽케 한 禮에는 士夫 儒生의 常服도 되고 일변 通常用禮服도 되는 것이며 最近에 따른 禮服이다. 浸廢함과 함께 男子 唯一의 禮裝인 觀을 呈하고 있다. 道袍는 본래 特權的인 物로서 下層人의 着用을 許치 아니하는 것이지만 近世에 이르러 이 禁防이 반드시 廢치 아니 하였음은 茶山 丁氏가 牧民心書에 斥論한 바와 같다. 道袍의 起源에 對하여 諸說이 紛紛한 中 가장 得中한 者는 李 德懋가 「道袍는 比丘圈奪」과 斷하고 孫奎景이 이어 中國僧道의 上衣와 朝鮮僧侶의 長衿이 다 道袍로 더부러 形이 같음을 指適하여 道袍가 僧服으로 부터 왔다고 하는 說인데 미상불 道袍라는 名稱으로 생각할지라도 본래 俗人의 衣衿은 아닌상 싶다.

버선(襪): 오늘날 신을 벗고 지내는 國民中에 맨발을 잘 드러내놓지 않는 이를 찾으려 맨 먼저 韓國人이 想起되리만치 우리는 미상불 버선 신기를 좋아하는 種族의 하나이다. 三伏 炎天에도 숨버선을 신고 태연히 지내는 것이 世界奇觀中の 一件이 될 만치 버선에 대한 愛着은 表現키 어려운 程度이다. 그러면 이 버선의 淵源이 자그만치 멀겠느냐 할듯도 하지마는 文獻上에는 오래다 할 證述이 도무지 없고 다만 北方의 革靴신은 國民들에게라도 신과 살사이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推想을 부쳐 볼 수 있을 뿐이다. 新羅의 太宗王이 唐의 儀章을 請來하여 冠服은 制가 稍備하였다 하니 그 中에 襪이 끼었을 것은 母論이로되 또한 分명한 表示가 없으며 高麗史與服志를 據하건대 毅宗 詳定禮의 祭服中에 「素襪」의 名이 始出하고 내려와 恭愍王 19年 明太祖의 送來한 冕服中에는 「白襪」「靑襪」等의 目이 連見하며 李朝 以後 五禮儀 經國大典의 儀章中에는 品官의 朝服祭服에 반드시 白布襪이 扞擧되어 있다. 黃越의 朝鮮賦에는 襪에 關한 記事가 或「襪은 袴에 傳하여 설사 渡水할 때에도 아무 꺼리김이 없다」는등 「襪은 흔히 布製라는 등」의 紹介가 있다. 許筠의 識小錄에는 「우리 男女의 신는바 足巾이 곧 古의 이른바 襪이니라」하는 見解를 述한 것이 있다. 譯語類解에는 襪子에 「청」이란 解를 부쳤으니 지금 우리 귀에는 펍 서투르다.

木履(나막신): 木製의 신은(곧 漢文의 木屐 또는 脚襪) 옛날에 「격지」라 일렀지만(譯語類解服飾篇 參照) 近來에는 「나무신」이 「나막신」의 名이 通行하고 있다.

나막신의 所用은 대개 草履 麻履에 比하여 耐久性이 있음과 雨晴兩用의 便이 있는 點이니 支那에서는 春秋時代의 介子推에 부쳐서 起源을 말하기도 하거니와 後漢書의 五行志에는 木履가 流行하여 奢侈品까지 出現한 것을 怪事라 적어 있고 이로 부터 六朝時代에 걸쳐 이에 關한 名士의 逸話가 많이 傳한다. 本草綱目に 보인 「江南에서 桐本으로 바닥을 하고 蒲로서 끈을 하여 코를 꿰어 신는다」는 記事는 지금 日本의 「下駄」의 淵源을 생각케 하는 것이다. 震域에 있는 나막신의 起源은 밝히는 수 없으며 지금 文獻으로서 證明할 수 있는 바로는 五洲衍文에 引한 釋史에 「我國에 본시 木履가 없더니 宣祖 壬辰前에 이르러 비로서 생겨서 上下가 다 신게 되니라」함과 日月錄에 「宣祖庚子間에 木鞋가 비로소 南方에서 나와 國中에 퍼지니라」한 것들 처럼



어찌지 壬辰亂前 日本과의 交渉을 생각해 하는 起源說이 있다. 미상불 韓國의 나막신도 처음엔 平板에 끈을 하여 발새에 걸고 다니기를 「게다」와 같이 하든 것으로 지금과 같이 鞋形에 굽을 다는 式은 매우 後日의 發達에 속하니 燃藜述言記別集에引한 恬軒瑣編에는 이미 「古之平履 今已廢矣」의 文이 있다. 이런 事實을 綜合해서 생각하건대 우리네 木履의 起源은 中國南方에 있고 「격지」「것타」「脚漚」은 同源語인 상도 싶다.

### (11) 現 狀

이러한 白衣生活과 衣冠制度가 所謂 倭政 36年間 色衣獎勵政策과 現代의 生活環境이 舊態依然한은 容恕치 않을 뿐더러 白衣를 許諾치 않아 漸次 우리나라 政策도 色服을 勸獎하는 現實임에 鑑하여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것으로 豫想되는 바이며, 自宅에서 悠悠閑適한 生活을 할때는 優雅하고 高尚하고 너그러운 白色韓服도 좋지만 現代 科學文明의 渦中에서 生存競爭을 하는데는 不自由한 點도 있고 洗濯 裁逢等 經濟的 理由도 있어서 衣服은 洋服으로, 變遷을 強要한 것이 無理아닌 오늘의 現狀이라 하겠다.

더우기 우리는 過去 日帝의 殖民政策에 強盜以上の 搾取를 當하여 國民의 大多數가 貧困한 生活을 僅僅히 維持해 온 故로 肉體를 가릴程度의 衣生活에는 莫大한 困難를 받으며 特히 2次大戰末期의 農村生活相은 目不忍見의 慘狀이었으니 우리가 想像할 수 없는 境地이었었다. 多幸히 이런 處地에서 韓國은 日帝虐政에서 解放이 되었던 것이다. 이 解放은 우리 國民을 政治에서 解放시켰지만 經濟的으로는 오히려 尤甚한 桎梏에다 몰아 넣었으니 美軍政은 從來의 統制 經濟를 아무런 準備와 對策도 없이 自由經濟體制로 急變시켰기 때문에 天文學的인 인플레이션을 招來하였고 이로 因하여 生産이 低下된 우리 經濟가 날로 騰貴하는 物價를 抑制할 수 없는 現實이었다. 이러한 經濟體制는 서울을 圍繞한 農村을 大部分의 治域으로 하는 우리 高장에 끼친 影響도 相當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反面에 一部 飢餓한 사람들 間에는 日帝의 退却이 곧 往年의 封建時代의 還元으로 알고 오랫동안 禁制當하였던 白衣와 감투나 탕건까지 쓰고 나선 사람도 있는 喜悲劇도 있었었다. 그리고 다음 몇가지 現實은 우리나라 衣服變遷史에 버릴 수 없는 事實인바 첫째로 생각키우는 것은 소위 「몸베」를 指適할 수 있다. 이것은 勿論 倭政時代의 特產物이다. 第2次 戰爭末期에 이른바 戰時體制를 確立한다는 하나의 口實로서 男女衣服의 簡素化를 強要하였는데 男子는 소위 國民服에다가 戰帽을 쓰고 다리에는 脚絆을 감고 신은 全部 「지가다비」를 신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男子는 모두 넥타이를 매고 折襟洋服을 입는 일을 全廢하고 모두 國防色 詰襟을 입게 하였는데 女子는 반드시 「몸베」를 全部 強制着用하도록 하였다. 몸베는 치마위에 더 입은 하나의 통바지인데 勞動作業時에는 大端히 편리하다 하여 처음에는 反對하였으나 나중에는 女子들 自身이 도리어 이것을 愛用하여 全國적으로 流行하였다. 처음 보기에는 대단히 흉해보이고 여자들이 치마를 안 입고 통바지바람으로 어디든지 出入하게끔 되었으니 그의 着用을 주저하였다. 그렇지만 집에서 일할 때 잠시 장터에 다녀오는 정도의 出入에는 女子들은 如前히 「몸베」를 벗지 않고 그냥 着用하기를 例事로 하고 있을뿐 아니라 特히 겨울에는 따뜻하여 保温上 좋다하여 村에서는 담노로 만든 몸베를 흔히 着用하고 있는 것이 現實인바 至今은 그것을 홍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팔리는 사람도 없으나 이제 또 한가지 異常한 女子服 하나가 出現하였는데 이것을 가리켜 所謂 「맘보」바지라 부른다. 이것은 純全한 美國風의 流行服으로 特히 最近에 이르러 젊은 婦女子에 부쩍 流行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女子 洋服바지인데 大端히 통이 좁은 것이 特色이다. 가늘고 길고 좁고 매우 웅색하여 보이는 바지로서 이것을 입고 위에 오—바나 걸치면 또 모르겠는데 여름철에 女子들이 얇은 휘황 환한 셔츠를 입고 밑에 맘보바지나 핫팬츠를 입고 다니는 꼴은 하나의 完全한 醜態이어서 보는 사람의

얼굴을 찌프리게 한다.從來부터 입어 오던 보기좋은 옷아 얼마든지 있는데 아무리 流行되는 美國風에 傳染하기를 즐기는 우리나라 婦女들의 浮華性을 普通으로 알아주어도 無妨하다 하기로. 이러한 不自然스러운 그리고 外觀上的 風紀面으로 보아도 毛骨이 선듯할 程度로 厭症을 느끼게 되는 이러한 服色은 根本的으로 贊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輿論이다.

### 第3節 食 生 活

#### (1) 概 觀

우리 韓國은 寒溫地帶에 屬하므로 飲食도 寒帶와 溫帶의 料理法이 並行되고 있다. 北方隣國인 中國은 豚肉을 主로하여 脂肪을 많이 攝取하고 日本은 鯊나라이라 主로 生鮮類의 調理法이 많이 發達되고 있으나 우리 韓國은 牛肉이 가장 많이 使用된다. 이는 材料生産에 左右된 理由도 있지만 生理的으로 中國은 脂肪質 日本은 鷄肉 韓國은 蛋白質을 要求하는 까닭이다. 特히 蛋白質中에서도 우리는 肉類나 魚類보다는 菜食을 좋아하는 國民이라 菜蔬料理가 優秀한 가운데 우리고장의 鎭山인 雉岳山에서 나는 山菜料理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맛을 손꼽히고 있다. 그런대로 우리나라의 各地方 名物飲食을 보면 大部分 肉을 主材料로 쓰지않고 菜蔬를 많이 썼으니 卽 全州콩나물, 晉州비빔밥, 大邱육개장, 淮陶의 煎果, 忠州칼국수, 原州을쟁이죽, 江陵防風粥, 三水甲山の 돌배국, 平壤의 冷麵, 晉州 인절미, 開城의 엇과 보김치, 서울의 神仙爐 等이다. 그리고 春夏秋冬 四時의 各名節 飲食을 보더라도 正月초하루의 떡국, 대보름의 藥食, 2月の 청포, 寒食의 개피 3月 3日의 花煎, 4月 8日의 馥국, 端午의 수단, 流頭의 밀쌀, 秋夕의 松餅, 9月 9日의 菊花煎, 冬至의 팔죽이다. 그리고 고기구이는 臘亨뿐이니 우리의 主食이 肉이 아니고 植物性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의 肉料理가 다른 나라에 뒤졌다는 것은 아니니 고기의 炙法과 煮法을 始作한 것을 高句麗라 하니 狩獵을 일삼는 北方種族들 보다도 우리가 앞섰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고기찜과 굽는 法을 中國은 高句麗에서 배웠다는 中國文獻의 記錄이 있으니 이를 證明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食生活의 最大缺點은 白米主食이나 우리 民族이 이로 因하여 받은 被害가 또한 많으니 우리의 食生活을 根本的으로 改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過去 우리의 農民과 細民層의 大部分은 混食이 強制되어 있지만 建國後 農地改革으로 自作農의 增加로 白米主食의 傾向이 많아진 것은 한편 기쁘면서도 憂慮할 現狀이다. 이는 科學的 分析으로서 精白米飯과 混飯과의 營養的 差異가 明瞭하거나와 우리나라 農民들의 粗食生活을 해 왔음도 比較的 健康을 維持해 온 것은 實로 混食의 惠澤이 컸던 것이다. 白米를 主食으로 하는 知識階級과 富裕層에 脚氣와 心臟病 其他 消化不良症같은 疾患이 많은 事實이 證明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우리 白米主食의 非科學的 觀念은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脂肪質 成分을 많이 攝取하기 위하여 家畜飼育을 獎勵토록 國民自身の 自覺이 必要할지니 이 點만 改善된다면 우리의 食生活은 그 어떤 先進國家보다도 科學的이고 滋養的인 것으로 將次 是正되리라 믿는다. 이제 다시 逆上하여 古代로부터 三國時代 李朝에 이르기까지 그 時代別로 飲食制度를 簡單히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 古代 飲食

食物은 穀物을 主로 고기와 나물과 실과를 먹는데 獺와 貉은 짐승을 많이 잡아 먹고 沃沮와 三韓은 五穀과 山峽에서는 감자와 海岸에서는 고기를 먹고 肅愼은 술을 잘 먹으며 나무汁을 먹으니 그 땅에 나무는 鹽質이 있었다.

#### (3) 高麗 飲食의 物料

高麗의 飲食은 軟炊한 稻粒에 魚鮮을 넣어서 만들어 먹었으나 山峽 貧民은 모두 蒿사리 等屬을 採拾하여 充腹하고 海浦 細民은 모두가 漁探로 生業을 삼아 鰯馱과 蚌珠와 조개, 게類와 海草

昆布의 類를 喫하나 臭腥味라 하고 或은 厭食하며 山味(鹿豕獐雉)와 家畜(牛羊鷄豚)鵝鶩의 고기는 王公 貴人과 都會富戶가 아니면 能히 常食치 못하고 酒는 貴賤貧富의 通嗜共飲하는 物料가 되어 집집마다 釀을 藏하니 其釀의 粳米로서 麴을 合하고 互罇에 貯하여 成熟케 하며 麻布로 細漉하면 酒色이 白米하여 酒味가 淸冽하고 端午日에 生菜로서 飯을 阜함과 上巳日에 靑艾로서 餅에 集함이 盤盞에 冠이라 稱하였다.

#### (4) 傳來料理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料理가 傳來되며 그 調理法은 어떤가 이를 概觀키로 한다.

※ 飯 床: 飯床이란 밥을 主食으로 하는 밥床을 말함인데 饌의 가지數에 따라서 三椀 五椀 七椀 九椀 十二椀의 各種이 있고 또 特別한 境遇에는 절床이 있다. 절床에는 大概 飯酒, 煎骨, 果實이 놓인다. 飯床飲食의 種類를 보면 밥, 국, 김치, 간장, 초장, 고추장, 구이, 나물, 生菜, 장아치, 젓갈, 乾脯 煎果, 膾, 점김, 삼, 등으로 椀에 따라 가지數가 다르나 7椀以上에는 大概 上記品이 다 오른다.

※ 麵 床: 국수를 主食으로 하는 簡單한 床이다. 이 床의 飲食은 국수, 김치, 간장, 지짐, 果實, 餅, 화채 등을 차리는게 正式이나 끝으로 몇가지는 季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 큰 床: 이 床은 回甲 結婚等 慶事 宴會用으로 壽華蓮이라는 造花를 裝飾하고 飲食은 麵 떡 (편경단 色떡 蒸餠 주악 松餠等) 적 (누르미 魚적 肉적等) 脯(肉, 魚, 문어, 오징어等) 糖類(角糖, 圓糖, 五花, 糖玉春等) 幹果(밤, 대추, 곶감, 잣, 胡桃) 造果(油菓, 煎菓, 다식, 강정等) 生菓(교자床과 같음) 酒, 김치, 菜蔬等.

#### (5) 食器 種類

우리 韓國의 現在 常用하고 있는 食器種類를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食器……주발, 사발, 바리

공기類……탕기, 공기, 갹기

대접類……대접, 합, 도반기, 반병두리

보시기類……종지, 보시기, 접시, 조치보

以上과 같이 우리 民族은 食器로 元來 鍮器를 愛用해 왔으나 現代에 와서는 알미늄 알마이트 琺瑯等 代用品이 많이 利用되고 있는 便이나 鍮器를 除棄할 수는 없고 또한 季節에 따라 使用 種類가 多少 다르니 夏節에는 砂器를 쓰고 其外는 大概 鍮器를 使用하였다.

그러나 專門家는 鍮器가 衛生上 좋지 못하고 高價이므로 不遠한 將來에 特殊用器를 除外하고는 더욱 改良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6) 料 理

※ 飯의 種類: 白飯, 보리밥, 팔밥, 롱밥, 조밥, 감자밥, 五穀밥, 비빔밥, 藥밥, 고기밥, 굴밥, 김치밥, 무밥.

※ 김치 類: 숙박이, 통김치, 석박이, 비늘김치, 보김치, 장김치, 나박김치, 동김치, 신건지, 찐지, 깍두기, 오이지, 오이소박이, 가지김치, 쫄김치, 채김치, 엇저러, 굴깍두기, 오이깍두기, 멸치젓깍두기, 곤쟁이젓깍두기, 젓무, 무청깍두기, 소금깍두기.

※ 飲 料: 앵두화채, 굴화채, 딸기화채, 복숙아화채, 진달래화채, 배화채, 순채화채, 장미화채, 보리수단, 흰떡수단, 미수, 얼음수박, 수전과, 식혜, 생강茶, 人蔘茶, 桂皮茶 等이다.

※ 餅 類: 개피떡, 경단, 흰떡, 절편, 녹두편, 느티편, 백설기, 콩설기, 쑥버무리, 인절미, 蒸餅, 시루떡, 松餅, 쑥개피, 雜菜餅, 찰煎餅, 밀煎餅 色餅 주악, 골무떡, 개떡.

※ 正月飲食: 「설 飲食」 正月初하루는 「설」이라 하여 京鄕을 莫論하고 떡국을 먹게 마련이다. 이 외에 설날 飲食으로 最少限 작만되는 것은 떡국, 만두, 인절미, 적, 수정과, 다식, 果實等

인데 其他 절날은 茶禮를 올리게 되므로 여기에 附隨되는 飲食도 많은 것이다. 또한 五穀밥은 正月 열나흘날에 그해 豐作을 祈願하여 五穀을 짓고 여러가지 山海珍味の 나물과 잘 하는데는 열두가지 나물을 작만하는게 普通이다.

※ 藥食 : 藥食은 다 알다싶이 밤 대추 잣等を 꿀이나 雪糖에 加味하여서 전 찰밥이니 밥 中에는 가장 공이 들고 材料가 많이 든 밥이다. 이에 藥字를 부쳐 쓰게된 緣由는 다음과 같다.

即, 그 由來가 悠久하니 멀리 新羅 21代 炤智王(昆盧王) 10년부터 이다.

이제 三國遺事中 昆盧王朝에 보면 射琴匠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同王 即位 十年 戊辰 王이百官을 거느리고 天泉亭에 거동할 때 路上에서 가마귀와 쥐가 서로 싸우고 있는지라 王이 怪異하게 여겼드니 쥐가 말하기를 가마귀의 가는 곳을 좇으라 한다. 王이 다시 騎士를 시켜 가마귀를 쫓게 하니 避林(現慶州南山麓)에 이르러 가마귀의 行方을 잃었다. 이때 옆에 있는 연못에서 一老翁이 나타나서 한장의 封書를 내어주니 길에 쓰기를 배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안배면 한사람이 죽는다고 쓰인지라 王은 메지 않고 한사람이 죽는 것이 옳다 하였다. 日官이 보고서 두사람은 庶民이오 한사람은 國王을 이름이라 아뢰어 뜯고 보니「射琴匠」의 三字가 쓰여 있었다. 王이 射手에게 命하여 宮內의 英匠을 쏘게 하였드니 그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는 宮主요 또 하나는 宮內에서 焚修하는 종이었던지라 그들의 潛通이 發覺되어 兩人을 處刑하니 이 날이 곧 正月 15日이었다. 王은 이날을 烏忌日로 定하고 正月上亥 上子 上午日等에는 每事를 삼가 謹愼토록 하고 이날에는 밥을 지어 가마귀를 먹이는 것인데 이것이 곧 藥食의 由來라는 것이다. 이것이 傳來되어 正月에 藥食을 먹는 風俗이 생긴 것은 事實이다. 中國에는 八寶飯이라 하여 八種의 果實을 넣어 지은 밥이 있으나 우리의 藥食이 中國에서 由來된 것이 아님은 三國遺事의 史記로 보아 알 수 있다. 그것이 때를 지나는 동안에 가마귀의 嚮應이 人間의 밥으로 變했을 뿐이다.

#### (7) 藥 菓

藥菓는 우리나라 造菓中 가장 高級菓子로서 元名은 油密菓라 한다. 기름과 密로 만든 菓子라는 뜻이다. 이 藥菓는 物資와 努力이 많이 들어 高價가 됨으로 大事가 아니면 잘 안쓰고 大典通編에 民家에서 油密菓를 쓰면 棍棒 八十苔라는 法規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이 油密菓가 얼마나 많은 物資와 努力이 드는지를 짐작하는 同時에 이 菓子を 얼마나 珍貴하게 여겼든가를 알 수가 있다.

#### (8) 藥 酒

藥酒는 예전 藥峴大臣집에서 藥用으로 빚어두고 貴한 손님에게만 待接하든 술이라는 傳說에서 나온 名稱이다.

#### (9) 炙 肉(고기구이)

이 고기구이(燒肉)法은 東洋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으로 始作했으니 만큼 種類와 方式이 實로 많다. 멀리 高句麗 時代의 遺風으로 狩獵을 일삼든 北方民族들도 高句麗의 고기구이를 배워서 날고기 먹든 것을 廢했다는 記錄이 있다.

#### (10) 神 仙 爐

韓國料理中 가장 高貴한것이 이 神仙爐다. 여기에는 勿論 肉鳥魚類 名種菜蔬와 銀杏, 胡桃, 實柏子等 高級果實, 山菜, 가지, 버섯類와 乾脯 貝類等이 無漏混用되는 飲食으로 如何한 盛饌이라도 이 神仙爐의 有無가 곧 그 輕重의 有無를 左右할 만큼 珍貴하게 評價되는 同時에 事實 우리 料理의 白眉이다. 或者는 이를 中國의 十景大鍋의 模倣이라고도 하나 그 容器的 獨特함과 材料的 豐實함과 味覺의 特徵으로 보아 이는 完全히 우리 韓國의 特殊한 料理이다. 倭食의 지나친 淡

白味와 中國의 기름진 飲食과 比할 때 各種의 特長을 具備한 高尚한 珍味를 가졌다.

### (11) 膾와 脯와 醬

우리 飲食中에 他國에 別로 없는 것이 膾와 脯다. 日本에도 所謂 刺身(사시미)이라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原始的으로 그 方法도 單純하다. 脯의 種類는 肉脯가 있고 魚脯中에도 銀魚, 大口魚, 點鰹, 오징어, 海蔘, 紅蛤 등이 있다. 醬은 生蔬菜를 그대로 먹는 것을 이름인데 世界에서 우리 韓國만의 飲食法이니 취醬은 高句麗때에 中國에도 傳하여 졌다는 記錄이 있고 상치, 배추, 쪽갓等 우리나라 같이 먹는 나라는 없다. 山菜의 가진 나물과 이런 葉菜로 食饌을 만든 方法도 우리나라의 獨特한 飲食 狀態다.

### (12) 酒 類

濁酒는 술이라기 보다는 重勞動者의 一般 副食物로서 때로는 三時食의 代用도 되며 中國民의 茶와 같은 것이니 이것을 科學的으로 分析해보아도 알수 있다. 藥酒는 가진 果實과 참쌀과 가루 누룩(麴)으로 釀造하는 淸酒인데 예전 板酒 板藥酒는 一種의 藥이요 百日酒는 地下에다 百日間 묻어두면 味가 變치 않을뿐 外에 香臭가 더욱 振振하다. 그밖에 甘紅露酒는 平壤 特産으로 酒中王으로 일컫는 名酒이다. 原料는 燒酒로 淡紅色의 甘酒의 一種이다. 꿀과 桂皮를 少量 넣고 紅麴으로 淡黃色 빛을 낸다. 江界地方에서는 달이 이때야 甘紅露酒 맛을 본다는 民謠가 傳해지고 있는것 만으로도 이 술이 얼마나 一般의 羨望이 되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松筍酒라는게 있는데 이 술은 주로 술이라기 보다 飲料水에 가까운 알콜 成分도 十度内外의 술로 粳米와 麵으로 燒酒에다 술순을 꺾어 넣어 담그며 이에 용수를 박아 뜬다.

## 第4節 住 生 活

(1)種 類: 우리나라의 住宅種類를 大別하면 草家, 瓦家, 洋屋, 日本집 등으로 나눌수 있으나 原州는 주로 農村, 山村을 對象으로 하고 있기에 市街地를 除外하고는 大部分이 草家집이었고 지금은 瓦家로 보아서 大差없을 것이다. 이제 住生活에 對한 歷史를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면 太古 때 처음에는 흙과 나무를 집위에 덮더니 檀朝中葉으로 부터 띠로 집을 덮고 扶餘는 풀로 덮으며 창문이 있고 가난한 집은 그 안에 긴방을 만들어 겨울에 불을 때고 肅愼는 집 모양이 무덤과 같으며 門을 우측으로 열고 다리로 出入하는데 다리많은 집이 좋다 하여 큰 집은 다리가 아홉개나 되었다 한다. 馬韓은 풀과 흙집이 많고 辰韓은 문을 위에 두었다가 뒤에 옆으로 내었다.

(2)居處의 結構: 最古의 家屋은 土나 木으로 其 위에 覆蔽하여 風雨와 霜雪에 朽傷이 具하더니 檀朝中葉 以後로 스스로 民屋은 茅를 拔하여 其 위에 若하였고 扶餘는 草로서 家屋을 茨하여 窟壁이 具備하고 貧寒한 人民은 屋內에 長炕을 作하여 盛冬에 溫火하며 暖을 取하고 肅愼는 屋形이 塚과 似하며 戶를 上에 開하여 出入하는데 梯가 多로서 始라 하여 大家는 深함이 九梯에 至하였고 馬韓은 草屋과 土屋을 作하며 戶가 上에 在하여 舉家가 其中에 在하였으며 辰韓의 家屋은 木을 橫하여 累하고 初엔 戶를 上에 在케 하다가 洞에 出入이 不便타 하여 門을 旁에 穿하였다.

(3)高句麗 居處의 營爲: 高句麗의 家屋은 흔히 山谷을 必依하여 建築하며 民俗이 改修를 좋아하며 弊屋이 없고 屋上은 舉皆가 茅草로서 덮였으며 오죽 神廟와 佛寺와 宮闕과 宮府에만 瓦를 使用하고 屋內에 土炕을 만들어 그 밑에서 불을 때며 그 위에서 寢食起居하였고 新羅는 屋舍의 制限이 있어 眞骨의 집은 屋의 長廣이 24尺이요, 四品은 21尺이며 五品은 18尺이며 六品으로부터 百姓까지는 15尺에 過치 못하고 色瓦를 覆하거나 飛橋를 놓지 못하며 金銀 鑲石 白蠟의 等屬과 五彩를 飾치 못하고 階石을 不磨하며 簾緣에 수를 놓지 못하고 其他 담과 門에까지 그 大小精

## 第1編 總 論

粗가 다 尊卑貴賤의 秩序를 從하여 犯치 못하였다.

(4) 高麗 居處의 營作: 高麗의 屋制가 道詵의 秘記를 從함이 많으니 其秘記에 云하되 山小地에는 高樓를 起하고 山多地에는 平屋을 만들었다. 萬若 高屋을 建하면 衰損을 招한다 하므로 이에 宮闕及 民家에다 高屋을 禁하더니 成宗時에는 制限이 없이 財力이 有한 者는 大屋을 構하며 忠烈時에는 三層屋을 作하고 忠宣時엔 富人宜義門內에 瓦屋을 造하며 또 五部民家도 다 瓦를 使用하니 그때 부터 瓦屋이 많았다.

(5) 構 造: 우리나라의 집 構造를. 大別하면 南韓, 西韓, 北韓型의 三種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집은 周圍環境과 氣候風土에 많은 支配를 받는 것이므로 南, 北 西韓의 家屋構造가 다른 것도 當然한 歸結이다. 即 西北의 住宅이 保温에 置重되어 廚房과 內屋이 連했고 南韓에서는 氣候가 溫暖함으로 開放的으로 되었다. 原州는 우리나라 中央에 位置하여 家屋制度는 南韓式으로 이른바 三間草屋의 一字式과 ㄱ字式 ㄴ字式 口字式의 四種으로 나눌 수 있다. 坐向은 大略 南東向으로 되어 있다. 最近에 와서는 콩크리트 라면造로 많이 하고 洋瓦를 많이 使用하느니라.

(6) 結 言: 上記한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또는 原州 原城의 住宅構造의 概要이다. 大體로 보면 生活程度와 文化水準에 比하여 住宅이 遜色있는 것이 事實인데 이는 過去 李朝時代엔 家屋에도 階級에 따라 이를 制限해 온 것도 한 理由지만 李朝末의 政治의 腐敗로 可及의 生活의 餘裕있음을 숨기는 習慣에도 原因이 있어서 家産構造의 改良發展이 委縮되었다고 본다. 何如間 優先的으로 우리 고장의 家屋은 新, 舊, 韓, 洋, 内外式을 折衷하여 文化的으로 改良해야 하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窓戶를 많이 내서 採光 換氣 通風을 좋게하고 溫突과 焚口를 改造하여 燃料를 節約하고 되도록 門의 높이를 높게 해서 出入을 自由롭게 하도록 改良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大概 부엌 天井에 다락이라는 것이 있으나 높고 어두워서 쓸모가 적음으로 이를 現代式 방식으로 改良할 것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勿論 餘裕있는 都市의 家屋과 農村의 家屋이 달라져감도 사실이다.

## 第5節 娛 樂

※ 圍 棋(바둑): 바둑은 棋 또는 奕이라고 하는 娛樂으로 元來는 中國에서 案出되어진 것이다. 傳說에 의하면 堯帝가 그 아들 丹朱를 敎訓하기 위하여 創作하였다 하기도 하고 혹은 舜帝가 그의 아들 商均을 敎訓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기도 한다. 新唐書 高麗傳에 「好圍棋投壺文戲」라는 句節이 있고 後周書 百濟傳에 「有投壺 擲蒲等雜戲 然尤奕棋」라는 句節이 있으며 舊唐書에 開元 25年 新羅에 使臣을 보내는데 「其人多善奕碁」라는 句節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三國時代에 바둑이 들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縱 橫 各 19線上에 黑 白의 돌로 두는 놀이로 棋道에 禮法이 다른 놀이 보다 嚴하며 옛날에는 비교적 上流層의 놀이었다.

※ 將 棋: 將棋는 바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즐겨왔던 室內 娛樂의 하나다. 가로 10線 세로 9線이 그어진 木板에 楚 漢 兩軍이 나누어 서로 싸우는 놀이로 各軍마다 大將 하나 車 둘, 象 둘, 馬 둘, 包 둘, 士 둘, 卒 다섯을 가지고 宮을 攻略한다. 말의 使用法은 車는 縱橫 直線으로 가고 包는 包 外의 어떠한 말이든지 하나만 건너뛰어 가고, 馬는 日字로 가고 象은 用字로 가고 兵卒은 後退를 못하며 한 금씩 가고 大將과 士는 宮內에 한하여 한 금씩 縱橫 進退한다.

※ 投 牋: 두 겹고 땃땃한 종이 조각에 人物, 鳥獸, 文字등을 그린 것으로 點數를 붙여 勝負를 한다. 근래의 화투, 옛날의 투전이 다 이에 屬한다. 노는 方法은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나 바둑과 장기가 돈을 걸지 아니한 非賭博性인데 比하면 투전은 도박성이 짙어 옛날에는 雜技라 하여 士大夫들은 이를 꺼려했다. 近來에는 全然 볼수조차 없어 되었다.

※ 骨 牌 : 주로 老人들 중에서 즐기는 娛樂으로 材料는 骨角과 象牙 水竹 등을 쓰고 있다. 骨角 單一 材料로 만든 것을 「민패」라 하고 刻이 되어있는 前面은 骨角으로 되어 있고 그 後面에 木材로 붙인 것을 「紗帽牌」라고 한다. 最近에 많이 하는 麻雀과 흡사하나 놀이는 다르다.

※ 雙 六 : 이 놀이는 男子도 하지만 地方에 따라서는 女子도 많이 行한다. 雙六은 나무나 骨角으로 正六面體를 만들어 各面에 1에서 6까지의 구멍을 刻한 주사위 두 개를 굴려 雙六板에 굴러진 주사위 대로 行馬하여 노는 놀이이다. 以上은 대개 어른들의 놀이인데 이것 外에도 歲時에 따라 놀이가 있으나 歲時風俗編에 이미 取扱되었다. 傳來의 아이들 놀이는 地方에 따라 다른 것도 있으나 어느 곳이나 共通性이 있는 것도 있고 그 種類도 많다.

※ 돈치기 : 몇 사람이 모여 一定한 자리 약 2~3m에 동전을 던져놓고 가장 맞추가 어려운 돈을 指摘하여 주면 그 돈을 맞추어 따먹는 놀이로 마당이나 길가에서 많이 한다.

/※ 수박 따기 놀이 : 많은 아이들을 수박으로 가장하고 그 중 한사람은 수박을 지키는 主人할머니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수박을 따 가려는 營감이 된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수박으로 가장하여 여기 저기 앉혀놓고 있노라면 할아버지가 수박이 먹고 싶다고 찾아온다. 할머니는 수박이 아직 덜 익었다고 거절하여 보내기를 몇번 한 끝에 마침내 할아버지는 수박이 다 익었다고 한번에 한 아이씩을 데려다가 숨겨 놓는다. 마지막 아이를 데려다 숨겨 놓고 나면 反對로 할머니가 숨겨 놓은 아이들을 찾는 놀이로 여름이나 가을의 달 밝은 밤에 한데에서 하는 놀이다.

숨바꼭질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아이가 술레가 되어 나무 기둥이나 나무줄기를 집으로 定하고 술레가 그 곳에서 눈을 가리고 50이나 100을 세고 있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제각기 숨기 좋은 場所에 가서 숨고 쉼을 다 센 술레가 숨은 아이를 찾아다닌다. 술레에게 잡히면 지고 잡히지 아니하고 술레집에 오면 이긴다. 이 놀이에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꼭꼭 숨어라 머리 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살금 살금 달아 나자.

빨리 빨리 달아 나자.

※ 고 누(꼬니) : 판자나 마당에 말 발을 그려고 흰 말과 검은 말의 두 편으로 나누어 벌려 놓고 서로 많이 따 먹음으로써 勝負를 다투는 놀이이다. 우물고누, 네발고누, 육발고누 따위의 여러가지 種類에 따라 노는 方法도 다르다. 지방에 따라 끈줄이라고도 한다.

※ 제기 차기 : 가운데 구멍이 뚫린 葉錢 같은 것을 얇은 종이로 싸서 구멍으로 나온 긴 종이를 가늘게 찢어 솥을 만들어 차는 놀이로 男子들이 한다.

※ 땅재 먹기 : 두 사람이 커다란 圓을 그려 그 圓을 2等分하여 납작한 돌 또는 土器 깨어진 것을 둥글게 만들어 그것을 부겨가며 自己 손뼉으로 相對方의 땅을 재어서 뺏았는다. 이 놀이는 이것 말고도 큰 圓을 그려 놓고 그것을 다시 數 10개의 작은 半圓으로 나누어 말을 튀겨 하나 하나를 빼앗는 놀이도 있고 못치기라 하여 땅에 못을 꽂아가며 相對方의 땅을 빼앗는 놀이도 있다.

※ 軍士 놀이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 두 사람을 뽑아 서로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 門을 만들면 남은 사람은 一列로 서서 門으로 들어갔다와 나와 다시 들어가면서 노는 놀이이다. 손을 마주잡고 門을 만든 사람을 門지기라 하고 門을 드나드는 사람을 軍士라고 한다. 軍士와 門지기는 서로 問答을 하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問答內容으로 보아 義兵때의 동요인상 같다.

「어디 軍士인가」

「原州 軍士일세」

「몇千名 인가」

「三千名 일세」

|              |               |
|--------------|---------------|
| 「몇 바퀴 돌았나」   | 「三百 바퀴 돌았네」   |
| 「무슨 칼을 찼나」   | 「장도 칼을 찼네」    |
| 「무슨 신을 신었나」  | 「가죽 신을 신었네」   |
| 「어디로 들어 가는가」 | 「東大門으로 들어 가네」 |

※ 실 놀이 : 한발 가량의 실을 끝을 매어 圓으로 만들어 손 목에 걸고 오른 손으로는 왼쪽 손의 실을 왼 손으로는 오른쪽 손의 실을 각각 당겨 人形을 만들고 두사람이 마주앉아 주거나 받거나 하면 질구통 짓가락 등의 모양이 된다. 이 때 하다가 실이 뻗히면 아니 된다.

※ 팽이 치기 : 기구로는 팽이와 팽이채가 있다. 팽이는 直徑 4.5cm 内外의 圓槌로 밀은 硯卓하고 위는 넓고 둥글게 만들고 팽이채는 60cm 内外의 나무막대기 끝에 그 나무 길이 程度의 노끈 或은 천을 달아 만든다. 팽이는 흑 땅에서도 치지만 겨울철 얼음판에서 많이 친다. 팽이를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팽이채의 끝을 팽이에 칭칭 감아 瞬間的으로 채를 잡아당기면 팽이는 돌기 시작하고 다음 부터는 팽이채로 팽이를 치면 팽이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繼續 돌아 간다. 혼자 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치기도 하는데 팽이가 오래 돌기 내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뱅글 뱅글 잘두 돈다.

요리 조리 잘두 돈다.

고추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 짱 치기 : 오늘의 아이스 하키와 비슷한 놀이로 얼음판에서 나무로 만든 납작 둥글한 짱을 놓고 두 패로 갈라서 정채로 쳐서 상대방의 門에 넣는 놀이이다. 요즈음 冬節에 하키는 하지만 傳承의 이 짱 치기는 거의 없어 졌다. 흔히 나무꾼들이 설터에서 많이 했다.

※ 돌 치기 : 땅에 一定한 規格의 線을 그어 여러개의 칸을 만들어 놓고 손바닥만한 돌을 발로 차서 한칸 한칸 차 넣어 勝負을 보는 놀이로 種類가 多樣하여 主로 女子 아이들이 많이 한다.

※ 팔 씨름 : 男子 들의 놀이로 두 사람이 바닥에 팔꿈치를 세우고 서로 손을 맞잡고 넘기기 내기를 한다.

※ 木枕 빼앗기 : 壯丁들의 놀이로 木枕을 서로 길이로 맞잡고 힘을 주어 당겨 빼앗기는 쪽이 지고 빼앗는 쪽이 이기는 놀이인데 主로 農村에서 農事군들이 저녁에 사랑방에서 많이 한다.

※ 曹操 잡기 : 사람의 數에 따라 종이 쪽지에 曹操, 孔明, 劉玄德, 黃忠, 趙子龍, 關羽, 張飛, 等 三國誌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보이지 아니하게 엮어놓고 제각기 한장씩 주어서 남에게 보이지 않게 갖는다. 그 中 劉玄德을 잡은 사람은 命令官이 되어 自己 部下에게 가령 「趙子龍은 지금 곧 曹操를 잡아 待令하라」하면 趙子龍을 잡은 사람은 座中の 눈치를 살펴 曹操를 잡았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指摘한다. 이 때 바로 指摘이 되면 曹操가 지고 바로 指摘이 되지 못하면 指摘한 사람이 진다.

※ 엇치기 : 여러사람이 가락엇을 한가락씩 골라 잡되 그 中 구멍이 크리라고 생각나는 것을 골라 一時에 꺾어 그 中 엇속에 구멍이 가장 큰 것이 있는 사람이 이기고 가장 작은 사람이 진다. 이 때에 엇 값은 구멍이 가장 작은 사람이 다 내야 한다.

※ 공치기 놀이 : <사람수> 2人 또는 3人이 할수 있고 4人이면 便을 쥘다. <材料> 공(잘 뛰는 조그마한 공) <노는 法> 공을 한손으로 같은 速度로 固定的으로 땅으로 뻗히기도 하고 오른 손으로 치고 얼른 돌아서 오른 손으로 다시 치기도 하며 발로 살짝 눌러치기도 한다. 노래는 여러가지



가 있으나 大概是 三拍子이다.

(노래) 「우리집 옆집 도둑팽이가 연지 곤지 바르고 눈섭 그리고 연지가 없어서 사려 갈적에  
서울 다리 건너갈 적에 사람이 많으니 얼른 감춰라」

제일 끝인 「얼른 감춰라」의 노래에 맞추어 재빨리 공을 치마폭으로 감싸 버린다.

※ 줄넘기 : (必要한 물건) 새끼줄 5m 가량의 길이 (사람수) 兩쪽에 한 사람씩 두사람이 줄을  
붙들면 된다. 그리고 붙들지 않은 사람은 數를 가리지 않아도 좋다. 特히 사람수가 많으면 재  
미있다.

(노는 法) 줄을 붙잡은 사람 두사람은 卽 말하자면 술레다. 많은 數의 사람들이 便을 갈라서  
서로를 「가위 바위 보」를 하여 맨 나중에 진 사람을 뽑아서 줄을 붙들게 한다. 그리하여 술레  
가 된 두사람이 兩쪽에서 줄을 잡는데 平平하게 길가에 줄을 친 것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줄  
을 땅에 끌리게끔 兩쪽에서 서로가 잡고서 땅에 대고 空中에 圓을 그리면서 돌도록 돌리는 것  
인데 술레는 하지 못하고 다만 이 줄만을 繼續해서 올린다. 그러면 술레가 아닌 사람은 이 줄  
을 둥글게 돌리는 瞬間을 利用하여 줄을 닿지 않게 그 圓안에 들어가 한번 뛰고서 또 그 사이를  
급히 빠져 나와야 한다. 그러면 한번 돌리는 사이에 한 사람이 또 한번 돌리는 사이에 또 한사  
람이 이렇게 繼續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그러다 不幸하게 잘못하여 줄이 몸 허리에 걸리  
어 돌릴 수 없게 되면 그 사람은 술레가 되어서 兩쪽中の 술레와 바뀐다. 그러면 술레를 하던  
자가 교체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또는 많은 사람수가 必要없게 셋 또는 네 사람이 노래를  
불러 가면서도 할 수가 있다. 다만 하나 둘 셋 數만을 센다. 이 遊戲는 大概 여덟살에서 열살  
되는 女兒들이 한다. 사내 아이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 고무줄 넘기 : 이것은 解放後에 全國的으로 大流行을 보고 있는 少年들의 가장 즐기는 遊戲이  
다. 至今도 如前히 우리고장에서 一年四節을 不問하고 大盛行을 계속하는 少女들의 놀이인데  
細長한 고무줄 하나만이 唯一한 資料이다. 양쪽에서 少女들이 約十餘尺의 間隔을 두고 고무줄  
을 마주잡고 있으면 다른 少女들이 모두 合唱으로 노래를 불러준다. 그러면 中間에 다른 2,  
3名の 少女들이 나와서 그 고무줄을 가지 各색의 形式으로 냉큼냉큼 뛰면서 그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넘는다. 이것은 純全한 國民學校 少女들이 專用하는 놀이로써 가운데 나와서 旁중  
층 춤추며 고무줄을 넘는 方式도 쉬운것 부터 어려운 階段으로 나누어지는 여러가지가 있다. 처  
음에 고무줄을 잡아주는 높이가 1尺정도로 부터 시작되지만 차차 높이를 늘리어 가면서 한계단  
두 계단으로 올라간다. 고무줄을 넘다가 失手로 밧에 고무줄이 걸리면 그 少女는 失格이 되는  
同時에 쫓겨나가서 고무줄을 잡아주는 所任을 맞는다. 그러는 동안에 고무줄을 잡아주는 所任  
이 失格되는 少女들로 하여금 여러번 交替를 한다. 이리하여 나중에 고무줄 높이는 出演하는 少  
女들의 身長과 같은 정도로 높이므로써 그 課程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反復 再演을 하는데 줄  
을 넘을때 서로 合唱으로 불러 주는 노래도 各地方 地方에 따라 다르나 그것은 大概가 學校에  
서 배운 노래中에서 고무줄 넘기에 맞는 曲調을 擇하여 이용한다.

## 第6節 農 樂

俗樂 中에서 農民을 中心한 가장 大衆的이며 代表的인 樂으로 名節은 말할것도 없고 갖가지  
行事에 쓰이고 있다. 農樂隊의 編成은 一定치 아니하여 적을 때에는 數名으로도 可能하고 많을  
때에는 數10名으로 編成된다. 農樂隊의 리더는 상쇠잡이다. 상쇠잡이는 팽파리 혹은 小金이라  
는 直徑 25cm가량 둘레의 높이가 5cm 가량의 쇠로 만든 打樂器를 나무로 만든 채로 치는데 그  
치는 가락에 따라 農樂隊 全部의 가락을 리드하여 가고 부쇠잡이는 팽파리를 치되 상쇠를 돕는

다. 이 팽파리는 둘레에 구멍을 뚫어 끈을 매어 왼손에 잡고 왼손가락으로 조절을 한다. 징잡이는 모양은 팽파리 같이 생겼으며 훨씬 크고 우람한 소리를 내는 징(鉦)을 치고 장고잡이는 장고를 치고 벵구잡이는 小鼓와 大鼓를 친다. 이들은 벵거지를 쓰고 가락에 맞추어 흰 종이 조각을 고개를 흔들며 돌린다. 吹樂器로서는 피리, 날날이 따라 吹奏하며 고깔을 쓴 舞童이 男服이나 女服을 하여 뒤따르며 춤을 춘다. 隊列의 先頭에는 「令」字를 쓴 令旗와 다음에 「農者天下之大本」 혹은 「神農遺業」이라고 쓴 기 잡이가 旗를 잡고 있다. 內容은 單純히 가락을 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年中의 農事行事物 그대로 動作으로 再現하기도 한다.

原州地方에서는 農村部落마다 農樂隊가 있어 논을 맬 때마다 利用해 왔다. 그리고 명절때에 많은 농악놀이를 해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없어져 가기 시작하여 이제는 原州市에 杏邱洞 오리골 農樂과 牛山洞 農樂이 있기는 하지만 樂器가 破損되어 쓰지 못하고 있다. 原城郡內에는 各面마다 1個式的 農樂隊가 있기는 하지만 全然 活用하지 않고 있다. 固有의 우리것이니 만치 아주 消滅되어서는 안될 農樂놀이가 再起되어 지기를 바랄뿐이다.

多幸스러운 것은 所草國民學校 어린이 農樂隊가 있어 큰 行事때마다 선을 보여준다.